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 심사평가 보고서

2003.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목 차

I. 일반 현황 (1)

1. 세입·세출 예산 운영 (2)
2. 문예진흥기금 모금 및 적립·운용 (5)
3. 이사회 운영 (7)
4.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 (8)

II.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13)

1. 지원목표(성과목표)별 종합평가 (14)

- 가. 지원목표(성과목표)와 해당 단위사업 (14)
- 나. 지원목표(성과목표)별 평가현황 및 결과(15)
- 다. 간접지원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 (17)

2. 단위사업별 종합평가 (33)

- 가. 단위사업별 지원대상 현황 (33)
- 나. 단위사업별 평가 결과 (33)

- 1) 단위사업명 (33)
- 2) 단위사업별 서면/현장 평가결과 종합 (34)
- 3)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및 평가 결과(37)
 - 창의적 예술 지원 (37)
 - 다원적 예술 지원 (57)
 - 관객개발 지원 (60)
 - 참여하는 예술 지원 (66)
 -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 (81)
 -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88)
 -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94)
 -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53)
 - 신진예술가 지원 (58)
 - 찾아가는 예술 지원 (63)
 - 예술자료정보보급 지원 (80)
 - 전통예술발표전승보급 지원 (86)
 -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92)
 -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96)

3. 분야별 종합평가 (104)

- 가. 분야별 지원대상 현황 (104)

- 나. 분야별 평가결과 (104)
- 다. 분야별 현장평가대상 단위사업 (105)
- 라. 각 분야별 외부평가위원 평가내용 (105)
 - 문학 (105) ◦ 미술 (106) ◦ 음악 (106) ◦ 무용 (107)
 - 연극 (108) ◦ 전통예술 (109) ◦ 문화일반 (110)

Ⅲ. 경영개선 평가 (113)

1. 업무개선(중점추진) 과제평가 (113)

- 가. 원내 자체 평가 방법 (113)
- 나. 2002년도 과제별 원내 평가 방법 (113)
- 다. 2002년도 과제별 원내 추진실적 종합 (114)

2. 경영혁신 과제 추진실적 평가 (127)

Ⅳ. 평가제도운영평가 (130)

1.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사평가 추진체계 (131)
2.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심사평가 추진방안 (132)
3. 추진 개요 (132)
4. 평가현황 분석 (134)
5. 평가결과 반영 실적 (135)

(붙임)

1. 기금운용평가결과
2. 문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문화예술인 설문조사 결과 (140)

I . 일반 현황

I. 일반 현황

1. 세입·세출 예산 운영

가. 세입·세출 현황

1) 세입

○ 기금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 계획	2002 실적	실적/계획
1. 모 금 수 입	32,000,000	48,434,219	151.3%
◦ 공 연 장	29,700,000	46,231,033	155.6%
◦ 박 물 관	400,000	344,005	86.0%
◦ 미 술 관	200,000	110,076	55.0%
◦ 문 화 재	1,700,000	1,749,105	102.8%
2. 이 자 수 입	27,100,000	29,705,698	109.6%
3. 특별회계전입금	5,000,000	5,000,000	100.0%
4. 기 부 금	500,000	251,968	50.3%
5. 잡 수 입	500,000	867,769	173.5%
6. 방송발전기금	1,583,000	1,583,000	100.0%
7. 출판용자상환금		11,310,500	
합 계	66,683,000	97,153,154	145.6%

○ 운영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 계획	2002 실적	실적/계획
1. 이 자 수 입	11,000	14,981	136.2%
2. 임 대 수 입	434,323	466,438	107.3%
3. 사 업 수 입	737,200	603,648	81.8%
4. 잡 수 입	1,000	11,453	1145.3%
5. 기금회계전입금	5,486,386	5,218,202	95.1%
합 계	6,669,909	6,314,722	94.6%

2) 세출(회계)

○ 기금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 계획	2002 실적	실적/계획
1. 진 흥 사 업	33,850,031	31,747,538	83.8%
○ 예술적창조역량강화	9,797,465	9,329,535	95.2%
○ 예술의접촉기회확대	6,107,800	5,735,858	93.9%
○ 예술의보존과발전적계승	4,725,000	4,643,315	98.3%
○ 문화적조화를위한역할증진	7,612,000	7,018,441	92.2%
○ 예술기반조성	5,607,766	5,020,389	89.5%
2. 모 금 관 리	2,542,680	2,542,680	100.0%
3. 기 금 적 립	24,000,000	24,000,000	100.0%
4. 예 비 비	803,903	593,500	73.8%
5. 운영회계전출금	5,486,386	5,187,744	94.6%
6. 출판용자상환금 등 추가적립		11,560,500	
합 계	66,683,000	75,631,962	113.4%

○ 운영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 계획	2002 실적	실적/계획
1. 경 상 운 영	6,328,550	6,172,310	97.5%
○ 인 건 비	3,191,028	3,151,757	98.7%
○ 경 상 비	3,137,522	3,020,553	96.3%
2. 예 비 비	341,359	183,728	53.8%
합 계	6,669,909	6,356,038	95.3%

○ 이월사업(문화예술원증개축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2002 계획	2002 실적	실적/계획
1. 이월사업	1,130,000	1,050,222	92.9%

나. 세입·세출 현황 분석

1) 세입 현황 분석

2002년도 세입은, 운영회계의 기금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당초 실 세입예산 678억6천6백만 원에서 303억8천3백만 원이 증가한 982억4천9백만 원으로 계획 대비 144.7%의 실적을 보였다.

2002년의 경우 당초 우려와 달리 일정수준 이상의 관람객을 확보하고 있는 복합상영관의 개관이 늘어남에 따라 모금수입(49.3%)이 당초목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 기획예산처의 기금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자산운용의 결과로 수익률제고에 힘쓰므로써 이자수입(29.9%)이 4%대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했다. 이 두 개의 세입재원은 전체 세입의 79%를 차지하는 등 기금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모금수입은 총 484억3천4백만 원으로 당초 계획 320억 원 대비 151.3%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한국영화가 연평균 객석 점유율 4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흥행 유지와 복합상영관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영화상영관 연도별 모금 및 입장객 현황

(단위 : 백만 원, 천 명)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모금액	14,414	15,071	15,961	17,946	21,433	29,544	39,411
입장객	42,268	47,524	50,170	54,721	61,690	70,049	92,300

다만, 2001년부터 민간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동 시설들의 규모나 운영난을 고려, 민간소유 시설에 대한 모금면제 확대와 국·공립박물관의 대형기획전시 감소에 따라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모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점유율에서 큰 변동요인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모금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대미만 입장대수 자동차전용극장도 모금면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전체 모금실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수입의 경우, 2001년에 이어 지속적인 금리하락 추세로 자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부동산 투자신탁, 우량채권 매입, 회사채 단독펀드 구성 등 다양한 자산 배분에 의해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상의 당초 목표 6.60%을 다소 상회하는 6.74%의 수익률을 냄으로써 목표액 대비 27억5백만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특별회계전입금은, 개장 이래 최초로 대규모의 재투자를 시행하여 북코스에 카트도로를 신설하고 5인승 전동카트 운영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사기간 중 휴장 등 영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전면 월요개장을 비롯한 경영개선을 통해 세입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가족회원제도를 준회원 제도를 전환하여 입장수입의 증대, 전동카트 사용료 수입등 순수영업수익금 62억 2천 3백만 원, 세금환급액 2억 7천 2백만 원 등의 수익을 올려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격감을 최소화하였다. 다만, 초과 수익금은 용자받은 북코스의 이자부담등을 줄이고자 우선 용자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기금 조성액은 당초 목표액 50억원으로 조정하였다.

방송발전기금은 서울공연예술제 5억원, 장애인문화향수지원 2억원, 소외지역순회공연지원 4억원, 관객개발 및 소극장 지원 4억 8천3백만원, 토지문화재단지원 등 3개 단체에 대한 조건부기부금사업 4억 1천7백만원이 출연되었다.

기부금 세입의 경우, 기업면담 등 기부금 유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기부문화에 대한 여건 부족, 적극적인 유치노력 미비 등 내외적인 업무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방일영문예지원기금 1억원 추가 기부, 꽃봉지회 배우사랑기금 5천만원, 국민은행 문화사랑기금 1억원 등 2억 5천만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 국내 민간 부문의 경제 여건 회복 둔화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낮음에 따라 기부금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잡수입 세입은, 기금회계 부문의 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금 7억5천8백만 원 및 운영회계 부문 임대시설물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8억5천9백만 원의 실적을 보였다.

운영회계 부문의 임대수입은 문예회관, 미술회관, 무대예술연수회관, 본관 강당 대관료 등으로 4억6천6백만 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사업수입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사업수입 1억7천3백만 원 및 예술자료관 사업수입, 미술회관기획전시 사업수입, 간행물 판매수입 등을 포함하여 6억3백만 원의 실적을 보였다.

2) 세출 현황 분석

2002년도는 기금회계의 운영회계전출금을 제외한 당초 실 세출예산 678억6천6백만 원 의 113.7%인 756억3천2백만원의 세출 실적을 보였다.

기금회계 세출예산의 약 51%를 점유하는 진흥사업 부문은 당초 예산 338억5천만 원의 83.8 %인 317억4천7백만 원이 집행되었다. 진흥사업 부문 대부분 고른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출판용자상환금 113억 1천만 원 과 순수기부금 2억 5천만 원이 발생되어 추가로 기금적립을 하였다. 모금관리비는 모금수입 증가에 따른 모금수수료가 늘어나 당초예산보다 초과되어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다.

운영회계 중 경상운영 부문은 불요불급한 각종 경비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당초 예산 63억2천만 원의 97.5%인 61억 원을 집행,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예비비의 경우, 2001년도 기금평가에서 우수하여 특별성과금으로 6천 7백만 원이 집행되었고, 당초 예산 편성시 예비비로 책정되었던 직원 인센티브 상여금 1억 1천7백만 원이 집행되었다.

창의적예술지원 중에서 전용상영관 및 영화진흥지원으로 1억 3천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영화진흥을 위해 20억을 기금적립에서 전용하여 예산 총액 21억 3천만원이 전액 집행 되었다.

방송발전기금 출연액 15억 8천만 원은 서울공연예술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다.

2. 문예진흥기금 모금 및 적립·운용

가. 문예진흥기금 모금관리

1) 모금 개요

○모금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모금대상 시설 : 전국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 1,049개소

- 공연장 : 927개소(영화관 630, 기타 공연장 297)
- 박물관(33), 미술관(11), 국가지정문화재(78) 등

○모금율

- 1,001원 ~ 3,000원까지 : 입장요금의 2.0%
- 3,001원 이상(영화관) : 입장요금의 6.5%
- 3,001원 이상(기타 공연장) : 입장요금의 6.0%
-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는 단계별 적용

2) 모금관리 추진 실적

문예진흥기금 모금 단기 상승 미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분기별 납부독려 출장 외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상시 출장 제도를 운영하는 등 모금 미납금 회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모금 출장 및 법적 조치 등은 모금 회수액의 증가뿐 아니라 사전고지와 계도를 통한 회수효과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매년 스크린쿼터 일수 조정 등을 이유로 영화관 모금대행기관인 전국극장연합회 및 서울시극장협회의 대행 약정 상승 지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국극장연합회 및 서울시극장협회와 2002년 12월 31일에 모금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2000년도부터 시행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모금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극전용소극장(객석 200석 미만)에 대한 모금 면제 혜택에 이어 2001년도부터는 영화관 소극장(단일관)에 대한 모금 면제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외의 공간(체육시설, 임시공연장, 야외시설 등)에서의 공연에 대한 모금 면제를 시행하는 등 모금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100대 미만의 자동차극장에 대해서도 모금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3년 12월 31일로 중단됨에 따라 향후 닥칠 문예진흥기금의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문예진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에 새로운 대체 재

원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및 기금운용

1)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73-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국 고	447	300	300	200	0	0	0	0	0	0	1,247
공 익 자 금	600	0	50	0	0	0	20	30	0	0	700
올림픽잉여금	100	0	0	0	0	0	0	0	0	0	100
자 체 적 립	528	65	30	106	123	76	306	452	271	356	2,313
합 계	1,675	365	380	306	123	76	326	482	271	356	4,360

2002년도 연간 적립 계획 금액은 240억 원이었으나, 모금 및 이자수입 240억 원, 출판용자회수금 113억 1천만원, 실명제기부금 2억 5천만원 등 356억 원을 적립함으로써 당초 목표액의 148.33%를 달성하였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문예진흥기금 적립액은 총 4,360억 원으로 기금조성 총 목표액 4,500억 원의 96.8%에 이른다. 따라서 당초 목표연도인 2004년을 앞당긴 2003년에 달성된 것으로 예측되며, 조달재원으로는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액, 여유자금 운영 등을 통해 500억 원 이상의 적립이 가능하다. 다만, 2001년에 문예진흥기금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발표에서 2013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조성금액이 필요하다고 발표된 바 있으며, 2002년 적립목표액을 2010년까지 1조 5천억으로 보고하였으며, 대선 공약 등 관련문화정책에 1조원 조성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2008년까지 1조원 조성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금폐지 등 당면 현안사항에 불구하고 2002년 11월 경륜·경정 수익금의 문예진흥기금 배분 참여를 골자로 한 동 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계류 중에 있으며, 국고 출연 등 신규재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모금중단 후 재원대책마련이 심각한 시점에서 기금조성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대체재원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2) 문예진흥기금 운용 현황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예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비 고
	금액	예탁비중	금액	예탁비중	
확정부	정기예금,채권	260,242	64.97%	265,683	60.93%
	소 계	260,242	64.97%	265,683	60.93%
채권형	특정금전	40,660	10.15%	25,200	5.78%
	수익증권	70,868	17.69%	130,173	29.85%
	투자일임	19,226	4.80%	0	0.00%
	소 계	130,754	32.64%	155,373	35.63%
주식형	수익증권	4,500	1.13%	10,000	2.29%
	투자일임	5,000	1.26%	5,000	1.15%
	소 계	9,500	2.39%	15,000	3.44%
계	400,496	100.00%	436,056	100.00%	

○기금운용 실적

2002년 기금의 운용은 『2002년 기금운용계획』에서 계획한 대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큰 비중을 둔 운용정책을 시행하여 금리확정형 보다는 수익성이 다소 높은 신탁형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였다.

전년대비 지속적인 수신금리의 하락, 지속되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 제한적인 기금운용 여건 하에서 운용효율성 제고와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다양한 투자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운용수익성 제고를 위해 우량주에 대한 직접투자를 전년에 대비하여 활성화하

였고, 적정시점에서 장기의 우량회사채를 매입하였다. 또한 틈새상품으로 우량은행을 통한 고금리 부동산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2002년도 기금운영 실적 세부 내역은 <표 I-1, I-2, I-3>과 같다.

<표 I-1> 2001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운용수익)

구분	금액	수익률	비고
목표금액	271억 원	6.60%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상 목표금액
금액	297억 원	6.74%	+0.14% 초과 달성

※ 목표금액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본운용계획서』의 세입 목표 준용

<표 I-2> 2002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신규투자상품 운용 실적)

구분		투자일	만기일	금액	비고
상품	회사명				
회사채단독펀드	SEI에셋	2002.1.29	2005. 1.29	300억 원	공모투자
부동산신탁	산업은행등	2002.6	-	110억 원	
투자필	삼성투신	2002.1.29	2005.10.14	400억 원	
인덱스펀드	유리자산운용	2002.4	2003. 4	100억 원	공모펀드
채권매입	삼성카드	2002.5	2004.5	100억 원	직접투자
우량주식투자	삼성전자등	2001.2~6	-	64억 원	직접투자

<표 I-3> 2001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기금자산 배분 실적)

구분	배분 기준	실적	비고
금융권예탁	50% 이상	60.93%	
채권투자	40% 미만	35.63%	
주식형투자	10% 미만	3.44%	

※ 배분기준은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자산배분기준임.

○기금운용 제도 개선

2001년말 구성된 기금운용자문회의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금의 장기운용정책 및 자산배분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화 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위원을 교체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 거시경제전문가 1인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채권운용전문가 1인 (미래에셋 투신운용본부장)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2001년 기금평가단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자 기금운용 관련 지침(2002.1월)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개정
- 제2금융권 선정기준 개정

아울러 2001년말 이후 외부 투자 자금에 대한 평가와 편입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운용사 선정 작업 등에 대한 전문 평가기관과의 아웃소싱을 지속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3. 이사회 운영

가. 운영근거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관 제10조 내지 제13조

나. 주요 기능(부의사항)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6)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다. 구성 및 운영 현황

○ 문예진흥원 이사 명단

(작성일 : 2002.12월)

구분	성명	임기	현직위	주요경력
상임	김정옥	2000.1.24 ~ 2003.1.23	원장	연출가, ITI세계본부회장
비상임	권옥연	2000.4.30 ~ 2003.4.29	이사	미술가/ 예술위원회
비상임	신찬균	2000.4.30 ~ 2003.4.29	이사	세계일보 논설위원
비상임	허영자	2000.4.30 ~ 2003.4.29	이사	시인/ 성신여대 교수
비상임	장혜원	2000.4.30 ~ 2003.4.29	이사	이화여대음악연구소장/예술의전당 이사
비상임	조강환	2000.4.30 ~ 2003.4.29	이사	동아일보논설위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	손병두	2000.4.30 ~ 2003.4.29	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이사 / 전경련 상근 부회장
비상임	서연호	2000.4.30 ~ 2003.4.29	이사	연극평론가/ 고려대 교수
비상임	정승희	2000.4.30 ~ 2003.4.29	이사	대한무용학회장/ 예술종합학교 교수
비상임(당연)	이승규	2002.7.25 ~	문화정책국장	문화관광부 감사관 예술국장
상임(당연)	이진배	2002.9.4 ~ 2005.9.3	사무총장	공보처 기획관리실장 / 문광부 차관보

(참고) 감사 및 문화진흥(주)대표이사

감사	최희준	2001.4.1 ~ 2004.3.31	감사	국회의원
대표이사	전수신	2001.5.19 ~ 2004.5.18	대표이사	삼성전자고문/ 삼성스포츠단장

○ 2002년도 주요 추진사항

회차	일자	의안번호	의안내용
제163회	2002.1.24	제530호	직제규정 개정(안)
		제531호	보수규정 개정(안)
제164회	2002.2.28	제532호	문예진흥기금 모금미납금 특수채권 소멸처리(안)
		제533호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 예산결산(안)
		제534호	기본재산 설정(안)
제165회	2002.5.15	제535호	2002년도 및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운영계획(안)
		제536호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예비비 사용(안)
		제537호	2002년도 영화진흥지원계획(안)
		제538호	제규정 개정(안)
제166회	2002.8.28	제539호	예술의전당 토지 등의 국가에 대한 기부(안)
		제540호	사무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 청취
제167회	2002.10.30	제541호	퇴직금 소송 판결금 지급(안)
		제542호	특별성과금 지급(안)
		제543호	2003년도 뉴서울골프장(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68회	2002.12.17	제544호	직제규정 개정(안)
		제545호	문예진흥기금 모금대행 수수료 부족분 지급(안)

4.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가. 지원 심의

- 1) 기간 : 2001. 12. 17 ~ 2002. 1. 10
- 2) 확정 :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3) 심의위원회
 - 각 분야별 전문 예술인 및 학자 등 9~12인으로 구성

- 1단계 심의 : 제1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기금지원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등 검토 심의
- 2단계 심의 : 제1차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문학, 미술 등 8개 분야)
 - 지원사업, 지원대상 등 심의평가표에 의한 채점 심의
- 3단계 심의 : 제2차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우선 순위 및 지원예정액 결정
- 4단계 심의 : 제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종합심의
 -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최종 종합 심의 및 확정

나. 심의제도의 공정성 강화

- 1) 지원심의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4단계에 걸친 다단계 심의방식(2001년도 3단계 → 2002년도 4단계)과 심의평가표에 의한 채점제 적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대폭 강화
 - 심의결과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월간 '문화예술'지 등
- 2)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문화예술계 및 민간단체 추천을 통해 전문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뱅크』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기금지원심의위원(8명) : 각 분야를 대표하는 중진·원로급(장관 승인)
 - 분야별지원심의위원(8개 분야 각 9~12명)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중견·중진 전문인사
 - 지원심의 위원 전원 교체 및 문화예술계 추천인사 대폭 수용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02년도의 경우 지원심의위원 전원을 교체
 - 경향별, 지역별, 성별(여성비율31%), 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 다양성과 형평성을 제고
- 3) 심의기준 정비와 심사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심의의 객관성 및 내실화 추구
 - 지원심의기준을 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비
 - 사업내용의 예술성/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능력
 - 01년도 심사평가 결과를 지원심의시 반영하여 평가결과의 환류체제를 구축

다.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사평가(평가·감리제도) 도입 운영

- 1)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사평가제도 도입·운영
 - 진흥사업 평가체계 개발 및 전문 평가단(종합 12명, 분야별 24명) 구성 운영
 -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평가단 구성의 제도화 및 과학적 평가지표의 개발·운영
 -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요원(100명) 선정 운영
- 2)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 : 평가결과 일반 공개
 - 평가결과의 지원심의 연계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 반영

라. 목표지향적 전략지원 체제로 전환

: 문예진흥기금의 중장기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2002년도 문예진흥사업의 전략목표를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혁신』으로 정하고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담은 4대 성과목표(지원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지향적 전략지원체제로 전환

※ 4대 성과목표 :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

마. 기금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편

: 기금사업의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장르별, 사업유형별 지원에서 기금사업의 4대 성과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

바. 집중지원 체제를 기조로 전략적 재원배분 추진

- 1) 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집중형 지원의 확대 및 문화예술의 저변과 문화향수층을 넓히는 보급화

산형(소액다건형) 지원의 전략적 추진

2) 문화예술계 지원체감 효과 제고 및 창조자와 향수자의 균형 발전 도모

사.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 1) 현행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전환
- 2) 성과목표의 제시와 결과평가를 통해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

아.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위원 명단

1)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분야	성명	성별	생년 (나이)	현직	비고
문학	김성곤	남	1948(53)	서울대 영문과 교수	
미술	윤명로	남	1936(65)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	
음악	나덕성	남	1941(60)	중앙대 음악대학 교수	
무용	김복희	여	1948(53)	한양대 무용학과 교수	
연극	허순자	여	1954(47)	청운대 방송연기학과 교수	
전통예술	임미선	여	1960(41)	전북대 국악과 교수	
다원예술	이승구	남	1945(56)	중앙대 영상예술학과 교수	
문화일반	조경만	남	1954(47)	목포대 문화인류학 교수	

2)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 문학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한영옥	여	1950	성신여대 교수	시	
함동선	남	1933	시인	시	
민영	남	1934	시인	시	
유재영	남	1947	시조시인	시조	
유현중	남	1939	소설가	소설	
노순자	여	1942	소설가	소설	
박범신	남	1946	명지대 교수	소설	
김선학	남	1944	동국대 교수	평론	
김성곤	남	1949	서울대 교수	평론	
박조열	남	1931	극작가	희곡	
이영호	남	1936	아동문학가	아동문학	
이상현	남	1940	아동문학가	아동문학	

○미술분야

성명	생년	성별	소속/직위	분야	비고
김복영	남	1942	홍익대 교수	평론	
강성원	여	1955	예술종합학교 강사	평론	
이철주	남	1941	중앙대 교수	한국화	
송수련	여	1945	중앙대 교수	한국화	
박서보	남	1931	홍익대 명예교수	서양화	
윤명로	남	1936	서울대 교수	서양화	
박석원	남	1941	홍익대 교수	조각	
심정수	남	1942	작가(조각가)	조각	
배진환	남	1952	예술종합학교 교수	공예	
한정식	남	1937	중앙대 교수	사진	
이흥철	남	1951	작가(서예가)	서예	
김한근	남	1936	건축가	건축	

○음악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나덕성	남	1941	중앙대교수	기악	
이방숙	여	1943	연세대학교수	기악	
정복주	여	1945	이화여대학교수	성악	
신경옥	남	1934	전 서울예고교장, 성악가	성악	
공석준	남	1938	연세대학교수	작곡	
강순미	여	1948	성신여대학교수	작곡	
임지선	여	1960	연세대학교수	작곡	
김춘미	여	1955	한국예술연구소장	평론	
홍승찬	남	1962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평론	

○연극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이근삼	남	1930	극작가	극작	
이태섭	남	1954	용인대학교수, 무대미술가	무대	
정상철	남	1948	국립극단장, 연기자	연기	
윤주상	남	1952	연기인	연기	
김성노	남	1958	연극연출가, 실험극장	연출	
권오일	남	1932	연극연출가, 극단성좌	연출	
서연호	남	1940	평론가, 고려대학교수	평론	
허순자	여	1954	평론가, 청운대학교수	평론	
김형기	남	1956	평론가, 순천향대학교수	평론	
김승현	남	1958	문화일보 기자	평론	

○무용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이득효	남	1948	계원예고 무용학과장	발레	
최성이	여	1952	수원대학교수	발레	
김경애	여	1956	댄스포럼 발행인	평론	
문애령	여	1959	무용평론가	평론	
배정혜	여	1945	국립무용단장	한국무용	
김현자	여	1947	예술종합학교교수	한국무용	
이애주	여	1947	서울대학교수	한국무용	
김복희	여	1948	한양대체육대학장	현대무용	
남정호	여	1953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현대무용	
안신희	여	1956	현대무용가	현대무용	

○ 전통예술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이성권	남	1936	서울대학교수	국악	
이해식	남	1943	영남대학교수	국악	
임미선	여	1960	전북대학교수	국악	
송혜진	여	1960	숙명여대학교수	국악	
강등학	남	1954	강릉대학교수	민속	
주강현	남	1955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민속	
전경옥	남	1959	고려대학교수	민속	
설성경	남	1944	연세대학교수	민속	
채상묵	남	1944	채상묵무용단장	전통무용	

○ 다원예술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한익평	남	1936	전 KBS예술국장	대중문화	
이정선	남	1950	동덕여대학교수, 대중가요작곡	대중문화	
정재활	남	1964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문화일반	
심철웅	남	1959	서울대 미대 교수	문화일반	
이승구	남	1945	중앙대영상예술학과교수	문화일반	
윤영선	남	1954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연극	
장광열	남	1958	무용평론가	무용	
김홍희	여	1948	큐레이터, 쌈지스페이스관장	미술	
원일	남	1967	전 국립무용단예술감독	음악	

○ 문화일반분야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김창진	남	1936	전 장애인복지체육회	종합	
손기상	남	1937	전 삼성문화재단 고문	종합	
이세기	여	1939	소설가, 자유기교가	종합	
최종민	남	1942	국악평론가, 국립창극 단장	종합	
강내희	남	1951	문화평론가, 중앙대학교수	평론	
정순모	남	1952	전 교사연극협회장	종합	
조경만	남	1953	목포대 문화인류학교수	종합	
김현주	여	1958	MBC 미디어비평 차장	종합	
최혜실	여	1962	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종합	

Ⅱ.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II.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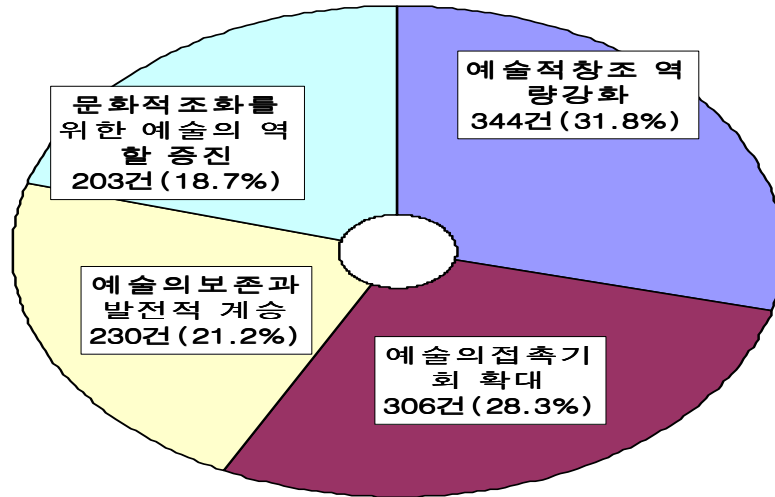
1. 지원목표(성과목표)별 종합평가

가. 지원목표(성과목표)와 해당 단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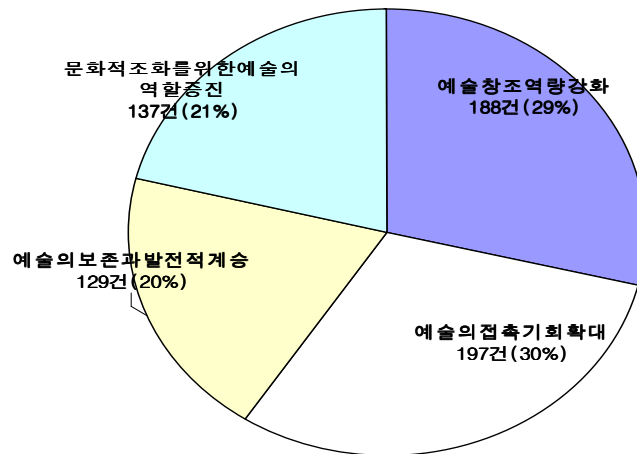
지원목표(성과목표)	단위사업명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 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예술작품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안적 예술 활동과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기반과 그 창조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함.	창의적 예술 지원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 모든 국민들에게 예술인과 문화단체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함.	관객개발 지원
	찾아가는 예술 지원
	참여하는 예술 지원
	예술자료·정보 보급 지원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정보화 시대 및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 조류와 점점 더 강화되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문화 확산 전략에 대항하여, 빛나는 우리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지키고 올바르게 보존 및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함.	예술 보존·조사 연구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 지원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 문화예술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통합 기능을 증진시키고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대 간·계층간·지역간·남북간 문화적 교류, 갈등 극복 및 조화와 함께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기 위함.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나. 지원목표(성과목표)별 평가 현황 및 결과(2002.12.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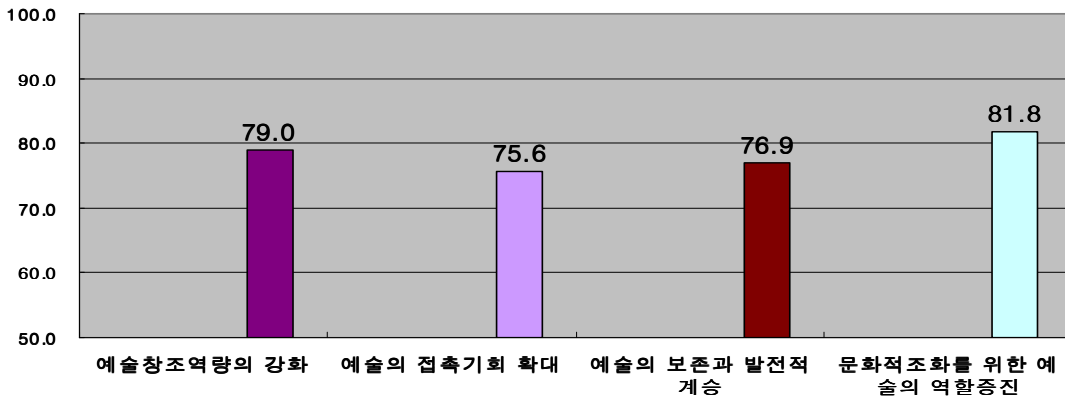
성과목표별 2002년도 지원대상 현황 (총 108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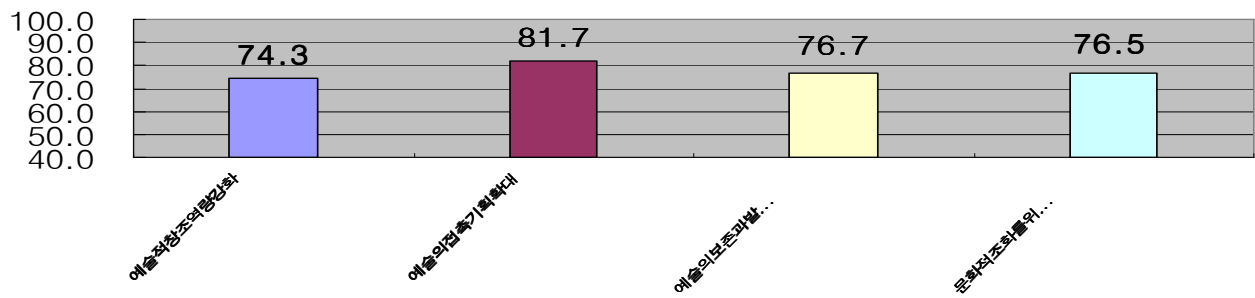
성과목표별 2002년도 평가현황 (총 65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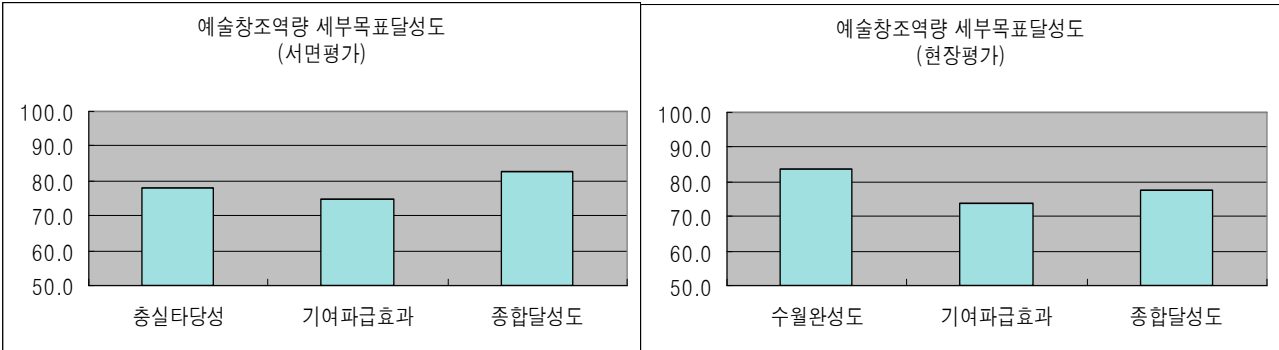
성과목표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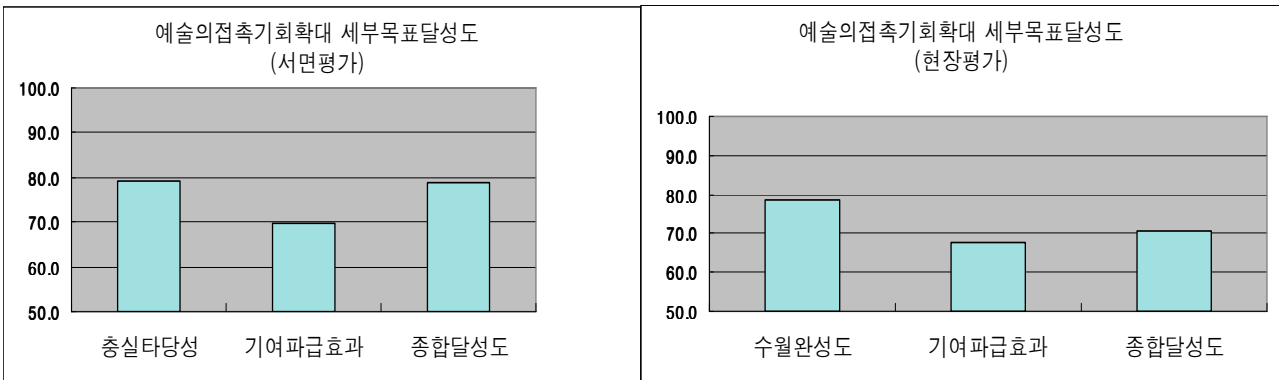
성과목표별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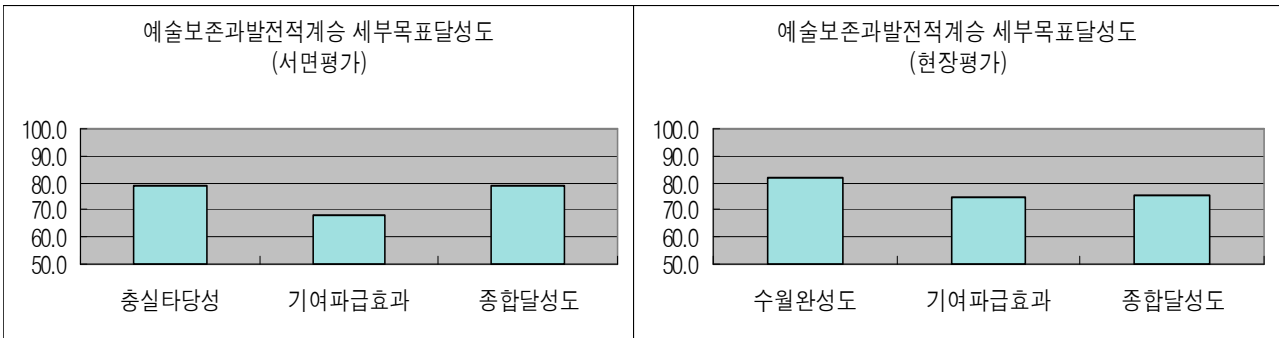
※ <예술창조역량강화> 평가방법별 세부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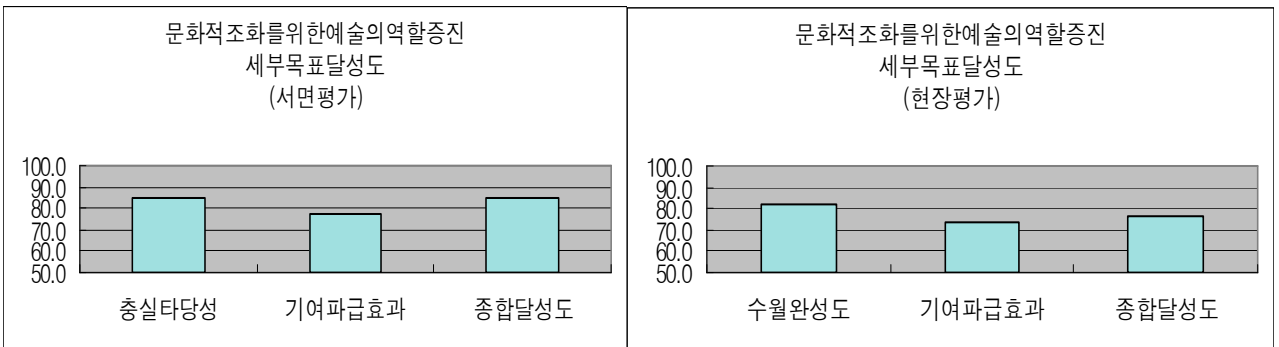
※ <예술의 접촉기회확대> 평가방법별 세부목표달성도



※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평가방법별 세부목표달성도



※ <문화적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증진> 평가방법별 세부목표달성도



다.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종합

문예진흥원은 2002년부터 자체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장르별 사업체제를 4대 성과목표와 14개 단위 사업(지원유형)별 사업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이에 부응하는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원대상단체가 사업 수행 후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서면평가와 지원대상사업 중 표본추출 한 현장평가대상사업을 평가위원과 직원이 직접 참관하여 평가한 현장평가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이들과 비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단위사업별 평가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종합심사평가위원회의 를 거쳐 4대 성과목표별 평가와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하의 글들은 종합심사평가위원 회의의 종합적인 의견과 자체평가의견을 모아 본 것이다.

1) 종합평가의견

‘지원사업체제와 평가체제가 체계적이며 세밀하게 고안되어 분석적이며 총괄적이다(박이문),’ ‘현장에서 보고 느낄 때 현재 수행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점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음을 함께 깨닫게 된다. 물론 사업 수행의 세부에서는 더욱 다듬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하나, 그 점 역시 문예진흥원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업 선정시 서류평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장평가를 나가보면, 참신한 기획이긴 하지만 신청서상의 계획이 다소 불충분했던 사업들은 실제 사업수행에서도 약간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기획이 참신하다고 하더라도 계획상의 내용이 미진하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라도 지원사업 선정의 객관적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장평가는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강웅식),’ ‘2002년은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일신한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를 계기로 발생한 사회적 활력소와 역동적 힘을 향후 어떻게 문예진흥에 연결할 것인가를 잘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년과 비교할만한 지표가 주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역시 비상업적 문화예술의 창작의욕 고취와 보급에 점차 힘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예진흥기금이 초과 조성되는 등 인프라 구축의 조건들 역시 희망적인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여러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이, 각 예술제도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온갖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과 구태에 구애됨이 없이, 전반적인 문화예술계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담당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요구를 피력하는 것으로 소견을 대신하고 싶다.(김현도),’ ‘본 사업에 대한 평가사업팀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과 정착단계에 돌입하였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 분야를 대표해 모인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는 지원사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본다. 더 큰 발전을 소망하며, 이제 본 사업은 지나치게 목적지향적(goal-oriented)인 프로그램을 과정중심(process-oriented)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원 카테고리나 항목의 개념에 대한 수정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지원의 형태로 전환이 바람직한 분야들에 대한 인식과 사업의 진행단계별 지원 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장치를 정책에서 구현해야 할 때가 되었다.(허순자),’ ‘새롭게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시행착오 등이 눈에 띄었던 반면에 신진예술가 지원이나 소극장 지원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더욱 더 생산성 높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선정과 이들의 면밀한 심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검증된 예술가나 단체, 사업에 대한 차등지원과 장기지원 체계 등 차별화 된 탄력적인 정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지원과 관련 <문화도시 문화복지> 발간은 <문화예술>지에 수록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고 경비절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국제 교류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상 지원심의 기구를 별도로 발족하고 지원 심의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장광열),’ ‘문예진흥기금은 전 분야에 걸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몇몇 단체가 함량 미달의 공연을 하긴 했으나, 대다수의 단체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기에,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번 ‘전통’의 경우, 외부위원들이 대체로 높은 수치로 평가해 주었다. 그것이 지원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윤중강),’ ‘4대 영역별로 균형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 결과도 모두 80점 전후의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기여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이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문예진흥 사업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 약점일 수 있다.(이대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심의초

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지원결정 후 서면평가, 국민모니터링평가, 현장평가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문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다는 진흥원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각 단위사업의 명칭이나 내용은 오래 축적된 노하우로 비롯된 것이겠지만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금사업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갖가지 제도나 각종 수치는 차선의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기계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항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박찬),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받는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연주 단체들은 지원금을 받았기에 어떤 차원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지원서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한다. 지원금을 받아 예년과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이지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주 장소의 규모나 홍보 방법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2002년의 경우 성실한 음악회들과 그렇지 못한 음악회들이 함께 병존했다. 그렇지만 현장 평가가 계속되고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평가가 공신력을 더해 간다면, 지원금을 주는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 자료가 될 수 있겠다.(이석렬)'

2)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목표1)

우선, 4대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은 만족스럽다고 평가되나, 이 목표 아래 4개 단위사업별 지원의 내실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된다. 특히 '창의적 예술지원'과 '창작공연활성화 지원'사업의 차별성이 흐려져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 졌으므로, 다시 한번 사업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지원신청작품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지원대상결정이 필요하다. '창의적 예술지원'의 경우는 '창의성'이, '창작공연활성화지원'의 경우 '완성도'가 중심이 되어 심의와 평가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새롭게 창작되는 공연 못지 않게 우수한 레파토리 공연이나 재 공연의 경우, 지원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는 2002년 중 레파토리 공연과 재 공연의 작품 수준이 높았다는 평가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창의적 예술지원'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카테고리로서 너무나도 다양한 공연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기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 장르를 아우르는 '다원적 예술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개념설정이 필요하고 심의과정에서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며, 사업의 결과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사업 홍보강화 등 신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의 영역과 규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도 지원결정 후 포기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술창작' 지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지원심의회시 보다 엄격한 심의기준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원신청건수가 증대하고 있는 '창작공연활성화지원'의 경우 사업 예산을 증대하여 일반 지원과 차별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다원적 예술지원'의 지원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현재 문화일반분야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평가위원제를 개선하여 독자적인 평가위원구성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신진예술가 지원'의 문학분야의 경우, '문학 발간'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접수하였던 바, 신청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2003년부터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창작활동에 대해 신청 가능토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들 사업의 성과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작품의 발견에서 비롯되며, 이는 다른 성과목표들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굳건한 기반조성 위에 함께 이루어 질 것이다.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이 문화예술계에 매우 주목할 만한 작품의 발견과 지원사업이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가 질문할 때 사업성과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편은 못되었으며, '예술적 창조역량의 강화'라는 목표는 어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 장르별 기득권을 고수하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달성되어 갈 수 있는 성과목표로 평가되었다.

3)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목표2)

국민모니터링 요원들의 국민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사업은 문화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목표임에 틀림없다. 또한 문화 복지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맞물려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핵심적 사업목표 중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는 비

영리 순수 예술의 문화예술 수용자 저변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지원이라는 ‘수용자 우선’의 패러다임을 수용한다.

이 성과목표의 사업인 경우 이미 알려진 장소가 아닌 점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홍보와 대중적인 호감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되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사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문화 예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분석이 보다 중요하게 채점되어야 할 것이며, 무책임한 기획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선 지원 후 지급제’ 제안이 있었다. 특히 문화예술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노력은 무척 중요하며 중, 고등학생들 및 일반인들의 예술접촉 기획의 확대로서 이러한 지원사업은 멀게만 느껴지는 공연예술을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도록 하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지원금 증대가 필요하며 단독 공연보다는 선정지역에 대한 지역적 전래 행사와 맞물린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동호인 모임이나 질 낮은 아마추어들의 공연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창작이 전제가 된 예술의 가치를 경험하는 수단으로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제 주최측에 따라 공연의 질과 내용에서 편차가 크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급예술의 대중교육 방법론, 각종 예술행사의 기획능력과 학예능력의 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문예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화시대로의 급변기에 비 상업적 예술장르의 콘텐츠 개발에 지원사업의 역량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화 소외세대와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때 전시든 공연이든 적극적으로 수용자를 위한 배려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예를 들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입장료를 면제하는 식의 초청 등으로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공간과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으로 비교적 활성화된 것은 반가운 성과이며, 관객 개발 지원과 관련 현행 사랑티켓 제도 외에 다양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는 교통편의 미비와 같이 수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집안행사로 그치기 쉬운 점이 고려되어 사업의 홍보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연재해 등 사업의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민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토록 했으며,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향후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이 필요하며, 참여수용자들의 물질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시 예산책정에 많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이 분야 지원유형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예술회관 등과 함께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찾아가는 예술지원’, ‘참여하는 예술지원’과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간의 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지원유형 구분 시 매우 곤란하였으며, 지원심의 대상 사업 및 지방 이관사업에 대한 기준이 단위사업 편제 개편 시(2002년도) 애매하게 변하여 지원신청서 접수 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종합적인 정리 및 조정이 필요한 점이 지적되었다. 초·중·고등학교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자체 예산의 적정액을 확보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액을 상향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야외공간을 활용한 사업 등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예술지원’사업과의 변별성이 뚜렷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 관련 지원신청사업을 본 유형으로 일원화한 것은 사업 분류상 앞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부분으로 판단된다. ‘예술자료정보보급지원’사업을 ‘예술의 접촉기회확대’ 사업의 지원유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연중 지속 사업임에 따라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및 중간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예술정보화 보급 등 관련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건수 증액도 필요하다.

4)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목표3)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이라는 성과목표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이 지나치게 ‘소액다건’주의식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문예진흥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다수의 단체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태도, 공연의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대중성 및 예술성, 관객에 대한 호응도 등에 있어 너무 타성적이고 안이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라는 지적도 있었고, 지원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이것의 원인을 이른바 ‘소액다건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화와 세계화의 역동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문화예술의 전통계승 문제는 부단한 재해석을 요한다. 예술사의 정당한 역사성 확보의 문제와 맞물려 이 목표는 각 예술형식에 있어서 사실상 매우 중요한 문화예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예술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야하며, 이 때 전통예술의 발표와 전승은 그야말로 현상(status quo)의 유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요하면서도 지원이 미흡한 이 분야의 가치를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장치들이 지원정책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엄격한 선별과 관리를 고민해야 하는 등 ‘전통’의 ‘현실과의 소통’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록과 보존은 물론 조사연구는 우리 문화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들 가운데 속하는데, 문학, 미술과 더불어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내용이나 성격의 저서보다 해당 장르에서 처음 시도되거나 필요한 책의 저술 작업의 경우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정보지 등의 발간 사업에 대한 지원은 유사한 성격의 경우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책자 발간 사업의 경우 내용, 권수, 시기 등이 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점이 많아 지원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술분야 발간사업의 경우 실질적 사업추진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진일정의 조정 및 추진과정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통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공연들이 관객 동원에 실패하여 예술창조자지원이라는 의미나 보존·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나 일반인의 전통예술에 대한 향수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전문 예술경영인의 확보와 날씨 및 수해관계로 사업 일정 및 장소의 변경이 빈발했던 점등이 사업수행과 평가의 어려움이었다.

5)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목표4)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이라는 성과목표에 해당하는 ‘함께 하는 문화복지지원’사업은 사업분류 상 ‘예술의 접촉기회확대’ 목표에 보다 근접한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적 조화의 목표’는 민족, 국가, 계층, 성차, 세대의 의식 등, 예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근대적 심급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하는 부문이고, 지난 해 우리 사회는 월드컵이라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동질적 에너지의 발산을 체험했으나, 예술분야의 각종 조화노력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파묻혀 버린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는 예술 분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지자체, 통일부 등 각 단위사업별 관련 단체(혹은 기관)과의 협조가 요구되며 사업 선정과 현장 평가 등에서 다양한 협조가 가능할 것인데, 특히 현장 평가의 경우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는 것이 여러 모로 유용하리라 본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은 같은 문화복지지원 항목이라도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난 예술성이 강조된 사안에 집중되었으면 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홍보해야 하며 공연 레퍼토리 선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배려 등과 더불어 작가의 발굴을 유도하는 기획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연단체와 문화복지 시설간의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사업의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문화활성화지원과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은 이 항목들 자체의 캐치프레이즈적인 암시가 자칫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며, 차별화 되고, 실천력 있는 지원대상들을 가려내기 위해선 이 항목들 자체의 세부 내용(contents)과 목표(goals)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구촌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이 저조한 것도 정책구현의 차원에서 반추의 여지가 있다. 양 방향의 교류 증진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술분야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베니스 비엔날레의 지원사업이 너무 큰 비중을 이루고 있다. 물론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다변화된 국제교류 비엔날레의 현황을 고려할 때, 너무 편중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카셀 도큐멘타, 마니페스타 등 작가들이 도전해야 할 보다 활성화된 국제전이 널려 있다. 일단 이러한 레벨의 국제교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예작가의 선발과 홍보 프로그램 등의 중장기적 계획을 가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예술형식의 정예작가 후원 및 양성이 ‘문화적 조화’의 목표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의 경우 지원 내용이 대부분 항공료 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데다 사업의 특성상 심의 시기를 앞당겨 지원신청 단체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공연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지적하였다.

‘문화예술 해외교류지원’사업의 평가 시 무엇보다 ‘기여도와 파급효과’ 항목이 중요하며, 지원 심의 시

전시개최의 의의와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요구된다. 2002년의 경우 여타 항목보다 전시 개념이 불분명했으며 외국작가 초대라는 일차적 목적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실제적인 문화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두 건의 전시를 힘있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 '문화예술 해외교류지원'사업은 전문성과 아울러 특별히 진취적인 기획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단발성의 전시보다는 피드백이 가능한 지속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 방향의 유도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몇몇 기존 단체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고,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만 치중되어 새로운 해외교류 사업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 사업이 국위선양과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국제예술제로서 격을 갖추었는지 내용은 어떠한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되고 있는지, 지원심의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물론 행사 주최측도 준비를 잘해야 하고 평가위원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이들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보면, '함께 하는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예술적 창조성이 요구되기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에 의미가 있으므로 준 전문적 단체라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성과가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평가와 함께 비교적 적은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되어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 및 지원 건수 향상 조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지원대상 사업 전체가 장애인들에게만 한정되고 있어서 극빈 노동자나 무의탁자, 철거지역민 등 기타 소외 계층을 위한 문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단체(개인)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재외동포 지원 사업과의 예산 분리를 통해 각 장르별 실제적인 남북간의 교류사업 지원 강화 검토 필요하며,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국제교류분야 일반공모사업이나 예산액은 문화예술계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증액이 절실하다.

라. 간접 지원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

1) 예술극장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우수 기획공연의 유치를 통한 순수 전문 공연장 및 저렴한 가격의 대관을 통한 간접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함께 정립하여, 무대 공연예술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관객의 저변 확대 도모를 운영의 목표로 함.

가) 예술극장 운영

(1) 2002년도 극장별 운영 실적

- 예술극장 대극장
 - 총운영일수 : 247일
 - 총공연횟수 : 255회
 - 총 관객수 : 92,567명
- 예술극장 소극장
 - 총운영일수 : 254일
 - 총공연횟수 : 333회
 - 총 관객수 : 33,392명

(2) 2002년도 극장별 대관 운영 실적

- 예술극장 대극장

- 대관일수 : 172일
- 대관건수 : 48 건
- 공연회수 : 152회
- 관람인원 : 59,038명(객석점유율 55.2%)
 - . 유료 : 37,348명
 - . 초대 : 21,690명
- 예술극장 소극장
 - 대관일수 : 226일
 - 대관건수 : 28건
 - 공연회수 : 284회
 - 관람인원 : 25,406명 (객석점유율 59.6%)
 - . 유료 : 12,414명
 - . 초대 : 12,992명

※ 참고 2002년 예술극장 대극장 대관공연 현황

월 / 일	단체명	공연작품명	분야	대관일수	공연횟수
1.21-22	주한일본대사관	유후민젠류디아코 북공연	음악	2	1
2.15-20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제8회 바놀레 국제서울안무대회	무용	6	3
2.21-24	한국현대춤협회	현대춤작가12인전	무용	4	3
2.26-27	김기인과스스로춤모임	김기인과스스로춤모임	무용	2	1
2/28	우리음악연구회	젊은국악인의 무대	국악	1	1
3.5-6	문예진흥원	사랑티켓 행사	행사	2	1
3.7-9	MCT	오늘의 춤 작가전	무용	3	2
3.12-14	현대무용단 탐	탐 정기공연	무용	3	2
3.15-16	조흥동 무용단	조흥동의 춤	무용	2	2
3.17-19	한국컨템포러리 무용단	무인도	무용	3	1
4.8-10	현대무용단 탐	제9회 레파토리 공연	무용	3	2
4/12	세종국악관현악단	새싹들의 울음소리VII	국악	1	1
4.13-14	한국발레협회	창작발레안무가전	무용	2	1
4.15-21	호한재단	호한재단 10주년 기념'NIGHT VISION'	무용	7	5
4.23-24	한국현대무용협회	국제현대무용제 개막식	행사	2	1
4.25-29	한국현대무용협회	국제현대무용제	무용	5	3
4.30-5.3	카코스	예술축제 전통 + 현대 2	복합	4	4
5.4-8	연희단거리패	시골선비 조남명	연극	5	4
5.9-12	극단 모아(캐나다 초청공연)	라이트 모티브	연극	4	4
5.13-18	극단 맥토	수릉	연극	6	9
5.19-21	서울공연예술제/한국무용협회	문화재 및 명작무 보유자 공연	무용	3	2
5.22-23	서울공연예술제/한국무용협회	현대발레갈라	무용	2	1
5.24-25	서울공연예술제/한국무용협회	무용경연-JAZZ산조, 지고가는 저 구름아	무용	2	2
5.26-27	서울공연예술제/한국무용협회	무용경연-산광대곡, 인텔리전치아	무용	2	2
5.28-29	서울공연예술제/한국무용협회	무용경연-붉은 영혼의 시, 나무 물고기	무용	2	2
5.30-31	서울공연예술제/한국무용협회	무용경연-귀거래, 아수라3	무용	2	2
6.1-2	서울공연예술제/한국무용협회	무용경연-잃어버린시간을찾아서,불꽃	무용	2	2
6.17-23	댄스포럼	평론가가 뽑은 제5회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무용	7	4
6.24-25	젊은 연극제	리시스트라테-동국대	연극	2	2
6.26-27	젊은 연극제	FROM-예술종합학교	연극	2	2
6.28-29	젊은 연극제	오브제햄릿-진주대	연극	2	2
6/30	젊은 연극제	작은연극공연	연극	1	1
7/3,4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세계음악과 만나는 우리 춤	무용	2	2
7.5-17	극단 성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연극	13	14
7.18-21	아시테지-극단 사다리	징검다리	연극	4	4
7.22-24	아시테지-중요무형문화재김유감	서울새남굿	전통	3	2
7.25-28	아시테지-중국	행복한 새	연극	4	4
11.1-3	윤미라무용단	물빛그늘	무용	3	3
11.4-11.13	극단 물리	광해유감	연극	10	11
11.14-11.16	김화례&발레노바	기억속의 퍼레이드	무용	3	2
11.17-11.30	극단 유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연극	14	20
12.1-12.3	김현자무용단	김현자의 생츄	무용	3	2
12.4-12.6	정혜진무용단	돌의 거울	무용	3	2
12.7-12.9	김복희무용단	달과 까마귀	무용	3	2
12.10-12.12	파사무용단	공명	무용	3	1
12.13-12.15	한국창작오페라단	사랑을 위한 협주곡	음악전통	3	4
12. 27	(사)한국국악협회	2002 국악작곡축제	음악전통	1	1
12.28-12.31	극단반도	투란도트	연극	4	3
계	48 단체			172	152

※ 참고 2002년 예술극장 소극장 대관공연 현황

월 / 일	단체명	공연작품명	분야	대관일수	공연횟수
1.4-20	극단 민중	씨니	연극	17	20
2.18-3.9	극단 오늘	갈매기	연극	20	24
3.10-20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신춘단막선	연극	11	16
3.21-29	한국연극연출가협회	2002해외단막극	연극	9	14
3.30-4.18	극단 살판	심심푸리	전통	20	25
4.19-20	김유경류 봉산탈춤 보존회	봉산탈춤	전통	2	3
4.21	깊은소리 명주실	깊은소리 명주실 I	무용	1	1
4.23-29	한국현대무용협회	2002국제 현대무용제	무용	7	5
4.30-5.3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임프로비제이션 댄스 페스티벌	무용	4	4
5.4-19	극단 인혁	에비대왕	연극	16	27
5.20-30	극단 자유	대머리여가수	연극	11	18
5.31-6.2	서울공연예술제	새로운 무용수를 찾아서	무용	3	2
6.4-23	컬티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연극	20	19
6.25-26	젊은 연극제	맥베스-세종대	연극	2	2
6.27-28	젊은 연극제	버스정류장-영산대	연극	2	2
6.29-30	젊은 연극제	몽연-호남대	연극	2	2
7.2-9	한국무용협회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무용	8	6
7.11-13	김영희 무트댄스	워크샵 퍼포먼스	무용	3	2
7.17	바리톤 남철우	아름다운 화음-기타와 노래	음악	1	1
7.20-22	아시테지-벨지움	타이-요	연극	3	4
7.23-25	아시테지-영국	아들	연극	3	4
7.26-28	아시테지-일본	토펬산	연극	3	4
11.1-11.17	놀이패 한두레	밥,꽃수레	연극	17	20
11.19-11.21	정옥조나는새현대무용단	제 4회 정기공연	무용	3	2
11.22-12.8	극단 완자무늬	의자는 잘못이 없다	연극	17	23
12.9-12.25	극단 세미	달은 달	연극	17	31
12.27-12.29	한국무용연구회	신인안무가전	무용	3	2
12. 30	우리맥소리연구원	우리맥소리 정기연주회	음악전통	1	1
계	28 단체			229	284

※ 참고 2002년 학전블루 소극장 대관공연 현황

월/일	단체명	공연작품명	분야	대관일수	공연회수
2/11-3/3	극단차이무	행복한 가족	연극	21	23
3/4-3/10	극단 자유	꽃,물..그리고	연극	7	6
3/13-3/31	오페라무대 신	휘가로디 걸은	음악	21	24
4/24-5/1	성시어터라인	피아노와플룻으로 만든 그림연극	연극	9	14
5/2	SISAYKOREA	WELCOME TO SISAY	음악	1	1
5/4-5/19	극단 현빈	행복한 집	연극	16	22
5/20-6/9	극단 천지인	그것은 목탁구명숙의 작은 아들...	연극	21	30
6/10-6/22	극단 풍경	하녀들	연극	13	9
6/23-6/30	젊은 연극제		연극	8	8
7/1-7/14	극단 고향	찬란한 슬픔	연극	14	15
7/20-7/28	아시테지		연극	9	12
7/29-8/11	극단 신화	고당만의 세상	연극	14	16
8/14-8/25	극단 화살표	틈입자	연극	12	19
8/26-9/8	극단 우인	꽃을 든 남자	연극	14	18
9/10-9/12	리울무용단	춤추는 모자이크	무용	3	2
9/13-9/30	서울공연예술가들의 모임	변방연극제	연극	18	19
10/1-10/8	황금겨자씨	줄인형콘서트	연극	8	16
11/14-11/25	여인극장	새벽, 그여자의춤	연극	15	21
11/30-12/11	극단 김금지	세자의피	연극	15	16
12/14-12/15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Next Wave Dance Festival	무용	4	2
12/17-12/30	극단 미학	까페블루문	연극	14	18
계	21단체			257	312

(3) 대관운영 수입

- 예술극장 대극장 : 143,883,000원
- 예술극장 소극장 : 35,553,000 원
- 연습실 및 부대시설 등 기타 수입 : 99,281,000 원

(4) 예산집행실적 : 1,833,670,409원 (1,940,320,000원)

나) 2002년도 예술극장 자체기획 및 기획대관 추진 실적

(1) 자체기획 및 기획대관 공연 건수 : 총 10건

(가) 자체 기획 공연 : 3 건

- 마당을 나온 암탉 (소극장, 2002. 1. 21 - 2.17)
- 시골선비 조남명 (대극장, 2002. 3. 20 - 4. 7)
- 찢뜨(金子) (대극장, 2002. 6. 3 - 6. 6)

(나) 기획 대관 공연 : 7 건

- 징검다리 (대극장, 2002. 1. 2 - 2. 3)
- 청춘예찬 (학전블루2002. 1. 9 - 2.10)
- 까부지마라 이느미야(대극장, 2002. 6. 7 - 6.16)
- 세자매 (학전블루, 2002. 10. 9 - 10. 30)
- 수업 (학전블루, 2002. 10.31 - 11. 10)
-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2002(2002. 12. 16 - 12. 22)
- 댄스뮤지컬 겨울이야기(대극장 2002.12.23 - 12. 26)

(2) 관람인원 : 50,276명 (총 객석점유율 : 52.9 %)

(가) 유료 관객 : 36,039 (객석점유율 : 37.9%)

(나) 초대 관객 : 14,237 (객석점유율 : 15.0%)

(3) 세입실적 : 161,644,103원

(4) 예산집행실적 : 40,260,102원(예산액 200,000,000원)

다) 예술극장 사회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명 : 예술극장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2) 추진실적

(가) 운영 기간

- 상반기 : 2002. 3. 30 - 6. 8(10주 프로그램)
- 하반기 : 2002. 9. 6 - 11. 16(10주 프로그램)

(나) 수강인원수 : 총 76명

(다) 세입실적 : 13,740,000원 (기부금수입 2백만원 별도)

(라) 예산집행실적 : 13,804,700원(예산액 20,000,000원)

라) 예술극장 전국무대기술인 현장 연수 추진 실적

(1) 신진 무대 기술인 현장 연수 추진

(가) 기간 : 2002. 2. 1 - 12. 31

(나) 인원 : 8명 (조명 2명, 음향 2명, 무대 2명, 공연기획 2명)

(2) 지역무대 기술인 연수

- (가) 기간 : 2002. 11. 4 - 12. 31
- (나) 인원 : 총 9명(조명 2명, 음향 4, 무대 3)

(3) 예산집행실적 : 55,500,600 원 (60,760,000 원)

마) 학전블루소극장 운영 추진 실적

(1) 사업 목적 및 개요 :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단체에 대관하여 공연예술계를 간접지원하고 예술성이 높고 실험적인 창작무대예술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대학로 소극장 연극공연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2) 2002년도 운영 실적 (기획공연 제외)
 - (가) 대관일수 : 257 일
 - (나) 대관건수 : 21 건
 - (다) 공연회수 : 312회
 - (라) 관람인원 : 28,045명 (객석점유율 59.6%)
 - 유료 : 13,214명
 - 초대 : 14,831명

- (3) 대관운영 수입 : 77,970,000원
 - (가) 임대수입 : 74,580,000 원
 - (나) 부대설비 : 3,390,000 원

※참고 2002년도 예술극장 운영자문위원 외부인사(8명)

해당 분야	운영자문위원	연령	현 직
연극 (3명)	박조열	73	○ 극작가
	서연호	62	○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최종원	53	○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무용 (2명)	이병옥	54	○ 용인대 교수
	전미숙	45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음악/전통 등(1명)	이성천	65	○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극장 경영/정보/시설 분야(2명)	정혜영	48	○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조병량	54	○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교수

바) 예술극장 운영 자체평가

□ 2002년에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은 우선 개관 이래 지난 20여년간 사용하였던 『문예회관』이라는 공연장 명칭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으로 변경하였다.

○ 무대예술 전문공연장이 없었던 1981년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공연장을 개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국 각지에 건설된 수많은 공연장이 문예회관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 『예술극장』의 차별적 이미지 향상 차원에서 명칭변경을 결정하였으며.

○ 지방 문예회관과 명칭상 혼동이 없도록 하고, 이땅의 공연예술계에 창조적 역량의 토대를 제공하고, 양질의 예술문화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에 기여하는 공연예술창조공간으로서 재탄생코자 극장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 변화하는 공연예술 환경에 부응코자 시설의 현대화 및 공연장비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였다.

○ 개관 이래 20여년 동안 사용하여 왔던 대극장 상부 그리드 및 구조물에 대해 전면 개수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장치 바톤을 2배로 증설하고, 무대장치 바톤 등이 전동 조정되는 시스템으로 설치되는 등 심각하게 우려되어온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그동안 다소 부족한 시설과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전면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준높은 공연예술작품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수있게 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키 위해 예술성이 높은 공연예술작품의 기획과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 공연장으로서 예술극장은 지난 20여년 간은 공연단체 및 예술가를 간접지원하는 단순 대관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공연상품을 소비하는 관객의 의견과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공연작품 제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 극장 자체 기획공연과 기획대관공연의 극장 사용비율을 20%까지 확대하여 보다 양질의 공연을 제공 전문 공연장 이미지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객개발에 주력하여 예술극장 고정관객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 대관 선정된 공연이 양질의 공연이 되고, 많은 관객들이 이들 공연을 향수 할 수 있도록 예술극장의 가능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관 단체와 공연에 대하여 공연 진행,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고, 단순 대관 업무에서 벗어나 양질의 공연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전년대비 유료 관객 좌석 점유율이 10% 포인트 이상 상회하였고 TV, 신문 등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관련기사 총 220여건) 우수한 관심작품이 다수 공연되었다.

□ 관객리포터제운명을 통해 공연예술을 소비하는 관객의 직접적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 공연장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공연장 운영자와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제도 신설

○ 보다 많은 일반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경쟁력 있는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술극장 시설 및 공연서비스 실소비자인 공연 관람객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예술극장 시설, 서비스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예술극장 문화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연장 이미지 향상 및 예술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충실히 수행코자 공연예술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 공연장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조기 접근의 과정적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신설 운영

○ 예술극장이 공공공연장으로서 최초로 기획한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문예진흥원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은 아동들의 모방과 유희적 본능을 활용, ‘창의적 연극놀이,’ ‘역할극을 통한 극화,’ 등 여러 방법론을 통해 창의적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이번 아동극교실은 연극놀이, 게임, 즉흥연기, 이야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 개발, 표현력 증대,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구사, 집중력 향상, 그리고 올바른 인격형성과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창의적 교육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운영결과 참가 수강생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 예술극장 기획공연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찢뜨>

- “찢뜨”는 보기 드문 연극공연이었다. 중국의 현대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늦은 연극, 늦게가는 연극, 시대에 뒤진 연극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연극 장르의 종류, 배우 연기의 속도 등으로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연극보다 훨씬 느리게 가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극은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과 연극을 반성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들을 소홀히 여기며 살고, 연극을 만들고 있는 지 다시금 묻게 한다. 이 점이야말로 이 작품이 지닌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은 삶과 가장 가까이 포개져 있는 예술이다. 한 작품을 만드는 노력과 정교함(여기서는 음악이 큰 노릇을 한다.)은 곧 삶을 진지하게 사는 것에 다름아니다. 조우의 희곡이나, 배우들의 연기는 이 원칙을 벗어나 있지 않다. 진솔한 연기, 삶을 대하는 연극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반면에 연극공연 소식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 연극전문가들을 비롯해 관객들이 많지 않았다. 우리가 서구 연극에 크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연극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이다.<안치운(연극)>

- “찢뜨” : 연극무대에서 보기 드문 중국 연극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다. 작품의 수준도 좋았으며, 고전의 현대화 작업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의 해법이 읽혔다. 우리 무대에 참고가 될 만한 우수공연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연기간이 짧아 보다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한 점이다.<정재왈(연극)>

○ <까부지마라 이느마야>

- “까부지마라 이느마야” : 월드컵을 겨냥해 마당놀이 형태의 연희를 무대 양식화한 시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에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관객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연희자들의 질박한 무대 매너가 토속적이어서 좋았다.<현경채(연극)>

2) 마로니에미술관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미술 창작 발표의 장을 제공(대관)하고, 우수 기획전을 적극 유치(기획전시), 하며, 지역의 우수한 신진작가 작품 초대전을 통하여 지역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함.

가) 2002년도 예산운영

○총괄

- 세입 : 467,073천원(예산), 345,421천원(실적, 74%)
- 세출 : 1,032,580천원(예산), 918,135천원(실적, 89%)
- 재정자립도 : 38%(당초 목표 45%, 2001년도 대비 20%p 상승)

○분석

- 세입부문중 임대수입은 83,524천원으로 당초 목표액 60,573천원 대비 138%의 실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음. 이는 2002년도중 소갤러리 및 세미나실 등 시설 리노베이션에 따른 대관료 수입 증가와 함께 제1·2전시장의 대관료 인상(10%)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세입부문에서 2002. 4월부터 개설된 성인·아동 대상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수입이 전체세입 345,421천원의 66%인 227,747천원으로 미술관 운영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았음.

- 세출부문의 경우 총 918,135천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1,032,580천원 대비 89%의 추진실적을 보였음. 이는 자체기획전 중 ‘국제교류전’(50,000천원)이 당초 교류대상 기관이었던 ‘중국 문련’ 측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유보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성인·아동 대상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비 절감 노력 등에 따른 것임.

- 기타 ‘지역작가초대전’ 등 3개 자체기획전과 기획공모전(5건) 등 전시사업과 한국미술소 개자료해외배포 사업 및 시설운영·작품관리 관련 제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었음.

나) 중점추진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추진사업 : 지역작가초대전 등 5개 사업
 - 자체기획전 : 지역작가초대전, 중진작가초대전, 대표작가초대전 등 3개 사업
 - * '지역작가초대전' 지역순회전(울산, 전주) 병행 추진
 - * '국제교류전' 사업 추진 유보
 - 기획공모전(5건) : '풍경으로부터의 사진, 사진으로부터의 풍경' 등 5건
- 추진실적
 - 전시기간 : 총 155일(자체기획전 85일, 기획공모전 70일)
 - * '지역작가초대전' 지역순회전 37일(울산 18일, 전주 19일) 별도
 - 관람객 : 60,385명(자체기획전 48,335명, 기획공모전 12,050명)
 - * '지역작가초대전' 지역순회전 20,912명(울산 11,478명, 전주 9,434명) 포함

○ 공공 전시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제고

- 추진사업 : 3개사업
 - 미술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화요일의 미술이야기 등 2개 사업
 - 한국미술소개자료해외배포 사업
- 추진실적
 - ①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아동 대상)
 - 운영기간 : 2002. 4. 1 - 12. 31
 - 운영방법 : 외부 전문 프로그램 기획자와 공동 운영(수익금 50% 배분)
 - 수강생 : 연인원 1,865명(월평균 207명)
 - 수강료 수입 : 219,219천원
 - 지출경비 : 112,816천원
 - 순수익금 : 53,201천원 {(수강료 수입-지출경비)/2}
 - ② 화요일의 미술이야기
 - 운영기간 : 2002. 4. 2 - 12. 17
 - 강좌추진 : 연간 3기, 37회 강좌 추진(우리 원 직접 기획)
 - 수강생 : 연인원 155명(기별 평균 52명)
 - 수강료 수입 : 8,528천원
 - 예산집행액 : 22,500천원
 - ③ 한국미술소개자료해외배포(CD-ROM 제작·배포)
 - 주제 : 인텍싱 - 2002 한국현대미술의 현장
 - 수록작가 : 강홍구 등 28명
 - 제작수량 : 1,000매
 - 배포처 : 국내외 우수 미술관, 화랑, 문화교류기관, 해외문화원 등 740개처
 - 예산집행액 : 13,354천원

○ 시설운영 및 작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 일반대관전 운영
 - 대상시설 : 제1·2전시장 및 소갤러리
 - 운영실적 : 대관 28건, 대관료 수입 82,724천원, 관람객 총 45,004명
- 시설 현대화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고
 - ① 신규 전시공간 확보 및 리노베이션 추진
 - 소갤러리, 사회교육시설, 세미나실, 패밀리 카페 등 신설·운영
 - ② 수장고 신설 및 소장작품 수장능력 제고
 - 규모 : 연면적 52m²(15평, 복층)
 - 시설내역 : 내부 특수자재 시공, 향온항습기, 작품수장대 및 회화랙 설치
- 소장작품 활용도 제고

① 소장작품 지역순회전 추진

- 일정 및 장소 : 2002. 4. 15 - 10. 20. 김천문예회관 등 8개처
- 대상작품 :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품 66점
- 관람인원 : 총 31,715명

② 소장작품 구입·매각 및 관리

- 구입 : 추진 실적 없음.(관련 예산 50,000천원은 수장고내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활용)
- 매각 : 1건, 33,000천원(서울예술대학)
- 관리현황 : 총 328점(구입 144점, 수증 184점)

※참고) 2002년도 마로니에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분야	성명	성별	생년(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평론	김복영	남	1942 (60)	홍익대 교수
	강성원	여	1955 (4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각	심정수	남	1942 (60)	작가
한국화	송수련	여	1945 (57)	중앙대 교수
서양화	홍명섭	남	1948 (54)	한성대 교수
공예	배진환	남	1952 (5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참고) 2002년도 마로니에미술관 대관심의위원

분야	성명	성별	생년(연령)	현직 및 주요경력
평론	강성원	여	1955 (4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고충환	남	1961 (41)	홍익대 강사, 미술평론가
조각	심정수	남	1942 (60)	작가
한국화	송수련	여	1945 (57)	중앙대 교수
양화	전수천	남	1947 (5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공예	배진환	남	1952 (5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진	김영수	남	1953 (49)	중앙대 교수

※참고) 2002년도 마로니에미술관 전시일정

- 42건 전시 102,006명 관람
 - 자체기획 : 40,985명 (총 6건 / 자체기획전 3건, 소갤러리 자체기획전 3건)
 - 기획공모 : 16,017명 (총 8건 / 마로니에미술관 5건, 인사미술공간 3건)
 - 일반대관 : 총 28건 45,004명

일 자	제 1 전시실	제 2 전시실	소 갤러리
1. 1 - 1. 7	전시장 정비기간		
1. 8 - 1.14	유세종전(조각/개인/1,239)	나를 위한 아리아(종합/개인/1,966)	
1.15 - 1.21			
1.22 - 1.28	기획공모전① 풍경으로부터의 사진, 사진으로부터의 풍경(사진/단체/3,725)		
1.29 - 2. 4	기획공모전② 생방송, 미술 방송국(종합/단체/2,408)		
2. 5 - 2.11			
2.12 - 2.18	제4회 미의식의 표상전(회화 및 서예/단체- 월간 미술문화/2,882)		
2.19 - 2.25			
2.26 - 3. 4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평면/설치/2,100)		
3. 5 - 3.11			
3.12 - 3.18	지역작가초대전 - 우리 안의 천국 (자체기획전/6,640)		
3.19 - 3.25			
3.26 - 4. 1	호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전시(종합/단체/1,565)		시가 있는 그림전 (자체기획/7,769)
4. 2 - 4. 8			
4. 9 - 4.15	구연전(한국화/단체/1,528)		박방영전(종합/개인/1,483)
4.16 - 4.24			
4.25 - 4.27	김기연 '성장의 공간'(설치/개인/998)		홍순환 개인전(양화/개인/1,271)
4.28 - 5. 6			
5. 7 - 5.13	김희수 개인전(양화,설치/개인/1,148)		한국섬유비엔날레(공예/단체/3,122)
5.14 - 5.20			
5.21 - 5.27	전통문화와 패미니즘의 만남 (한국화/단체/1,890)		성장경전(설치/개인/1,271)
5.28 - 6. 3			
6. 4 - 6.10	대한민국사진전람회(사진/단체/3,814)		소장작품특별전 (자체기획/3,213)
6.11 - 6.17			
6.18 - 6.24	전시장 정비기간		서도소리와철물이국전 (자료/개인/1,825)
6.25 - 7. 1			
7. 2 - 7. 8	전시장 정비기간		김구립의 작은회화전 (기획초대/2,580)
7. 9 - 7.15			
7.16 - 7.22	전시장 정비기간		이철수홍성담정비과전(관/단/1,267)
7.23 - 7.29			
7.30 - 8. 5	중진작가초대전 - 컨테이너 (자체기획전/13,680)		
8. 6 - 8.12			
8.13 - 8.19	제2회 이화섬유예술전(공예/단체/3,063)		
8.20 - 8.26			
8.27 - 9. 2	기획공모전③ 보자기의 월장(공예/단체/2,843)		
9. 3 - 9. 9			
9.10 - 9.16	좌절과희망의시대-신영성전 (설치/개인/1,376)		
9.17 - 9.23			
9.24 - 9.30	김호룡전(조각/개인/1,071)		시서전 (시서/개인/2,240)
10. 1 - 10. 7			
10. 8 - 10.14	한국대표작가초대전 - 김차섭의 오디세이(자체기획/7,103)		김병역 공예전 (공예/개인/847)
10.15 - 10.21			
10.22 - 10.28	매체로서의 조각 (조각/단체/1,237)		한국사진파리얼리즘 (사진/단체/3,427)
10.29 - 11. 4			
11. 5 - 11.11	유홍도전(공예/개인/1,730)		CAFE 전(설치/개인/540)
11.12 - 11.18			
11.19 - 11.25	기획공모전④주거공간과여성 (조각/개인/1,458)		
11.26 - 12. 2			
12. 3 - 12. 9	이진휴전(설치/개인/1,104)		
12.10 - 12.16			
12.17 - 12.23	기획공모전⑤ 수목화가도전기-Blackani(한국화/단체/1,616)		
12.24 - 12.31			

다) 마로니에미술관 운영 자체평가 내용

(1) 운영목표 및 2002년도 중점 추진과제

○ 운영목표

- 한국의 주류미술을 선도하는 비영리성 공공 전시관
- 대안성을 지닌 쿤스트 할레로서의 전시공간
- 미래지향적 복합미술지원센터 및 국제미술 교류 창구

- 2002년도 중점 추진과제
 -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공공 전시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 제고
 - 시설운영 및 작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중점 추진과제별 성과 평가

(가)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지역작가초대전 ‘우리 안의 천국전’ (2002.03.22-04.14) 등 6개 자체기획전 추진 (관람 인원 총 40,985명)
- ‘수목화가도전기전’ (2002.12.17-12.29) 등 5개 기획공모전 추진 (관람인원 12,050명)

(나) 공공 전시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기능 제고

- 미술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조기 안정 운영 달성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수강료수입 219,218천원, 연인원 1,865명 수강)
- 안정적 운영으로 미술관 세입 5배 증가
 - ‘성인미술강좌’ 총 3기 운영 (연인원 155명 수강, 총 37명 강사 참여)
- 한국미술소개자료 ‘2002 한국현대미술의 현장’ 제작배포 (28명 수록)

(다) 시설운영 및 작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 일반대관전 운영 (총 28건, 45,004명 관람, 대관료 수입 82,724,660원)
- 시설 현대화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고
 - 신규 전시공간(소갤러리) 확보 및 미술관 리노베이션 (패밀리카페, 세미나실, 어린이미술교육실 등) 추진 (6천4십만원)
 - 수장고(지하1층, 15평, 복층) 시설 정비로 소장작품 수장능력 제고 (1억3천6백만원)
 - 조명공사 등 전시장 시설장비 개보수 추진 (2억3천8백만원)
- 소장작품 활용도 제고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 지역순회전 (김천문화예술회관 등 8개처, 총관람인원 31,715명) 추진
 - 김영중 작 ‘모자상’ (84년 취득) 서울예술대학에 매각 (33,000,000원)

※ 마로니에 미술관 기획전시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컨테이너> 중견 작가전

이 기획전시의 장점은 주로 9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역량을 인정 받은 작가들을 적절히 선발하고 이들의 신작들을 효과적으로 공간 배치 했다는 점에 있다. 중견 작가들의 전시답게 전반적으로 목직판 뒤끝의 울림을 준다. 반면에 전시기법이나 기획의도의 참신성이 부족하다. 안정감을 주지만 안이한 기획의 시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작가들은 국제전의 참여 경험들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마치 비엔날레의 일부분처럼, 국내에서 국제미술제가 활성화 된 이후에 나타난 전시기획상의 테마나 디스플레이 기법을 응용하고 있다.<김현도(미술)>

○ <김차섭의 오딧세이>전

작업으로 살아남은 작가의 회고전을 구경하는 일은 자체로 감동을 준다. 사고나 정치 또는 제도적 권력 등이 아니라, 역경 끝에, 오직 끈질긴 작업을 통해 마침내 인정 받은 작가의 회고전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그나마 이 소박한 감동이 미술형식의 역사성을 담보하고 유지하는 저력을 이룰 것이다.

김차섭 전의 경우는 어쩌면 작가라는 근대적 산물이 근대자체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겨운 투쟁

인가를 보여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업작가라는 부랑아적인 미증유의 자유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례들을 열거한다. 그는 예술의 왕도는 없으며 예술이 결코 하나의 지름길을 통과하는 형식적인 의례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회고전의 미덕이 적어도 과거의 편력을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들지 않는 열린 가슴의 확인작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예술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계통발생을 되풀이하는 한 개체의 탄생과정을 예증하는 유전적 명제의 문화적 증명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작가가 <동북아>의 바른 방향으로 제시한 지도그림과 그 상부에 걸린 <약 8cm>의 직각삼각형-나무로 만든 그 직각부위의 불타버린 약 8cm가 공백이 된-의 정면에서 느낀 감동을 언급해 두고 싶다. 그것은 한 자유로운 모더니스트 아티스트가 반생을 걸고 자신의 예술적 표현력의 근원을 찾아 헤맨 후에 훈장처럼 획득한 기념비적 상징으로 보였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도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남향으로 전도된다. 어쩌면 단순한 이러한 지형적 전복의 관점은 그러나 결코 단순치 않은 그의 예술적 편력-거의 선사시대까지를 포괄하는 시공간적 여정을 함축하는-을 요약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서 서구근대이성의 상징으로 채택된 기하학적 도상은 <약 8cm>의 실질적 체험-심미적이라기보다는 숭고한 의 일종으로써 내부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술적 정체성의 오리진을 상징하고 그 경로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김차섭은 여지없이 철저한 모더니스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추상적인 모더니즘미술의 전형과는 색다른 예외적 차이로서 드러난다. 그것이 전시점에서 이전시의 의미가 새로워 보이는 이유이다. 물론 이 평가는 전시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무관할 수는 없을 테지만, 작가의 회고전에 대한 비평적 평가는 여기서 주제 밖의 문제다. 평가내역은 가급적 전시의 표현형식-특히 학예작업과 연관된 사항-과 문화적 파급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전시상의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보겠다.

우선 이러한 회고전이 한 작가의 과거의 편력을 박제화 하거나 상품화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기획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에는 상업화랑의 전시처럼 너무나 많은 액자와 진열장이 눈에 띈다. (가령, 미제 종이 컵을 눌러 서구문명의 일상생활을 풍자적이나 비평적으로 접근한 소품들-80년대 커피 컵 시리즈-의 경우, 그 성격상 그것을 고급액자로 포장전시하는 작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차라리 이것은 육질 그대로, 날것과 내장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합당한 성격의 작업들이다. 때로 학예작업은 작가의 전시의도를 거스르는 데서 성립되기도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전시를 통해 새롭게 재 제작된 나무 구조물들이나 수많은 액자들은 오히려 작업의 완성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마로니에 미술관의 증진작가 회고전 성격의 초대기획은 미술내적 의미뿐 아니라 상당한 문화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홍보가 미흡한 상태로 보인다. 김차섭 전의 경우도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부족은 굳이 기획측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는 일반 저널의 보도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작가는 특정 일간지 주관의 미술상-이중섭미술상-을 거의 동시에 수상한 것이 전반적인 저널의 홍보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도록- 전시작품의 한글표제가 명기되지 않은 점은 결함이지만-을 비롯한 이 전시의 홍보 자료들은 성의 있게 제작되었으므로 자료적 가치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이 기획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작가선정에 좀더 폭 넓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김현도(미술)>

라) 종합평가

추진과제	잘된 점	미진사항 및 문제점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1. 작가 발굴 전시기획의 특화성 강화 2. '지역작가초대전'의 지역순회전 추진 파급효과 제고 3. 전시기획 및 운영 능력 정비	1. 전시기획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전개 필요 2. 국제교류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3. 기획공모전 운영 추진체계 정비요구 4. 도슨트 운영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공공전시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기능 제고	1. 성인·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 2. 한국미술해외소개배포 CD-Rom 제작 배포의 기획력 강화	1. 미술사회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기획성 제고 필요 2. 어린이 미술교육프로그램의 수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체계 정비필요
시설운영 및 작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1. 수장고 시설 정비를 통한 작품 수장 능력 확충 및 안전 보존 기반 마련 2. 소장작품 특별전 및 지역순회전시 추진을 통한 소장작품 활용도 제고 3. 시설 리노베이션 실시로 신규 전시공간 확충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1. 변화하는 미술환경에 맞는 전시장비의 확충 필요 2. 소장작품의 구입판매 및 관리운영 체계 정비 필요 3. 자료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필요
총평	1. 재정자립도 향상의 전기마련 및 지속적 확충 방안 모색 필요 2. 미술관의 향후 운영방향설정 명확화 및 차별성 확보방안 모색 필요 3. 운영평가결과의 환류체계구축 및 평가대상범위의 확대 필요	

3) 예술자료관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가) 예술자료관 운영

(1) 사업 개요

-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서비스 제공
- 고전음악강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원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추진실적

(가) 예술자료관 운영 효율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예술자료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예술자료관 운영의 이념, 전략적 목표 등 재정립
 - 예술자료관 서비스 및 자료 평가
 - 해외사례연구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 장,단기 개선과제 설정 및 추진 계획 수립
- 예술자료관 회원서비스 개선 및 영상음악자료 대출 실시
 - 회원제도 개선: 년회원제도 폐지, 평생회원제도 도입, 자료대출/반납 장소 다양화
 - 영상음악자료 관외대출용 컬렉션 구성
- 개관일 : 291일 (가동율 98% 291/297)
(휴관 : 2002.8.19-24, 5일간, 문헌정보실 장서점검 및 미술관 보유 팜플렛 이관작업)
- 회원 가입 실적
 - 회원총수 : 481명
 - 회원신규가입자 : 412명
- 자료 이용 실적
 - 연간 이용자 : 23,797명 (1일 평균 : 81.8명)
(문헌정보실 10,356명, 영상음악실 13,441명)
 - 자료대출실적 : 20,052건 (관외대출 5,161건, 영상음악자료 관내대출 14,891건)

- 문헌정보실 장서점검 및 결과보고, 후속작업
- 연간 세입금 : 41,858천원
- 2002년도 재정자립도 : 7.96%
- 사업수입 내역 (41,858,327원)
 - 회원가입비 : 9,265,000원
 - 수 장 료 : 25,310,000원
 - . 고전음악강좌 : 24,640,000원
 - . 청소년음악강좌 : 670,000원
 - 자료 복사 요금 : 5,783,400원
 - 소모품 판매 : 738,000원
 - 복사임대 운영 수수료 : 488,330원
 - 기 타 : 273,597원

(나) 예술정보화 기반 확충

- 자료현황 : 195,126점 (별첨 예술자료관 소장자료 현황 참조)
- 신규 자료수집 : 15,036점 (구입 : 4,163점, 기증 : 9,354점, 제작 : 1,519점)
 - 도서자료 : 5,908권 (구입 : 1,866권, 기증 : 4,042권)
 - 비도서인쇄자료 : 5,038점 (기증)
 - 영상자료 : 1,494점 (구입 738점, 기증 246점, 제작 510점)
 - 음악자료 : 2,520점 (구입 1,483점, 기증 28점, 제작 1,009점)
 - 뉴미디어 : 76점(구입)
- 서지정보 D/B 신규입력 및 소급입력 : 14,741건

(다) 예산 집행 실적 : 525,260,226원 (예산액 539,000,000원, 97.45%)

(3) 지원시설 자체 운영 사업

(가) 고전음악강좌

- 일 정 : 2002.3.12 ~ 12.5 (반별 32회)
- 강의주제
 - 화요일 : 음악과 여러 장르의 만남 (32회)
 - 목요일 : 낭만주의 음악의 이해와 감상 (32회)
- 수강인원 : 112 명 (화요일 35명, 목요일 77명)
- 수 장 료 : 연간 220,000원 (사업수입 : 24,640,000원)
- 강 사 : 이영조(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등 13명

(나) 청소년하계음악강좌

- 일 정 : 2002.8.12 ~ 14 (3일간)
- 강의주제 :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음악 여행
- 강 사 : 길일섭 (국민대 음대 교수)
- 수강인원 : 67명 (년인원 195명)
- 수 장 료 : 10,000원 (사업수입 : 670,000원)

(4) 지원시설 운영목표 대비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가) 예술자료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예술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상반기 수립 예정이던 계획수립이 하반기까지 지연되었음.

(나) 재정자립도(7.96/목표8%), 가동율(98%/100%), 사업수지(167.8%/130%), 세입목표대비달성도(101.1%/100%), 세출예산대비집행율(97.54%/100%), 수익증대율(25.7%/12%), 대출증가율 (21.8%/10%), 자료증가(15,035/12,000), 자료자체제작(117/120), 기증자료(9,354/5,000), 디지털변환 자료량(1,519/700) 등 성과목표상의 수치에 근소하게 미달되거나 목표치를 초과하여 성과를 달성하였음.

(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술자료관 소장 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33.1%

의 참고문헌만을 제공하고 있어 연구 지원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료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확충을 통한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라) 서지D/B의 작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신규 입수자료의 이용제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예술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지원시설 자체 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가) 고전음악강좌

○ 당초 각반별 60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화요반(기초과정)의 경우에 목표인원에 미달한 35명에 불과하였으며, 목요반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초과한 77명이 수강하여 반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목요반의 경우에 보다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화요반의 경우에는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수강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교육기자재의 노후화에 따라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관련 기자재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임.

(나) 청소년하계음악강좌

○ 당초 각반 40명의 인원을 모집하려던 목표를 초과하여 67명의 수강생이 유료로 참가하였으며, 수강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음.

○ 유사프로그램의 급증으로 인하여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문화예술정보화 사업

(1) 사업개요

- 예술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 지식경영체제에 부응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지식정보 D/B구축 2차년도 사업 추진

(2) 2002년도 주요 추진실적

(가) 예술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 문화예술정보 종합사이트 ArtsOnLine 구축 운영 및 정보제공
 - 우리원 기관 사이트(www.kcaf.or.kr)와 문화예술정보 종합사이트(www.artsonline.co.kr)의 분리 특화운영
 -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지적정보를 전사적으로 관리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및 베니스비엔날레 서비스
 - 문예연감(2002) 및 2001년도 주요사업 결과물 서비스
 - 경영공시, 문화예술행정서비스현장 및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서비스
 - 문예회관, 동승홀, 미술회관 공연 및 전시 안내 등 서비스
 - 공지사항 및 문화예술 보도기사 서비스 등

(나) 지식경영체제에 부응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인터넷 지원신청 접수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지원신청 등록' 업무 개발
 - EA서버(인터넷지원 웹어플리케이션)를 활용한 인터넷 지원용 프로그램 개발
 - '국민모니터링/현장평가사이트'에서 평가위원들이 인터넷으로 평가접수 입력
 - 2003년도 수시접수 지원신청업무부터 적용
- 행정전산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신규프로그램 지속 개발
 - 세금계산서관리 프로그램 신규개발
 -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화에 따른 원내통합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수정·보완
 - 예산/회계시스템, 인사/급여시스템, 지원시스템, 자산 및 모금관리 시스템 등

(다) 국가지식정보 D/B구축 2차년도 사업 추진 완료

- 문화예술인(단체) 홈페이지 구축 (12개 단체)
- 한국동인지문학과 및 기초입문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 VOD 동영상 서비스 (430편)

(3) 문화예술정보화 사업 자체평가

○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예연감, 우리원 주요사업 결과물 등 각종 문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우리원 기관 홈페이지(www.kcaf.or.kr)와 문화예술정보 종합사이트(www.artsonline.co.kr)의 분리하여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문화예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간 원내 통합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지원사업, 예산/회계, 대관, 모금, 중/단기 연수프로그램 등 통합업무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왔으며, 2001년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기안, 전자결재 등의 활용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2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이 공공기금화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 국가지식정보 DB 구축 사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대국민 문예정보 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도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예술인(단체) 12개처, 한국동인지문학과, 문학·음악·무용분야 기초입문프로그램, VOD 동영상 430편에 대한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4)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내용

공연예술, 무대미술(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및 예술 현장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장·단기 교육 연수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문화예술연수원 시설을 관리 운영함.

가) 2002년도 예산운영

○총괄

- 세입 : 177,250,000원(예산), 128,850,000원(실적, 72.69%)
- 세출 : 776,240,000원(예산), 693,465,980원(실적, 89.33%)
- 재정자립도 : 18%(당초 목표 26.7)

○분석

- 세입부문중 임대수입은 17,550천원으로 당초 목표액 20,250천원 대비 87%의 실적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하였음. 이는 연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지역적 접근성'(경기 고양시 소재) 이 낮아 발생한 문제로서 향후 시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연수원 셔틀버스의 운행 회수를 증가하는 등 접근도를 높임으로써 세입 증대를 도모할 예정임

- 아울러 세입부문에서 사업수입인 문화예술 장·단기연수 프로그램 교육참가비 111,300천원은 목표대비 71%로서 달성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는 2001-2002년도에 걸친 증개축 공사 과정에서 연수원 합숙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여 강의실 및 컴퓨터실을 조성하고 합숙시설을 폐쇄함으로써 특히 지방 참가 연수생들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연수 실적이 저조하였음. 따라서 기존 합숙시설 중 철거하지 않은 5개실(창조관 5층)을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인 수용 가능 합숙시설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연수생 증대를 통한 세입 증대를 도모할 예정임

- 세출부문의 경우 총 693,466천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776,240천원 대비 89%의 추진실적을 보였음. 이는 장·단기 연수생 확보율 저조로 강사료가 미집행됨에 따른 것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단순 업무추진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 절감 등에 따른 것임

나) 중점추진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가) 무대예술 전문(장기)연수

- 목적 : 공연예술, 무대미술(기술) 분야의 예술 창조 능력 배양 및 우수 인력 양성
- 운영 프로그램 : 2개 프로그램
 - 공연예술워크숍 (연기자 현장 창조과정)
 - . 교육기간/인원 : 3개월 (연 2회) / 1차 13명, 2차 7명 등 총 20명
 - . 교육내용 : 실기 공연 및 이론
 - 무대예술아카데미 (무대예술 최고 전문가 양성과정)
 - . 교육기간/인원 : 1년 (연1회), 49명
 - . 교육내용 : 무대디자인, 무대의상,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실기 실습 및 이론

(나) 문화예술단기연수

- 목적 : 문화예술행정, 예술기획(경영), 무대기술분야의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전문 연수
- 운영 프로그램 및 참가인원 : 6개 프로그램 17개 과정, 462명
 - 문화행정연수 : 4개 과정, 78명
 - . 일반과정, 고위과정, 문예회관건립담당 연수과정, 북한문화예술 이해과정
 - 공연기획연수 : 2개 과정, 35명
 - . 공연기획과정, 예술경영과정
 - 축제기획연수 : 3개 과정, 150명
 - . 1차, 2차, 지역축제와 지역활성화전략국제워크숍
 - 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연수 : 3개 과정 79명
 - . 1차, 2차, 한국동인지문학과관운영자연수
 - 무대예술전문인수 : 4개 과정, 108명
 - . 입문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 1차, 2차
 - 무대예술전문우수자 해외연수 : 12명

(2) 경영합리화를 통한 회관 운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 향상

(가) 음향녹음실 대관 극대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 대관실적 : 98건, 117타임 (1타임=1시간 30분 기준)
- 분야별 대관내역 : 연극(6건), 뮤지컬(12건), 아동극(8건), 무용(1건), 퍼포먼스(3건), 공연물(1건), 만화(4건), 합창(1건), 국악(8건), 대중음악(29건), 인디음악(25건) 등
- 재정자립도 향상 : 2001년도 대비 510만원 세입 증대
 - 2001 : 12,450,000원 (세입목표 14,440,000원)
 - 2002 : 17,550,000원 (세입목표 20,250,000원)
- 음향녹음실 사업 다변화
 - 음향채집
 - . 기간 : 2002. 8. 19 - 8. 21 (3일간)
 - . 장소 : 강원도 원주, 영월, 태백, 강릉 등
 - . 내용 : 파도, 자연음, 새소리, 물소리 등 35종 음향 채집
 - 자료관 소장 릴테이프 디지털(CD) 전환
 - . 전환기간 : 2002. 10월 -12월 (3개월간)
 - . 전환내용 : 명인의 명창와 각종 음악회 실황 등 귀중 음악자료 릴테이프 1,154개를 디지털(CD)로 변환하여 영구 보존 처리

(나) 시설현대화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

- 문화예술연수회관 증.개축
 - 내용
 - . 보관동은 철거 후, 교육공연장(1,598.85㎡) 신축
 - . 제작·작화동(1,480.25㎡) 내부 일부를 2층으로 복층화

- 소요예산 : 3,837백만원
- 준공식 : 2002. 4. 17
- 합숙시설 개보수
 - 규모 : 5개실 (4인 기준 20인 수용)
 - 시설내역 : 2층 침대 비치, 샤워실, 휴게실 조성
 - 소요예산 : 5천9백만원

(3)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자체평가

-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한 문화부문 경쟁력 강화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였다.
- 문화예술 인적 자원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전문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있어 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 포함)의 협조, 문예진흥원(문화예술연수원)의 기획·집행,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 다단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 연수과정별 교육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수 전문강사자료를 D/B화를 추진하고, 문화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연수시설 증개축공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연수시설내 합숙시설 부재와 지리적 문제, 문화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참가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인원의 적정 확보가 매우 힘들었다.
- 향후 문화환경 변화 및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장·단기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아울러 합숙시설 확충, 컴퓨터 등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시설을 현대화하여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연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년도별 문화예술 연수 실적 (1987-2002) (단위 : 명, 2002. 12. 31현재)

연 수 명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문화행정 연수	실시횟수	-	-	4	5	3	3	2	2	2	2	3	4	3	3	5	4	45
	수료인원	-	-	119	175	100	63	70	58	73	76	112	99	71	110	125	78	1,329
2.지역문화종사자 연수	실시횟수	3	3	3	3	3	3	3	3	3	3	3	-	-	-	-	-	33
	수료인원	247	327	283	219	231	142	116	116	86	109	107	-	-	-	-	-	1,983
3.문화학교관계자 연수	실시횟수	-	-	-	-	-	-	-	-	-	-	-	1	1	-	-	-	2
	수료인원	-	-	-	-	-	-	-	-	-	-	-	28	34	-	-	-	62
4.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연수	실시횟수	-	-	-	-	-	-	-	-	-	-	-	1	1	-	-	-	2
	수료인원	-	-	-	-	-	-	-	-	-	-	-	48	17	-	-	-	65
5.청소년지도자 연수 (문화축매요원연수)	실시횟수	1	1	2	2	2	2	2	2	2	2	2	1	1	-	-	-	22
	수료인원	114	107	199	208	173	151	125	133	109	74	57	39	24	-	-	-	1,513
6.문화예술지원 워크숍	실시횟수	-	-	-	-	-	-	-	-	-	-	-	-	-	1	-	-	1
	수료인원	-	-	-	-	-	-	-	-	-	-	-	-	-	24	-	-	24
7.축제기획 연수	실시횟수	-	-	-	-	-	-	-	-	-	-	-	-	-	1	1	3	5
	수료인원	-	-	-	-	-	-	-	-	-	-	-	-	-	26	39	150	215
8.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 연수	실시횟수	-	-	-	-	-	-	-	-	-	-	-	-	-	2	2	3	7
	수료인원	-	-	-	-	-	-	-	-	-	-	-	-	-	87	56	79	222
9.공연기획 연수	실시횟수	-	-	-	-	-	-	-	-	-	-	-	1	1	1	1	2	6
	수료인원	-	-	-	-	-	-	-	-	-	-	-	30	26	36	34	35	161
10.무대예술전문인 연수	실시횟수	1	1	1	1	1	1	1	1	1	1	2	2	2	4	4	4	28
	수료인원	103	105	130	109	91	52	50	43	38	42	83	102	90	199	137	108	1,472
11.문화자원봉사자 연수	실시횟수	-	-	-	-	-	-	-	-	-	-	-	1	1	2	-	-	4
	수료인원	-	-	-	-	-	-	-	-	-	-	-	31	31	35	-	-	97
12.무대예술전문연수 우수자 해외연수	실시횟수	-	-	-	-	-	-	-	-	-	-	1	1	1	1	1	1	6
	수료인원	-	-	-	-	-	-	-	-	-	-	10	15	14	13	15	12	79
13.공연예술아카데미	기 수	-	-	1	2	3	4	5	6	7	8	8	9	9		유보	20	10
	졸업생수	-	-	33	42	48	47	42	42	33	45	45	33	33				385
14.무대예술아카데미	기 수	-	-	-	-	-	1	2	2	3	4	5	5			유보	6	6
	졸업생수	-	-	-	-	-	15	33	29	29	29	25	25				49	180
계	실시횟수	5	5	11	12	10	10	10	10	8	10	11	12	11	15	14	17	169
	수료인원	464	539	764	753	643	455	418	425	306	363	369	466	306	588	406	531	7,796

※ 참고) 2002년도 문화예술 연수 실적

○ 장기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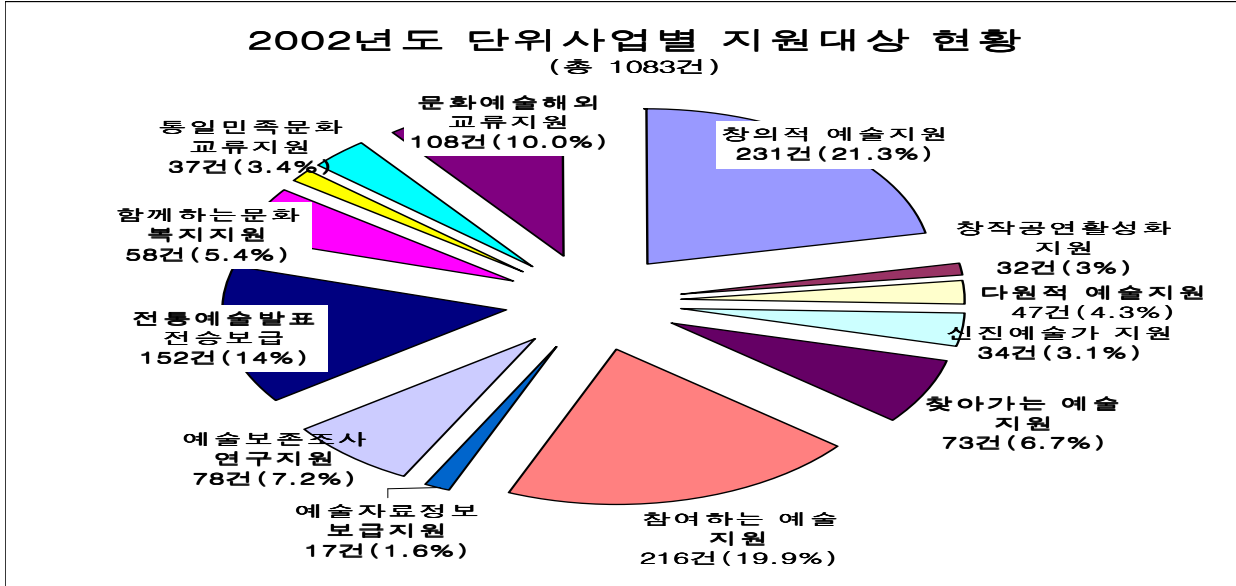
연수명	교육 분야	교육기간 (횟수)	교육기간	교육정원	수강인원	교과 내용	수 강 자 격	선발절차	1인당 수강료
공연예술 워크숍 (연기자 현장창조과정)	연기	3개월 (연2회)	과정당 12주	연60명 (과정당 30명)	○ 1차 : 13명 (5-7월) ○ 2차 : 7명 (10-12월)	실기 및 공연이론	2년제 이상 대학 전공 졸업자 및 기성 연기자	서류심사 시험 (오디션) 면접	과정당 30만원
무대예술 아카데미 (무대미술 최고전문가 양성과정)	○무대디자인 ○무대의상 ○무대조명 ○무대음향	1년 (연1회)	학기당 16주, 총32주	총70명 .디자인(25명) .의상(15명) .조명(15명) .음향(15명)	총 49명 .디자인(23명) .의상(14명) .조명(7명) .음향(5명)	실습 및 이론	2년제 이상 대학 전공 졸업자 및 유경력자	서류심사 시험 (포트폴리오) 면접	학기당 80만원

○ 단기연수

사업명	과정명	일정	장소	연수대상	목표인원	참가인원	목표비확보율	비고
문화행정연수 (년4회)	고위과정 (1회)	11.14(목)-11.15(금) (1박2일합숙)	서울/올림픽파크텔	중앙 및 지역의 문화행정요원 중 고위층(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국장·과장급, 기초지자체 단체장급 대상)	30명	20명	66.6%	
	일반과정 (1차)	5.06(월)-10(금) (5일간)	문화예술연수원	중앙 및 지역의 문화행정요원	대회 30명	27명	90%	
	문예회관 건립담당 공무원 연수과정(2차)	9.09(월)-13(금) (5일간)	"			16명	53.3%	
	북한문화예술의 이해과정(3차)	11.4(월)-11.8(금) (5일간)	"			15명	50%	
공연기획연수 (년2회)	공연기획과정 (1차)	4.08(월)-12(금) (5일간)	"	중앙 및 지역의 문화시설, 행정기관 공연기획요원 또는 경영(운영)자	대회 30명	22명	73.3%	
	예술경영과정 (2차)	10.21(월)-25(금) (5일간)	"			13명	43.3%	
축제기획연수 (년2회)	1차	3.25(월)-29(금) (5일간)	"	중앙 및 지역의 행정기관, 문화시설 축제기획요원 또는 축제업무 종사자	대회 30명	20명	66.6%	
	2차	5.20(월)-24(금) (5일간)	"			20명	66.6%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연수 (년2회)	1차	4.22(월)-26(금) (5일간)	"	중앙 및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예술교육 기획요원 또는 교육 업무 종사자	대회 30명	7명	23.3%	
	2차	10.14(월)-18(금) (5일간)	"			18명	63%	
무대예술 전문인연수 (년4회)	입문과정 (1회)	7.01(월)-12(금) (10일간)	"	전국 문화시설, 공연장 무대 스텝요원 중 경력 1년 미만의 초보자	대회 45명 무대-15명 조명-15명 음향-15명	29명	64.4%	무대-5명(33%) 조명-12명(80%) 음향-12(80%)
	기본과정 (1회)	8.19(월)-30(금) (10일간)	"	전국 문화시설, 공연장 무대 스텝요원 중 경력 3년 미만 무대공연 참여 유경력자		18명	40%	무대-3명(20%) 조명-10명(66.6%) 음향-5명(33.3%)
	전문과정(1차)	6.17(월)-21(금) (5일간)	"	전국 문화시설, 공연장 무대 스텝요원 중 경력 3년 이상 무대공연 참여 유경력자		28명	62.2%	무대-6명(40%) 조명-15명(100%) 음향-7명(46.6%)
	전문과정(2차)	11.18(월)-22(금) (5일간)	"			33명	73.3%	무대- 조명- 음향-
무대예술 전문연수 우수자 해외연수 (년1회)	8.4(일)-8.12(월) (8박9일)	러시아	무대기술인 및 공연기획, 축제기획 연수 수료자중 성적우수자 선발	12명	12명	100%		
한국동인지문학관회원연수 (년 1회)	10.26(토)-10.27(일)	동양인재개발원	인터넷 웹사이트 '한국동인지문학관' 운영 회원단체	50명	54명	108%		
지역축제와 지역활성화 전략 워크숍	12.10(화)	프레스센터	중앙 및 지방공무원 축제 및 이벤트 기획자, 전공자	100명	110명	110%		
합 계			8개 프로그램 17개과정		632명	462명	73.1%	

2. 단위사업별 종합평가

가. 단위사업별 지원대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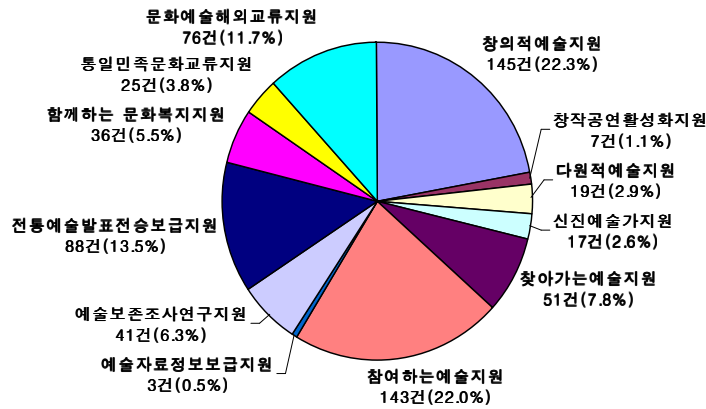
나. 단위사업별 평가 결과

1) 단위사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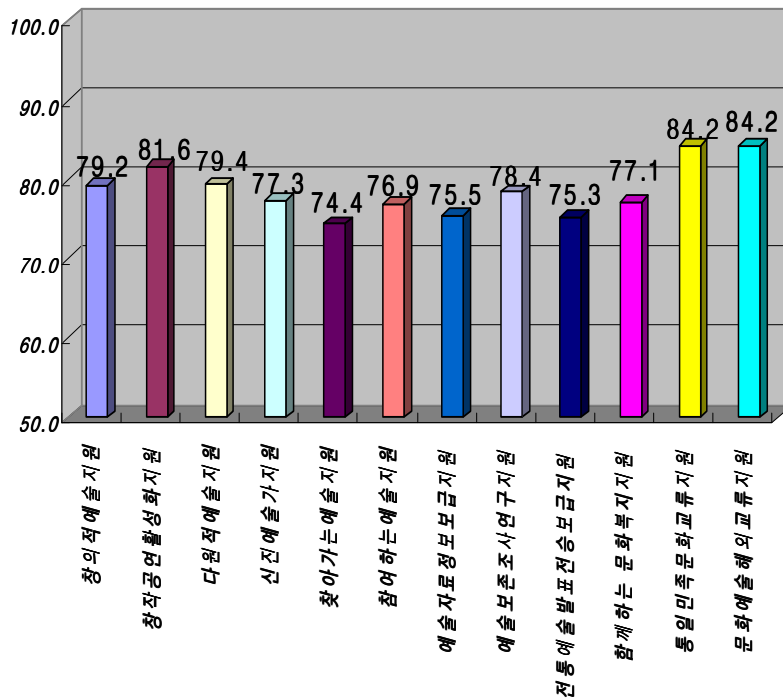
단위사업명	지원목표(성과목표)
가) 창의적 예술 지원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
나)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다) 다원적 예술 지원	
라) 신진 예술가 지원	
마) 관객개발 지원	예술의 접촉 기회 확대
바) 찾아가는 예술 지원	
사) 참여하는 예술 지원	
아) 예술자료·정보 보급 지원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자) 예술 보존·조사 연구 지원	
차)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 지원	
카)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
타)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파)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하)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2) 단위사업별 서면/현장 평가 결과 종합(2002.12.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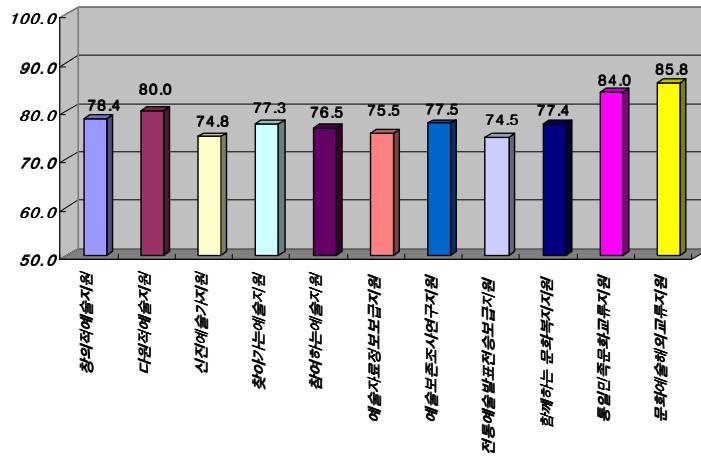
단위사업(지원유형)별 평가현황
(총 651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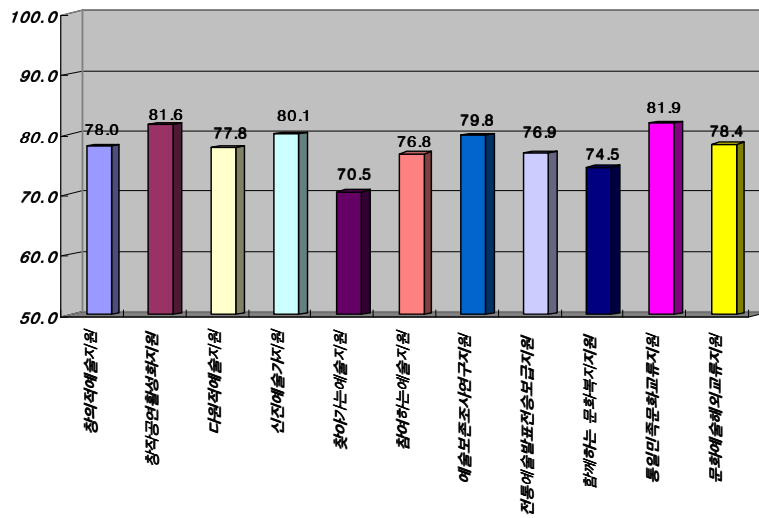
지원유형별 종합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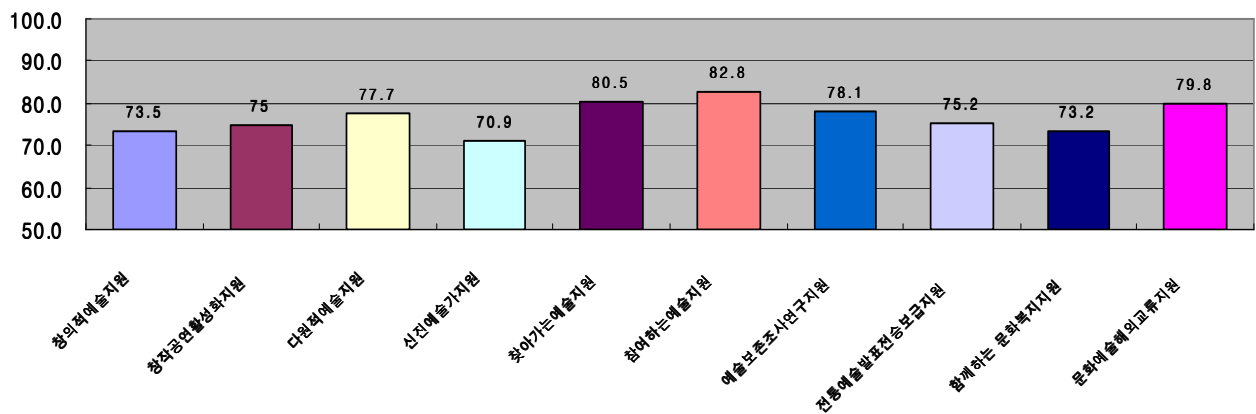
단위사업(지원유형)별 서면평가 결과종합
(2002.12.30기준 588건)



단위사업(지원유형)별 현장평가 결과종합
(2002.12.30기준 202건)



단위사업(지원유형)별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종합
(100점 환산점수)



※ 서면평가결과 세부 목표달성도

(만점: 100%)

단위사업(지원유형)명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해당분야발전예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달성도
창의적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80.4%	75.0%	83.3%
	평가건수	129건		
다원적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80.7%	75.0%	85.3%
	평가건수	17건		
신진 예술가 지원	평균백분율	73.1%	74.1%	79.7%
	평가건수	14건		
찾아가는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79.1%	70.9%	80.6%
	평가건수	46건		
참여하는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78.4%	70.1%	80.9%
	평가건수	130건		
예술자료정보보급지원	평균백분율	80.0%	68.1%	75.0%
	평가건수	3건		
예술 보존·조사연구 지원	평균백분율	79.8%	70.3%	82.1%
	평가건수	40건		
전통예술발표·전승보급 지원	평균백분율	78.6%	66.1%	76.3%
	평가건수	79건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평균백분율	80.0%	72.2%	81.2%
	평가건수	33건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평균백분율	86.3%	78.2%	86.6%
	평가건수	23건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평균백분율	87.1%	82.8%	87.1%
	평가건수	74건		

※ 현장평가결과 세부 목표달성도

(만점: 100%)

단위사업(지원유형)명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수월성과 완성도	해당분야발전예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달성도
창의적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82.9%	71.0%	76.4%
	평가건수	45건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평균백분율	84.4%	78.5%	78.9%
	평가건수	7건		
다원적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81.9%	72.9%	75.5%
	평가건수	6건		
신진 예술가 지원	평균백분율	84.6%	72.6%	80.0%
	평가건수	7건		
찾아가는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76.0%	64.8%	65.0%
	평가건수	20건		
참여하는 예술 지원	평균백분율	80.9%	70.5%	76.0%
	평가건수	46건		
예술 보존·조사연구 지원	평균백분율	82.9%	77.1%	76.0%
	평가건수	6건		
전통예술발표·전승보급 지원	평균백분율	80.5%	71.9%	75.2%
	평가건수	29건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평균백분율	78.5%	70.2%	71.0%
	평가건수	13건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평균백분율	85.0%	77.1%	81.3%
	평가건수	4건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평균백분율	81.8%	73.4%	77.6%
	평가건수	19건		

3) 단위사업별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

가) 창의적 예술지원 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창의적 예술활동지원 사업
---------------------	------------------------

(1) 사업개요 및 주요실적

(가) 사업개요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 전시, 공연예술의 다양한 창작·발표 활동과 독창적이고 탁월한 기획행사 및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나)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참고) 연극분야 지원사업 중 극단민예 ‘하얀 자화상’은 공연장소가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이 조정됨 (12,000,000 → 10,000,000원)

(2) 2002년도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평가

(가)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문학부문 자체평가

○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학단체의 기관지 및 사화집 발간 지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인들의 문학작품 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고 독자와 작가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특히 민족문학작가회의의 계간지 「내일을 여는 작가」는 문단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기관지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문예지로서 정착해 가고 있는 등 지원대상 기관지들도 각 분야의 발표지면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주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한국문학의 질적 성장과 함께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 지원금의 대부분이 게재된 작품의 원고료로 지급됨으로써 문인들에 대한 간접 지원의 효과를 가지는 바, 원고료 상승에 맞추어 지원금도 증액하여 지원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 개인 작품집 발간의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출판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출판사에서 10여종의 지원대상 작품집이 발간되었다. 또 심재휘 씨의 작품집 「적당히 쓸쓸하게 바람부는」은 제2회 현대시 동인상을 수상하였고, 임동윤 씨의 작품집 「나무 아래서」는 수주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여타 문예지의 소개나 서평을 얻은 작품집도 다수이어서 개인 창작활동 지원에 있어서 개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함께 질적으로도 진일보된 성과를 얻었다.

○ 원고 미수습, 출판계약의 지연 등 지원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가 10건에 이르는 바, 향후 지원사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나)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미술부문 자체 평가

○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전시의 기획력 부재에 대한 반성과 창의적 전시의 토양을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작가들에게 실험적인 작품제작을 통한 작업영역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공모전이나 개인전이 아닌 기획전시 작품의 기회 및 창작신작에 대한 기대치 설정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 기금지원의 중점방향이 창작활동 지원에 있는 만큼 사업 기획력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 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

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적절하고 심도 있는 평가관리를 위하여 인력보충이 절실하다.

○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진작가들의 다양한 발언을 독특한 공간실험을 통해 담아냄으로써 이후 미술계의 원활한 소통의 발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미술공간사업의 경우, 특정한 주제나 내용을 통한 전시라기보다는 젊은 예술가들의 존재조건과 상황을 들추어냄으로써 기존 미술계와의 발전적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미술계에 일정한 비판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마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안미술공간의 경우 연중 지속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수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미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창의적 미술지원사업의 전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이고 폭넓은 전방위적 지원이며, 이와 더불어 현대미술의 창의성을 형성하는 척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또 전반적으로 2002년도에도 이 항목에 해당되는 미술영역에서 다양한 매체-회화, 조소, 사진, 도예, 신매체, 설치-의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그 성과는 다소 기대에 미흡해 보인다. 사전 서면심사에 보다 면밀한 기준의 설정과 사후 검증방법이 요청된다<김현도(미술)>.

○ 창의적 예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면을 가진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면 젊은 작가 층의 실험적인 성향의 작품이 주목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설치나 매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인식되는 실수가 없는지를 눈여겨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쏟아지는 많은 설치, 매체위주의 전시들 중 일부는 시각적으로만 자극하며 현란할 뿐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스타일이나 필요 요소를 직접적으로 답습한 듯한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일만한 형식적이고 재료적인 요소만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듯한 전시를 보게 되며, 이는 내용적 면에서는 진부한 형태로 오히려 창의력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는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결과적으로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결여된 유행에 빠진 전시들을 양산하게 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전시 선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유현미(미술)>

○ 창의성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계량적 평가로 판단하기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창의성의 기여효과에 따른 과급효과와 질적인 측면 평가가 그렇다. 몇몇 전시사업은 지원액에 비해 규모나 참여작가들의 숫자가 미미했으며, 또한 주제 개념의 불명확함과 출품작들의 해석 부재들이 문제다.<전승보(미술)>

(다)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연극, 무용, 음악분야 단체(예술인)의 창작 및 재 공연, 번안·번역공연 등 다양한 공연예술 창작 활동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술창작 활성화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시의 사업규모(총소요액)에 비해 실 집행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지원금 수혜 정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 및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향후 창작부문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집중 지원 효과를 배가시키되,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연도 중반 포기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도중반 지원사업 포기단체에 대한 불이익 제재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결정액 통보 시 지원단체의 사업 추진 여부를 문의하여 이를 사업 추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창의적 예술활동지원사업 공연예술 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전반적으로 지원대상 단체들이 무난한 공연들이 펼쳐졌고 어느 정도의 성의도 엿보인(지원)분야였다. 창의적 예술은 새로운 작품이나 공연형태를 시도하는 분야이므로 '창의적'이란 차원으로 귀결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청중 수용 차원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스타일들을 수용하고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노력이 부족했다.<이석렬(음악)>

○ 진흥원에서 가장 주력하여 지원하는 단위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지원 받아야 할 부분이며, 다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체나 개인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김은양(음악)>

○ (지원방식의) 소액 다건주의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절차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1년에 최소 2-3건씩 기념비적인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승현(음악)>

○ 대학 동문 무용단의 정기 발표 등은 연례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대개 신인들의 창작 기회 제공에 머물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작품의 질적인 수준도 떨어지게 마련, 반면에 경륜 있는 독립 안무가들의 경우는 실험성이나 작품의 질적 수준 면에서 다른 작품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의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금에 대한 차등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재 공연 작품의 경우 전작보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수 레파토리를 엄선, 재공연 작업에 대한 지원액을 늘려줌으로써 신작 위주의 공연에 편중된 현행 무용계의 관행을 지원정책을 통해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장광렬(무용)>

○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무용가들의 독창성 및 창의성 등 경연형식의 기획공연에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손관중(무용)>

○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독창성과 창의성을 서류심사만으로 사전 판별하는 이 지원사업은 시행 결과면(공연)에서 볼 때 대체로 실험정신의 결핍현상을 자아내는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다수 수혜로 인한 빈약한 지원으로 지원자의 계획이나 이상 달성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겠으나 공격 지원금의 안일한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내용과의 연계성에 대한 목표달성을 사후 심사를 통해 분할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이 차등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안병주(무용)>

○ 현장평가 대상이 대체로 공연의 의도와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성실성을 공유하며, 구성과 형식에 있어서 나름대로 창의적 면모를 드러냈으며, 예술적 완성도의 상승과 함께 하는 수용자의 만족도가 주목된 사업들이었다.<허순자(연극)>

○ 이 (지원)사업은 극단이 하고 있는 정기공연에 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원사업의 취지와 창의적 예술지원이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극단의 정기공연에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독특한 이념, 철학을 지닌 공연형태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안치운(연극)>

○ 창의성은 그야말로 모든 예술의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이 분야의 지원 작품은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지원자들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절실하다.<정재왕(연극)>

○ ‘창의적 예술지원’ 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너무나도 다양한 공연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우현주(연극)>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대한민국미술대전)

(1)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미술분야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로 참신한 신인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 풍토 고취 및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 행사개요

(가) 대한민국미술대전(1부:비구상계열)

- 전시기간 : 2002.8.24-9.5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전시부문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비구상계열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 주 관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목 적 : 미술계 창작의욕 고취 및 참신한 신인발굴
- 주요개최요강
 - 출품부문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비구상계열
 - 출품수 : 1인 2점 이내
 - 출품료 : 1점당 50,000원
 - 출품자격 : 국적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출품가능.
단, 대학 재학생은 출품할 수 없음.
- 시상내역(251점)

시상부문	수상자	작품명	부문
대상	황계성	순환의 바람으로부터...	양화
우수상	이진원	화지몽	한국화
	현종광	Make Up-Fish	양화
	김수현	마이 룸(방향)	판화
	문병식	자연의 공시	조각

- 대상 : 1점
- 우수상 : 4점
- 특선 : 44점
- 입선 : 202점
- 심사위원
 - 1차 심사위원장 : 김춘옥
 - 1차 위원 : 한국화-김상철, 김수길, 김춘옥, 신현조, 성민홍, 손희옥, 오숙환, 이철량, 최송대, 하정민
양 화-김명순, 김인하, 김용환, 노중기, 박계성, 신 철, 송민호, 송영숙, 이 열, 정현숙
 - 2차 심사위원장 : 이두식
판 화-신장식, 안정민, 이상윤
조 각-고명근, 김윤화, 박영환, 박일순, 엄혁용, 이강원, 정안수
 - 2차 위원 : 한국화-강구철, 송형근, 윤옥순, 이정연, 정은숙
양 화- 고영일, 이두식, 이희중, 정정수, 한기주
판 화-송중덕, 윤동천, 주성태
조 각-김 윤, 김 준, 이성욱, 이수홍

(나) 대한민국미술대전(2부:구상계열)

- 전시기간 : 2002.10.12-10.29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전시부문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구상계열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 주 관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목 적 : 미술계 창작의욕 고취 및 참신한 신인발굴
- 주요개최요강
 - 출품부문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구상계열
 - 출품수 : 1인 2점 이내
 - 출품료 : 1점당 50,000원
 - 출품자격 : 국적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출품가능.
단, 대학 재학생은 출품할 수 없음.
- 시상내역(317점)

시상부문	수상자	작품명	부문
대상	이재영	2002 하나된 달	조각
우수상	조상렬	가족	한국화
	채기선	像-한라산	양화
	이석환	전쟁의 파편VIII	판화
	박정용	의식의 창 너머에서 불어오는...	조각

- 대상 : 1점
- 우수상 : 4점
- 특 선 : 66점
- 입 선 : 246점
- 심사위원
 - 1차 심사위원장 : 정하경
 - 1차 위원 : 한국화-권희연, 김옥경, 박윤서, 박충호, 신영식, 이상기, 윤희상, 조순호, 정하경, 홍순주
 양 화-김주성, 오 광, 류유희, 박미용, 박지택, 이남찬, 이성재, 이영박, 정우범, 정희남
 판 화-김란희, 김상구, 김 선
 조 각-강희덕, 김홍곤, 류경원, 이동훈, 이창수, 정진환
 - 2차 심사위원장 : 김수현
 - 2차 위원 : 한국화-곽권옥, 김태정, 서홍원, 윤옥희, 이영우, 이재호, 정성태, 허 영
 양 화-강용길, 강정진, 김재열, 김철수, 노희정, 박일용, 서재홍, 윤경조, 이영식, 장이규, 최영중
 판 화-김승희, 서상환, 이인화
 조 각-김수현, 민설래, 안의중, 이상무, 황영숙

(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 전시기간 : 2002.9.7-9.18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전시부문 : 한글, 한문, 전각, 소자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 주 관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운영위원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목 적 : 서예계 창작의욕 고취 및 참신한 신인발굴
- 주요개최요강
 - 출품부문 : 한글, 한문, 전각, 소자
 - 출품수 : 1인 2점 이내
 - 출품료 : 1점당 50,000원
 - 출품자격 : 국적에 관계없이 만 22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출품가능.
- 시상내역(489점)

시상부문	수상자	작품명	부문
대상	박영현	만보	한문
우수상	전용범	산중신희곡 <만흥>	한글
	임종현	각계 선생 시	한문
	심현숙	도연명 시 <음주>	전각
	김옥선	계녀가	소자:한글

- 대상 : 1점
- 우수상 : 4점
- 특 선 : 82점
- 입 선 : 402점
- 심사위원
 - 1차 심사위원장 : 윤양희

- 1차 위원 : 한 글-김정자, 류승란, 박혁남, 서정수, 서혜경, 신명숙, 윤양희, 이영락, 조숙자
한 문-박중섭, 송정택, 송윤상, 이근우, 이쾌동, 임춘식, 전홍규, 정복순, 최규삼,
허회태
전 각-이영수, 조인선
- 2차 심사위원장 : 정태희
- 2차 위원 : 한 글-구자송, 신두영, 정순희, 최민렬
한 문-김용석, 서동형, 안병한, 윤두식, 이재무, 전도진, 정광주, 정태희
전 각-노태중, 이중기

(3) 자체 평가

- 지원대상 사업이 장기적 지원의 대상이며 연례성 전시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 및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참신한 신인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풍토를 고취하겠다는 사업취지 및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은 당해연도 심사방식의 개선 후 심사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차단하여 각각 객관적 평가를 유도한 결과, 많은 출품자들이 수긍하는 제도로 인정받았음. 그러나 특선이상 작은 수준높은 작품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간 충분한 작품견해를 종합하는 합의제를 병행하여 점수제에서 오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관계로 전시일정이 연기됨으로서 혼란을 야기시켜 출품수가 저조하였으며 전시장소가 협소하였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대한민국공예대전)
-----------------------------	---------------------------------

(1) 사업개요

공예인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창작풍토를 조성하여 신진작가들의 등용 및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예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우수한 작품전시로 일반인들에게 공예예술 진수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02.5.10-5.21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 주 관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시상내역(117점)
 - 대상 : 1점(김선득-금속)
 - 우수상 : 4점(곽재희-금속, 정두섭-도자, 조원희-목칠, 한혜선-염직)
 - 특선 : 17점
 - 입선 : 95점
- 심사위원
 - 1차 심사위원장 : 정옥란
 - 2차 심사위원장 : 김병익
 - 금 속(1차)-이규남, 김종승, 장미연, 고승근
(2차)-이성근, 남화경, 정영관, 차경철
 - 도 자(1차)-김종태, 정진원, 김윤수, 김 선

- (2차)-김용진, 이규형, 김병익, 이광진
- 목 칠(1차)-오현성, 손완호, 백태원, 서동석
- (2차)-정영환, 김태종, 유해철, 김지건
- 염 직(1차)-김현태, 정옥란, 장영란, 이풍미
- (2차)-고석복, 심옥섭, 손정례, 이도희

(3) 자체 평가

○ 제2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부문 출품작은 총 261점이었으며 예년에 비해 질적, 양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기법과 소재선택, 조형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다.

○ 미술대전 모든 부문의 심사기준방식에 의하여 공예부문도 1차 심사는 개별채점제로 전산집계되어 총점 우선순위로 입상작을 선장하고 2차 심사는 전원합의제와 투표제로 특선, 우수상, 대상이 결정되었다.

○ 대상은 금속분야의 작품으로 전통적인 부식기법에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접목한 작업으로 모든 심사 위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심사의 주안점은 기본기법의 충실도와 소재의 다양한 연구를 통한 완성도, 그리고 조형성과 독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대한민국건축대전)
-----------------------------	--

(1) 사업개요

초대작가들의 우수한 작품과 신진 건축가들의 계획작품을 전시하여 건축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건축문화의 발전상을 알리고 건축학도들의 창작의욕을 높이며, 신진 건축가들의 등용문이 되게 하는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

(2)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02.11.7-11.20
- 장 소 : 예술의전당 미술관
- 전시내용
 - 일반공모전 : 113점
 - 초대작가전 : 83점
 -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품전 : 7작품
 - 건축사진전 : 17작품
 - 건설·자재업체전 : 7작품
- 주 최 : (사)한국건축가협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 시상내역(113점)
 - 대상 : 1점(심형근 “세운 옥의전-한국형 복합 문화 시장의 재구축)
 - 우수상 : 3점
 - 양윤모 “Crevice' space for Connection”
 - 박태상 “Internal Facade”
 - 김주원 “청소년 문화공간 계획안”
 - 특선 : 6점
 - 김성률 “Interweaving of urban daily”
 - 김영수 “三間-인간, 시간, 공간”
 - 신재영 “inner openspace & inner openspace networking”
 - 이원일 “패션 부지 주변의 노후 주택 순차적 개발”

- 이윤주 "IMAGINE"
- 이현화 "City extension City"

- 입선 : 103점

○ 심사위원

- 일반공모전 : 안영배(위원장), 박승, 장응재, 유 건, 김광현, 서혜림, 신호근
- 한국건축가협회상 : 김 원(위원장), 도창환, 유원재, 이성관, 최동규
- 건축사진전 : 정정웅(위원장), 김한일, 박상현, 이병호, 원대연, 조성렬, 황의태

(3) 자체평가

○ 대한민국건축대전의 경우 신진건축가와 기성건축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작품수 및 작품수준의 향상이 었보였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대한민국사진대전)
---------------------	---------------------------------

(1) 사업개요

사진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인발굴로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한편 사진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함.

(2)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02.6.19-7.1
- 장 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 전시부문 : 공모전-156점, 초대전-115점
- 주 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시상내역(147점)
 - 대상 : 1점(김옥춘-불굴의 투혼)
 - 우수상 : 1점(김주식-열정의 혼)
 - 특선 : 10점(이성만-삶의 흔적, 조주희-작업, 윤석기-기원, 김봉제-소녀, 정재주-다비식, 이기선-전원, 최영근-작업, 김기운-생과 사, 김인준-누드 이미지)
 - 입선 : 135점
-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김한용
 - 위 원 : 김생수, 김종호, 민병태, 박영대, 신건이, 이은주, 장지영, 홍종화

(3) 자체 평가

○ 작품의 소재선택이 건전해졌고 사진예술만이 지닌 빛의 활용폭이 넓어졌으며 모든 작품속에 성의가 돋보여 사진 창작활동의 전망이 밝다.

○ 해마다 반응이 좋아지고 있으며 사진예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져 보다 좋은 작품이 창출되고 사진전 개최의 의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서울창작음악제)
-----------------------------	---------------------------------

(1) 사업개요 및 주요실적

(가) 사업개요

1969년 우리나라 창작음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한 서울음악제를 2002년부터는 창작 음악의 활성화 및 신인 작곡가의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서울창작음악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작곡가들의 창작의욕 진작 및 창작예술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업.

(나) 주요실적

- 사업명 : 제34회 서울창작음악제
- 주관 : 한국음악협회
- 일정 : 2002. 5. 28 - 5. 30
- 장소 : 추계예술대 콘서트홀
- 대상작품 : 현재적 기법이나 실험적 작품을 포함한 한국적이고 예술적인 세계 초연 작품
- 위촉 및 공무부문 : 가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 지원액(집행액) : 30,000,000원

(2) 서울창작음악제 자체 평가

○ 서울음악제는 세계 초연의 작품을 공모, 위촉하여 연주하는 행사로서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의 발전 및 활성화, 특히 신인작곡가 발굴 및 기성세대의 활발한 창작의욕 고취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02년도 서울음악제는 중진작곡가를 비롯하여 지방 및 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를 대거 위촉함으로써 현재 국내 창작음악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대한민국작곡상)
-----------------------------	---------------------------------

(1) 사업개요 및 주요실적

(가) 사업개요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독창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음악인들의 사기 진작과 창작음악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나) 사업내용

- 사업명 : 2002 대한민국작곡상
- 주관 : 한국음악협회
- 일정 : 2002. 12. 5
- 장소 : 흥사단 강당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나이제한 없음)
- 대상작품 : 서양음악부문과 한국음악부문을 격년제로 실시함.(2002년 서양음악부문 실시)
-신청종목
부문(1) 오페라, 관현악, 교성곡, 협주곡부문/ 부문(2) 실내악부문/ 부문(3) 독주, 가곡부문
-작품은 창작곡으로 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작하여 발표된 작품에 한함.
- 시상내역

- 최우수상 - 정태봉 교향시 '백두대간'
- 부문(1) 우수상 - 해당자 없음
- 부문(2) 우수상 - 김규동 실내악을 위한 '아버지의 노래'
- 부문(3) 우수상 - 이해성 바이올린을 위한 '비움'
- 지원액(집행액) : 20,000,000원

(2) 대한민국작곡상사업 자체 평가

대한민국 작곡상은 발표된 작품만을 심사하는 행사로서 묻혀있던 우수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발굴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창작음악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전국연극제)
-----------------------------	--------------------------------------

(1) 사업개요 및 주요실적

(가) 사업개요

지역연극의 균형 발전을 통한 한국연극의 발전을 위해 우리 원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회 주관하는 연극축제로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단체가 참가, 공연하며 대상(대통령상) 등을 시상하는 사업.

(나) 2002년도 제20회 전국연극제 행사개요

- 행사명 : 제20회 전국연극제
- 기 간 : 2002. 9. 26 - 10. 13(18일간)
- 장 소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참 가 : 전국 15개 시·도 대표극단 및 해외교포극단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연극협회
- 주 관 : 전라북도, 전북연극협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예총전북지회 등

(다) 시상내역

- 단체상 : 대상 : 2천만원, 금상 : 각 1천만원, 은상 : 각 5백만원,

시상부문	시 상 훈 격	시도명	극 단 명	대표자	작품명(작, 연출)
대상	대 통 령 상	부산	하늘개인날	곽종필	이 (김태웅, 곽종필)
금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구	처 용	성석배	고추말리기 (선옥현, 최주환)
	문화관광부장관상	경북	에 밀 레	이애자	아비 (김동기, 이금수)
은상	전라북도지사상	경기	동 선	이기자	꽃마차는 달려간다 (김태수, 조성일)
	문예진흥원장상	전북	창작극회	류경호	그여자의 소설 (엄인희, 류경호)
	연극협회이사장상	강원	굴 명 쇠	김귀선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이근삼, 장규호)
	전 주 시 장 상	충북	청 사	문길곤	해가지면 달이뜨고 (김태수, 이창구)

- 개인상: 각 2백만원(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수상자에게 해외시찰비 각 3백만원 별도 지원)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명	수상자	극 단 명	작 품 명
연출상	문예진흥원장상	부산	곽종필	하늘개인날	이
최우수연기상	연극협회이사장상	경기	김상규	동 선	꽃마차는 달려간다
연기상	연극협회이사장상	강원	김귀선	굴 령 쇠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경북	이애자	에 밀 레	아비
		대구	김미화	처 용	고추말리기
		전북	정경선	창작극회	그 여자의 소설
전남	임정찬	백운무대	이		
무대예술상	예총전북지회장상	부산	김유리라	하늘개인날	이

※ 2002년도 제20회 전국연극제 희곡상 대상자(창작초연작품) 없음.

- 심사위원 : 장민호(국립극단, 원로 연기인), 강영걸(극단 민예, 연출), 김영무(극작가, 극작), 이상복(원광대 문창과 교수, 평론), 강남진(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교수, 연출)

(라) 참가극단 공연 일정 : 2002. 9. 27 - 10. 12 (15일간)

공연일자	시.도	공연장	극단명	작 품	작 가	연 출	참가인원
9월27일(금)	미 국 (비경선)	연지홀	달라스지부	이 몸이 새라면 부제: AIDS병동	김길수	김길수	배우 7명, 스태프 3명
9월28일(토)	전 북	모악당	창작극회	그 여자의 소설	엄인희	류경호	배우 15명, 스태프 10명
9월29일(일)	제 주	연지홀	아 라	꽃마차는 달려간다	김태수	김혜정	배우 5명 스태프 3명
9월30일(월)	충 남	모악당	성 터	춘궁기	김명화	채필병	배우 15명 스태프 7명
10월1일(화)	대 구	연지홀	처 용	고추 말리기	선옥현	최주환	배우 17명 스태프 10명
10월2일(수)	대 전	모악당	양 상 불	엄마	김현목	이종국	배우 6명 스태프 3명
10월3일(목)	경 기	연지홀	동 선	꽃마차는 달려간다	김태수	조성일	배우 7명 스태프 7명
10월4일(금)	울 산	모악당	푸른가시	꽃마차는 달려간다	김태수	정우수	배우 7명 스태프 7명
10월5일(토)	광 주	연지홀	청 춘	뺨와살	이강백	이행원	배우 10명 스태프 4명
10월6일(일)	부 산	모악당	하늘개인날	이(爾)	김태용	곽종필	배우 30명 스태프 15명
10월7일(월)	경 남	연지홀	입 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상열	이종일	배우 13명 스태프 20명
10월8일(화)	전 남	모악당	백운무대	이(爾)	김태용	조석주	배우 22명 스태프 15명
10월9일(수)	강 원	연지홀	굴 령 쇠	아카시아 흰꽃은바람에 날리고	이근삼	장규호	배우 10명 스태프 10명
10월10일(목)	경 북	모악당	에 밀 레	아비	김동기	이금수	배우 5명 스태프 3명
10월11일(금)	인 천	연지홀	인 토	물고기 남자	이강백	이광석	배우 4명 스태프 3명
10월12일(토)	충 북	모악당	청 사	해가지면 달이뜨고	김태수	이창구	배우 7명 스태프 19명
계	16개 시도	2개 공연장	16개극단				배우 177명 스태프 139명

※ 1일 1회(19:30) 공연

◦ 예산집행현황

- 1) 예산 : 389,115,000원
 - 2) 집행액 : 328,167,499원
 - 지원금 : 316,500,000원
 - 각 시도별 예선대회 지원금 : 115,500,000원
 - 본선 참가 대표극단 지원금 : 47,000,000원
 - 본선대회 주관처 지원금 : 128,000,000원
 - 해외교포극단 지원금 : 20,000,000원
 - 개인상 수상자 해외시찰 지원금 : 6,000,000원
 - 일반수용비 : 3,130,000원
 - 여 비 : 4,147,999원
 - 업무추진비 : 4,389,500원
- ※ 사랑티켓 지원금 29,386,000원 별도 지원

(3) 전국연극제 사업 종합평가

○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연극인들의 열정 : 지난 4월 전국연극제 조직위원회 사무실 개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간 상황실은 전북연극협회장을 중심으로 전주·익산·군산 등 지역 연극인들이 단원들을 파견하여 행사진행을 도왔는데, 특히 류경호, 이도현, 최경성, 조승철씨 등 각 극단의 대표들은 무대연출, 부대행사, 홍보 등의 중심에서 현장을 이끌었고, 시립극단 배우들은 개막식 자원봉사를 자처했고 일부는 행사진행요원으로 행사기간 내내 꾸준히 참여하는 등 전북지역 연극인들의 행사 진행 및 운영에 대한 의욕이 돋보였다.

○ 자발적인 관객 참여 : 올해 연극제는 1만6천여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으며, 부대행사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총 3만9천여명에 이르는데, 다른 해와 달리 돋보이는 점은 특정단체나 특정 작품에 관객이 몰리지 않았으며, 또한 주최측에서 초대권을 남발한 것도 아닌 대부분의 관객들이 연극' 감상을 위해 객석을 찾은 자발적인 순수 관객들이었다는 데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20대가 주를 이루던 이전과 달리 40대, 50대까지 다양한 관객층을 형성했다는 것은 이번 연극제가 가져온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관객 참여의 '효자'는 입장권 값의 절반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랑티켓 제도의 실시를 그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데 1만 4천여장에 달한 사랑티켓은 연극제 중반 매진될 정도로 호황을 이루었다.

○ 공연장 여건에 대한 아쉬움 : 연극제에 참여한 대부분의 연출가들은 공연장 시설에 있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모약당을 사용했던 각 극단의 관계자들은 "대단한 시설이지만 연극을 올리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며 2천석이 넘는 모약당 무대가 직접 대사를 전달해야 하는 연극을 올리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리전당이 외진 곳에 위치한 탓에 연극제 측에서 소리전당과 덕진 공설운동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긴 했지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관객을 다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기타 추진 사항

□ 전국연극제 개최지 조기 선정

○ 2003년도 제21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 : 제21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회의 개최 (2002.8.29/ 충남 공주시를 개최지로 선정)

○ 2004년도 제22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 : 제22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회의 개최 (2002.11.13/ 대구광역시를 개최지로 선정)

□ 올해부터 전국연극제 개최지를 2년 전에 선정하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3년엔 2005년도 제23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 예정.

□ 해외교포극단 및 서울지역 대표극단 참여

○ 2002년도 제20회 전국연극제에 최초로 참여했던 해외교포극단(미국텍사스주 달라스연극협회)의 참여를 계기로 전국연극제를 전세계 한국어권 종합 연극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2003년에도 해외교포극단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국연극제를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연극제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지역 대표극단의 참여를 논의하되, 서울지역 대표극단의 경우 비 경연부문에 참여하여 공연함.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전국무용제)
---------------------	-------------------------------

(1) 사업개요

지역무용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무용의 균형 발전을 통한 한국연극의 발전을 위해 우리 원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회 주관하는 무용축제로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단체가 참가, 공연하며 대상(대통령상) 등을 시상함.

(가) 2002년도 제20회 전국연극제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1회 전국무용제
- 기 간 : 2002. 9. 3 - 9. 11(9일간)
- 장 소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 참 가 : 전국 15개 시도 대표무용단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무용협회
- 주 관 : 울산광역시, 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후 원 :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나) 14개 시도 대표무용단 공연 일정 : 9.4~9.10(7일간)

구분		시도별	무용단	작품명	장르
일자	시간				
9.4 (수)	19:30	전남	김알영순천무용단	서편의 길	한국무용
	20:30	경남	권미애 현대무용단	體-존재의 욕망	현대무용
9.5 (목)	19:30	인천	인천 현대무용단	내 아버지 이야기	현대무용
	20:30	전북	이경호 무용단	다시, 떠오르는 그림	한국무용
9.6 (금)	19:30	울산	박상진 무용단	사람의 바람	현대무용
	20:30	충북	새즈른 Performance theater	꼭두산조	한국무용
9.7 (토)	19:30	경기	양대승 무용단	젯빛 하늘	한국무용
	20:30	경북	김동은 무용단	내 영혼이 머무는...	한국무용
9.8 (일)	19:30	강원	목백합 무용단	햇빛 새장	한국무용
	20:30	대전	서은정 현대무용단	걸을속(거울)속 신화	현대무용
9.9 (월)	19:30	광주	김미숙 무용단	천년의 비색(翡色)	한국무용
	20:30	충남	박경숙 프르미에르발레단	나비위에 낙타가 흐른다	발레
9.10 (화)	19:30	대구	대구무용단	다시 광야에서	한국무용
	20:30	부산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생명	현대무용

(2) 시상내역

○ 단체상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	무용단명	대표자	작품명
대 상	대통령상	대전	서은정 현대무용단	서은정	걸을속 신화
금 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부산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임연희	생명
	문화관광부장관상	충북	새즈른 performance theater	이인숙	꼭두산조
은 상	울산광역시장상	인천	인천 현대무용단	정숙경	내 아버지 이야기
	문예진흥원장상	울산	박상진 무용단	박상진	사람의 바람
	한국무용협회이사장상	광주	김미숙 무용단	김미숙	천년의 비색
	한국예총울산광역시지회장상	경기	양대승 무용단	양대승	젯빛하늘

○ 개인상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	수상자	무용단명	작품명	비고
안무상	울산광역시장상	대전	서은정	서은정 현대무용단	걸을속 신화	
연기상	문예진흥원장상	강원	나용주	목백합무용단	햇빛 새장	최우수
		인천	정숙경	인천 현대무용단	내 아버지 이야기	
		울산	정훈목	박상진 무용단	사람의 바람	
		충북	오은아	새즈른 performance theater	꼭두산조	
		경북	박미영	김동은 무용단	내 영혼이 머무는...	
		대전	서은정	서은정 현대무용단	걸을속 신화	
무대 예술상	한국무용협회이사장상	부산	황경호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생명	

- 심사위원장 : 이운철(발레, 인천교대 교수)
- 심사위원 : 김운미(한국무용, 한양대 교수)
안신희(현대무용, 한국무용협회이사)

허영일(평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장광열(평론, 한국춤평론가회 회원)
 박연진(한국무용, 대구카톨릭대 교수/지역추천)
 정경숙(현대무용, 부산여대 교수/지역추천) (이상 7명)

(3) 심사위원단 심사총평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작품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무용수들의 기량이 높아졌고 안무력도 향상되었으며, 무대미술, 음악, 의상 등 각 분야의 발전도 확인되었다. 장르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인 작품이 많아졌으며, 안무가의 독창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도 많았다.

올해 전국무용제는 특히 부대행사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무용예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참가 작품들의 수준향상으로 향후 전국무용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 축제로 자리잡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예산집행내역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금 액	내 역	금 액	내 역		
지원금	269,000	예산대회 개최지원: 90,000 본선개최지원: 126,000 본선참가지원: 45,000 제주대표여비 : 2,000 해외시찰지원: 6,000	262,000	예산대회 개최지원: 88,000 본선개최지원: 126,000 본선참가지원: 42,000 해외시찰지원: 6,000	7,000	
일반수용비	3,100	감사패 제작 등	2,954	감사패 제작 등	146	
공공요금	60	우편물 발송	-		60	
여비	5,040	임직원 현지출장비 등	3,202	임직원 현지출장비 등	1,838	
업무추진비	4,300	개막리셉션비: 2,000 간담회비: 1,000 행사추진활동비: 300 등	4,096	개막리셉션비: 2,000 간담회비: 996 행사추진활동비: 300 등	204	
계	281,500		272,252		9,248	

(5) 현장평가내용

- 평가분야 : 행사진행평가, 업무협조평가, 관객참여율 및 호응도 평가, 사랑티켓운용,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심사평가, 종합달성도
- 평가자(6인) : 평가위원 2인(허영일, 장광열 : 전국무용제 심사위원을 겸함), 우리 원 직원(공연예술팀장, 무용담당자, 무대감독 2인)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취합 및 분석
- 평가결과 : 86.8점(100점 만점)
- 평가서 분석(괄호안 점수는 백분율에 의한 항목당 평균 점수/해당항목 만점)
- 행사진행평가(27/30) : 공연장시설 및 개폐막식 관련 준비나 홍보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객안내 편의시설 및 교통편에 대한 구비가 약간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었음.
- 업무 협조평가(8/10) : 주관처간 협조 및 주최·주관처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회 진행

에 차질이 없었던 점을 높이 평가함.

○ 관객참여율 및 호응도(13.7/15) : 주관처의 관람객 유치노력이 특히 두드러졌고, 일일별 관객의 변동 추이가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등 관람객 유치에 성공하였고, 대공연장 앞의 부대행사가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 다양성 및 본 공연과의 연계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사랑티켓제도 운용(4.3/5) : 전국무용제로서는 처음 실시한 사랑티켓제도가 처음 우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판매 현황이나 판매율 대비 실제 관객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함.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8.8/10) : 지역무용인들의 발표 공간을 부대행사를 기획하여 지역무용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역무용을 대표하는 무용단의 발표를 통해 지역무용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심사평가(13.3/15) : 경연 첫날 오후에 1차 심사회의를 열어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마지막 경연 후 곧바로 심의장소로 이동하여 2차 심사회의를 개최함. 심사시 선토론 후 채점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였음.

○ 종합달성도(11.6/15) : 비계량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종합평가부문에서 전국무용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함.

(6) 전국무용제 사업 종합평가

○ 참가작품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현격히 높아졌고, 장르 간 혼합이 두드러져 참신함을 더해 주었으며, 지역 무용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움, 무용공연감상문 공모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여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 대회 기간 전부터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전국무용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고, 소공연장의 대관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회 기간동안 많은 관객의 관람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 전국무용제로서는 처음으로 사랑티켓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일반관객 및 학생관객 유치에 성공하여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 심사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 무용제 기간동안 공연장측의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로 무대운영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었고, 특히 경연 단체 간 무대준비 및 리허설 시간 배분, 시설 사용 등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깔끔한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주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여 대회 기간 내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무용예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성공하였다.

○ 다만, 공연장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좀더 세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음. 그리고 경연이라는 한계에서 오는 참가 단체 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등은 향후 전국적인 무용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음.

○ 보완과제

- 참가단체의 무용수 자격요건 규정 : 현재 경연단체의 무용수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무용수 대비 무자격자 비율 등 전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참가작품에 실제적 참여를 하게 되는 스태프에 대해 무대예술상이 수여되고 있는데, 여기에 개최공연장 및 우리원 직원들의 평가가 심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2003년 제12회 전국무용제 개최지 : 인천광역시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사업(서울공연예술제)
---------------------	---------------------------------

(1) 사업개요

세계10대 도시이며 한국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연예술종합축제를 만들기 위해, 공연예술계의 대표적 행사인 ‘서울무용제’와 ‘서울연극제’가 통합하여 시행함.

(가) 2002 서울공연예술제 개요

- 행사명 : 제2002 서울공연예술제
- 기간 : 2002. 5. 4 - 6. 9
- 장소 :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바탕골소극장, 마로니에야외무대 및 기타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
- 주최 : 서울공연예술제 집행위원회, MBC
- 주관 : 한국무용협회, 한국연극협회
- 후원 :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협찬 : 한국담배인삼공사

(나) 행사결과

- 개막식
 - 일시 : 2002년 5월 4일(토) 오후 5시
 - 장소 :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대극장
 - 사회 : 유인촌, 박인자, 배유정
 - 폐막식
 - 일시 : 2002년 6월 9일(수) 오후 7시30분
 - 장소 : 호암아트홀
 - 사회 : 송승환, 오문자
- ※ 2002 서울공연예술제 개·폐막식 관객집계현황

행사명	유료관객	초대관객	관객합계
개막식	.	920	920
폐막식	.	550	550

- 연극부문
 - 참가작
경연참가작: 6단체 / 해외초청작: 5개단체 / 국내초청작: 9개단체(개막작포함) / 자유참가작: 23개단체

※ '2002 서울공연예술제' 연극부문 공식참가작품

NO.	극단명	작품명	부문	비고
1	극단 동숭아트센터	이발사 박봉구	창작 초연	
2	극단 인혁	에비대왕		
3	극단 현빈	행복한 집		
4	극단 맥토	수릉		
5	극단 민예	장화홍련 실종사건		
6	극단 창과	사물의 왕국		

※ '2002 서울공연예술제' 연극부문 공식초청작품

NO.	극단명	작품명	부문	비고
1	극단 풍경	하녀들	재공연	
2	세종문화회관	아빠, 나몰레결혼했어요	재공연	
3	극단 신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재공연	
4	극단자유	대머리여가수	재공연	
5	극단 천지인	그것은 목탁구명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재공연	
6	극단 수레무대	Farce Festival	재공연	
7	극단 산울림	고도를 기다리며	재공연	
8	극단 유	생존도시	재공연	
9	서울예술단	고려의 아침	재공연	

※ '2002 서울공연예술제' 연극부문 자유참가작품

NO.	극단명	작품명	부 문	비 고
1	극단 창고극장	영화미소	자유참가	
2	극단체3무대	아름다운침묵II		
3	극단동승아트센터	어린이뮤지컬 토토		
4	열린극장	내아내의 남편은누구인가?		
5	극단여행과꿈	쉽,표(우리에겐축제가필요하다)		
6	다락기획	판도와 리스의 5개작		
7	극단 아리랑	정약용PROJECT		
8	극단 꼭두	13년하구,255일		
9	극단 상상	동물농장-WHITE(순수)		
10	극단 예우	신 살아보고 결혼하자		
11	극단학진	지하철1호선		
12	이랑씨어터	용띠위에 개띠		
13	이랑씨어터	처녀비행		
14	극단 파파	라이어2탄 튀어		
15	극단 배우세상	이구나		
16	극단 가변	컴플렉스 리어		
17	동유엔터프라이즈	일곱광대와 오디디푸스		
18	연극집단 반	장렬의 발견		
19	수레무대	oh my luv		
20	PAMA프로덕션	칼이수마		
21	극단까망	옛날의 꿈		
22	현대 인형극회	korea fantasy		
23	극단사다리 움직임연구소	코메디 휴먼		

※ 해외공식 초청작

NO.	극단명	작품명	부 문	비 고
1	레드폰드	Leitmotiv	해외 초청	캐나다
2	오스카라스 극단	Fire face(불의 가면)		리투아니아
3	국립모스크바 중앙인형극회	진기한 콘서트		러시아
4	극단 도깨자	행복의 조건		일본
5	중경시천극원	진쯔(金子)		중국

○ 무용부문

- 참가작

경연참가작 : 10개단체 / 현대발레갈라: 4개단체 / 레파토리공연: 2개단체
 제즈댄스페스티벌: 6개단체 / 새로운무용수를 찾아서: 15명 / 한일합작무대: 2개단체
 광화문 Dance Festival: 27개단체 / 자유참가: 2개단체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경연참가작품

공연일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명)
5.25	madeindance.com	jazz산조(散調)	14
	이미영무용단	美人-자고 가는 저 구름아-	9
5.27	춤타래무용단	新 광대곡	11
	밀물현대무용단	인텔리겐치아	9
5.29	아지드현대무용단	붉은 영혼의 시	13
	김혜림무용단	나무물고기	8
5.31	백정희무용단	귀거래(歸去來)	14
	김용철 설 무용단	아수라(阿修羅)III	11
6.2	장선희발레단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6
	뿃마루무용단	불꽃	17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현대발레갈라 참가작품

번호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
1	발레사라방드	멀리 사라지는 물방울들...	9명
2	백연옥	인연(因緣)의 주머니	2명
3	서울발레시어터	1 X 1=?	3명
4	문영철발레단	비상(飛上)	4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레퍼토리 공연 참가작품

번호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
1	김근희무용단	천상천하	30명
2	정영례 목포무용단	아리랑의 혼	25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재즈페스티벌 참가작품

번호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명)
1	전미혜재즈무용단	THE GAME-희노애락(喜怒哀樂)-	27명
2	G.N.S. DANCE COMPANY		20명
3	D.I.F .DANCE COMPANY		9명
4	S.F.A DANCE COMPANY		20명
5	DANCE "MOVE" COMPANY	FREE STYLE / WOMAN	2명
6	L.A. PERFORMING ARTS JAZZ DANCE COMPANY	WHAT THE FUTURE CAN BRING? / BODY TALK	5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새로운 무용수를 찾아서..' 참가작품

번호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
1	성장용	조화로운 순간	1명
2	서상재	장타령	1명
3	이승민	레퍼토리	1명
4	박영진	에스메랄다 中	1명
5	이현주	머물러 있는 자리	1명
6	박현석	Pieces	1명
7	유혜정	바람	1명
8	조지영	우연	1명
9	조용신	해적 中	1명
10	박인주	The Play	1명
11	김혜경	Queen	1명
12	서윤석	과리의 불꽃 中	1명
13	김은미	백조의 호수 中	1명
14	전기환	비상	1명
15	김민정	Liquid	1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한일합작무대' 참가작품

공연일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
6월 4-5일	안성수&이토킴	제전의 날	8명
6월 8-9일	Pappa TARAHUMARA	갑판 위의 새들	12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정오의 야외춤 한마당' 참가작품

공연일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
5월 13일	춤다솜무용단	청산향 / 춤을 위한 나나니	14명
5월 14일	조승미발레단	해설이 있는 조승미 명작발레	14명
5월 15일	서울기독대 송정은무용단	여인의 고정 외	17명
	남진희현대무용단	FOREVER	11명
5월 16일	조윤라발레단	조윤라 발레공연	7명
5월 17일	서울시무용단	서울에서 꿈꾸다	34명
5월 20일	황규자발레단	세레나데 외	21명
	오혜순무용단	축원 2002	26명
5월 21일	김민희한양발레아카데미	은빛 거울 외	30명
	허성재무용단	한국 옛 춤의 향기	50명
5월 22일	국립발레단	갈라콘서트	38명
5월 23일	밀레현대무용단	더불어 삶	13명
	조남규무용단	휘(輝) 외	8명
5월 24일	김명주Aura무용단	홍경무 외	30명
	안병순현대무용단	다이빙 / 미련	11명
5월 27일	인천시립무용단	모란꽃 춤 외	33명
5월 28일	이화석발레단	오늘	15명
	광무	춤의 소리	8명
5월 29일	서울기독대김인숙발레단	해적 외	8명
	단국대학교김혜정 현대무용단	듣는 귀 외	9명
5월 30일	KUM Dance Company	태평무 외	40명
5월 31일	경희발레	There is no one	10명
6월 3일	김현남현대무용단	가을소묘	9명
	남수정무용단	머리카락, 그 춤	4명
6월 4일	한양대학교 오윤자백남무용단	고운빛 우리춤	35명
6월 5일	최성옥 Meta Dance Company	풍매화 / 시골귀&서울귀	12명
6월 7일	서울예술단	대박	35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테마가 있는 주말예술무대' 참가작품

공연일	테마	주요출연진	출연자 수
5/18	젊은스타와 함께하는 클래식으로의 여행	.무용-이윤경, 박은성, 엄재용, 조훈일, 신현지 외 .연주 - 광명시청소년오케스트라 .성악 - 손기동교수, 김경애교수, 최선주 교수	89명
5/19	젊은스타와 함께하는 팝뮤직의 밤	.무용 - 김성용, 차진엽, 이영찬, 노준성, 안덕기 외 .연주 - 광명시청소년오케스트라 .성악 - 손기동교수, 김경애교수, 최선주 교수	85명
5/25	최승희 춤과 의상으로의 여행	.안무 - 김백봉 .의상재현 - 이호준	44명
5/26	젊은 안무가와 대중음악의 만남	.안무 - 김남식, 강경모, 박시중, 김수진	27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자유참가작품

공연일	참가단체	작품제목	출연자 수
5월 14-16일	최테레사무용단	움직임과 기호	5명
5월 29일	부산현대무용단	정동(正東)	2명

※ '2002 서울공연예술제' 무용부문 시상내역

구분	수상자	작품명	소속	시상내역(상금)
대상	이지드 현대무용단	붉은 영혼의 시	이지드 현대무용단	2000만원
안무상	정의숙	붉은 영혼의 시	이지드 현대무용단	1000만원
연기상	이미영	美人-자고가는 저 그룹아	이미영 무용단	500만원
	윤석태	붉은 영혼의 시	이지드 현대무용단	500만원
신인상	성창용	조화로운 순간	한국종합예술학교	50만원
	이승민	레퍼토리	한국종합예술학교	
	박영진	에스메랄드	경희대학교 재학	
	조지영	우연	LDP무용단	
	박인주	The Play	KUM Dance Company	
	김혜경	Queen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김민정	Liquid	한국종합예술학교	

(2) 서울공연예술제 사업 자체 평가

○ ‘2002 서울공연예술제’는, 세계 10대 도시이며 한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연예술종합축제를 만들기 위해, 공연예술계의 대표적인 행사인 ‘서울무용제’와 ‘서울연극제’가 통합하여 시행한 두 번째 행사이다. ‘2002서울공연예술제’는 월드컵을 맞이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과 국내 관객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층 더 알차고 신선한 공연예술축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5월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의 경우 개막식을 찾은 관객의 수가 너무 많아 입장 못한 관객이 아쉬움을 남기며 돌아서는 모습도 연출되었다. 이렇듯 올 ‘2002 서울공연예술제’는 성대하게 시작되었으며, 행사 기간 내내 극장을 가득 메워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단체가 많았다.

○ 앞으로 ‘서울공연예술제’는 매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양 행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향후 21세기 한국을 상징하는 공연예술축제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공연예술제의 하나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올해에도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무용협회, 연극협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공연예술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37일 동안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동숭홀 및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연들이 올려졌다. 이번 ‘2002 서울공연예술제’ 기간은 2002 한일 월드컵 한달 전에 개막되어 월드컵이 시작되는 초반기에 그 막을 내림으로써 월드컵 붐 조성에 이바지하며 한국의 공연예술을 전세계인에게 알리는 일거 양득의 실효를 거두었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기간문예단체지원
-----------------------------------	--------------------------

(1) 사업개요

예술인들의 전국적 연합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본부와 전국 문화원연합회의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2002년도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580,000,000원
 - 사업비 : 340,000,000원(제19차 예총대표자회의 20,000,000원, 월간 ‘예술세계’ 발간 70,000,000원, 제16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 40,000,000원, 예총 단위협회 정보화사업 운영 : 210,400,000원)
 - 경상운영비 : 239,600,000원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 350,000,000원
 - 제 12회 민족예술인대회 : 15,000,000원
 - 문예활동가 대상 연수프로그램 : 3,300,000원
 - 통일시대 문화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예비연구 : 8,000,000원
 - 전국 주요지자체 문화예술관련 연구 : 7,000,000원
 - 문광부 창작활성화사업 연구 : 7,000,000원
 - 문화정책포럼(5개) : 12,000,000원
 - 문화예술계 시사적 현안 및 문화정책 설명회 : 3,000,000원
 - 일일문화정책동향 발간 : 3,000,000원
 - 일일문화정책동향 E-BOOK 발간 : 4,000,000원
 - 문화정책강좌 : 3,000,000원
 - 문예아카데미강좌 : 124,000,000원
 - 문화예술 교사연수 : 30,000,000원
 - 문예아카데미 월례포럼 : 10,000,000원

- 월간 「민족예술」 발간 : 87,600,000원
- 사이버 문화예술 연구 : 6,100,000원
- 민족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 10,000,000원
- 사이버 문예아카데미 강의안 DB 구축 : 17,000,000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 120,000,000원
 - 「우리문화」 발간 : 55,000,000원
 - 전국문화원연합회창립40주년 백서발간 : 19,000,000원
 -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 발표회 : 36,000,000원
 -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 : 10,000,000원

(3) 기간문예단체지원 사업 자체평가

- 예술계의 양대 기간 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 향후 기간단체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총 지원금의 경우 경상비의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사업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의적 예술지원/계기성우수기획사업지원
-----------------------------	----------------------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 연도 중반 기획된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심의기준)
 - 연도 중반 기획되어 파급효과 등 우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 국가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행사를 계기로 기획된 문화행사
 - 기타 문화정책 수행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2) 주요 추진실적

- 지원예산 : 910,000,000원
- 집행액 : 887,467,414원 (29건)
- 집행잔액 : 22,532,586원
- 사업별 지원내역 : 참고자료 참조

(3) 계기성 우수기획사업 자체평가

○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주요한 행사를 계기로 추진되는 문화행사나 연도 중반 새롭게 기획되어 파급효과등 우수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코자 마련된 수시 지원사업으로 당초 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지원수요의 증가로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전용하여 총 29개 사업에 887,467,414원을 지원하였다.

○ 본 사업은 연도 중반 우수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서 수용하지 못한 주요 계기성 사업들을 지원하는 등 그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 운영에 있어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지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계기성 우수기획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원사업 절차를 개선하였다.

※ 계기성 우수기획사업 지원제도 개선내용

- 매년 10월경 차년도 사업신청서 종합안내서에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문예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성 제고
 - . 구성 (5인 내외) : 문화예술계인사3인, 문화관광부 주무담당관, 문예진흥원 주무부서장
 - . 심의회 개최 : 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심의가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원장이 임시 심의회 소집

※ 참고자료: 2002년도 계기성우수기획사업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지급일
극단 마산	이상용	뮤지컬 배비장전 일본공연지원	12,500	10,000	2.25
이기택	이기택	호주 아틀레이드 페스티벌 참가지원	3,500	3,000	2.25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경숙	여성파워콘서트지원	30,000	11,000	3.5
한일문화친선협회	윤재명	왕인박사 일본어판 수정증보판지원	125,000	49,967	3.11
한국한시협회	하영섭	“한시학당”운영지원	7,000	5,000	3.11
NAS(NewAsian Spirit)	장석원	한중현대미술교류전	30,000	12,000	4.8
영산재보존위원회	박인공	월드컵경기 영산재상설공연지원	50,000	25,000	4.24
중앙대한독문문화연구소	전영운	국제십포지움(통일과문화) 개최지원	28,900	25,000	4.22
신영옥	신영옥	섬유예술가 신영옥 뉴질랜드 초대전	20,000	15,000	4.24
안중근학교	신성국	2002 안중근 평화문화제	10,000	5,000	4.30
세계문화기구연대회의	문성근	2002문화다양성을위한 국제컨퍼런스	10,000	10,000	5.10
메타컨설팅	이승훈	한.일라이프마크 2002	10,000	10,000	5.10
AP-ITI아.태지역협회	양혜숙	AP-ITI및 AP-IPCD 국제문화포럼	10,000	10,000	5.10
한일음악교류회	민경찬	한일어린이동요대축제	20,000	10,000	5.14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이두현	2002월드컵큰잔치 파라과이민속공연단 초청지원	19,500	19,500	5.20
한국연극협회	최종원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및 방송대 이전연구”	16,000	10,000	6.4
한-베트남 평화공원 추진위원회	최학래	한-베트남 평화공원내 한국 전통예술 조각작품 설치	10,000	10,000	8.8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채희완	성밖숲 연극제	32,000	20,000	8.7
민족문학작가협회	현기영	국민의정부 문화정책토론회	20,000	10,000	9.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정배	민족대명절 한가위사랑나눔캠페인	247,000	247,000	9.18
미디어국제교류심포지엄추진위	김성희	국제심포지움(디지털문화와예술)	30,000	10,000	9.23
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조직위원회	나영수	2002대한민국창작합창축제	28,000	21,000	10.9
미협광주지회	박철교	2002 대한민국 수채화중진 작가 초대전	30,000	12,000	10.17
한국 전통문화연구원	인남순	조선왕조 궁중연희-“세종조희례연희/사시년“공연비디오자료제작	30,000	20,000	10.18
부산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	도영심	2002부산합창올림픽	300,000	270,000	11.4
한일연극교류협회의	김윤철	한일연극교류세미나	5,000	4,000	11.7
연세대청년문화연구원	조혜정	안/팜 프로젝트 2020	10,000	5,000	11.7
경기민요보존회	이춘희	경기민요소리극“한오백년” 지원	107,000	20,000	11.14
한국문화정책학회	정홍익	학술세미나, 논문집발간	10,000	8,000	11.20
집행액(누계)		29개사업	1,261,400	887,467	

나) 창작공연활성화 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창작공연활성화 지원/창작공연활성화기금신청사업 지원
---------------------	-----------------------------

(1) 사업 개요

우리나라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창작품을 발굴, 공연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실적

구분	회의개요 및 결과	지원 실적	지원액(천원)
2001년도 선정 2002년도 지원사업		○연극 : 극단 실험극장 '금의환향' 등 2건 ○음악 : 공연기획 세뮤 '부자유친'	80,000 100,000
2002년도 상반기 사전심의회 선정작품	별첨	○연극 : 극단 대학로극장 '콩가루' 등 2건 ○무용 : 최청자 뿔마루무용단 '겨울이야기' 등 3건 ○음악 : 서울원드앙상블 등 2건	60,000 150,000 34,000
2002년도 상반기 사후심의회 선정작품		○연극 : 극단 산울림 '가시고기' 등 3건 ○무용 : 파사무용단 '공명' ○음악 : 극단 무연시 '정선아리랑 창극 <신들의 소리>	90,000 35,000 30,000
2002년도 하반기 사전심의회 선정작품		○연극 : 극단 완자무늬 등 3건 ○음악 :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타악기 페스티벌' 등 3건	130,000 30,000
2002년도 하반기 사후심의회 선정작품		○연극 : 극단 두레 '송산야화' 등 5건 ○음악 : 제로파워 '태극' 등 4건	130,000 49,000
계			30건 918,000,000원

※ 2002년도 상반기 창작공연활성화 사후지원 심의회의

- 일시 : 2002. 01. 15 (화)
- 장소 : 우리원 회의실
- 심의위원
 - 연극 : 윤조병, 유민영, 채윤일, 김윤철, 최형인
 - 무용 : 최청자, 김혜식, 이병옥, 문애령
 - 음악 : 김용진, 최종민, 장혜원, 정치용

구분	단체명	작품명	지원결정액	비고
음악	극단 무연시 (김도후)	정선아리랑 창극 '신들의 소리'	30,000,000원	
연극	극단 로렘 (하상길)	꽃마차는 달려간다	20,000,000원	사업취소
	극단 산울림 (임영웅)	가시고기	30,000,000원	
	극단 청우(김광보)	인류최초의 키스	30,000,000원	
	극단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시골선비 조남명	30,000,000원	
무용	황미숙 현대무용단 (황미숙)	현대무용 '공명'	35,000,000원	
계		총6건 (음악1,연극4,무용1)	175,000,000원	

※ 2002년도 상반기 창작공연활성화 사전지원 심의회의

- 일시 : 2002. 02. 05 (화)
- 장소 : 우리원 회의실
- 심의위원
 - 연극 : 김의경, 이강백, 김철리, 김미혜, 안치운
 - 무용 : 최 현, 박인자, 박인숙, 김채현, 장광열
 - 음악 : 이성재, 서우석, 박수길, 박일훈, 황성호

구분	단체명	작품명	지원결정액 (천원)	비고
음악	서울윈드앙상블 (서현석)	박영근의 한국민요를 주제로 한 환상곡	14,000	
	조념	교향곡 제4번 "산하"라단조 작품24	20,000	공연단체 선정시 지원
연극	극단 대학로극장 (정재진)	룽가루	30,000	
	극단 완자무녀 (김태수)	의자는 잘못이 없다.	30,000	
무용	윤미라 무용단 (윤미라)	물빛 그늘	50,000	
	최상철Dance Project (최상철)	백조의 결혼식	50,000	
	최청자 텃마루무용단 (최청자)	겨울이야기	50,000	
계		총7건 (음악2, 연극2, 무용3)	244,000	

※ 2002년도 하반기 창작활성화 사후지원 심의회의

- 일시 : 2002. 07. 11 (목)
- 장소 : 우리원 회의실
- 심의위원
 - 연극 : 권성덕, 이 반, 박원경, 안치운, 오세곤, 김승현, 정재숙
 - 무용 : 이종호, 신은경, 유인화, 김기인, 성기숙
 - 음악 : 이상규, 장정익, 탁계석, 원 일

분야	단체명	공연작품	지원결정액 (천원)	비고
연극	마고극장 (소다회)	인당수 사랑가	20,000	
	극단 두레 (손남목)	송산야화	30,000	
	극단 신기루만화 (오달수)	먼데이 P.M 5:00	20,000	
	에이벳 코리아 (김주섭)	두여자	30,000	
	극단 대학로극장 (정재진)	삽 아니면 도끼	30,000	
소 계		5건	130,000	
무용	손인영NOW무용단 (손인영)	페미타지	30,000	2003년
	최테레사무용단 (최테레사)	움직임과 테크놀로지 연작시리즈 '움직임과 기호'	30,000	2003년
	김나영 Dance Project (김나영)	칼렌 샌디에고의 행방	30,000	2003년
소 계		3건	90,000	
음악	호남오페라단 (김영구)	동녘(전봉준)	60,000	2003년
	용인심포니오케스트라 (조재식)	오케스트라와 피리를 위한 협주곡	15,000	
	국악단 다스름 (유은선)	지수화풍	12,000	
	제로 파워 (임원식)	(타악)태극	12,000	
	허결재	Missa Arirang	10,000	
소 계		5건	109,000	
계		총13건 (연극5건/무용3건/음악5건)	329,000	

※ 2002년도 하반기 창작활성화 사전지원심의회의

- 일시 : 2002. 07. 31 (수)
- 장소 : 우리원 회의실
- 심의위원
 - 연극 : 구희서, 서연호, 박상규, 김철리, 이만희
 - 음악 : 서우석, 백대웅, 이만방, 김정수, 홍수연

분야	단체명	공연작품	지원결정액	비고
연극	극단 실험극장 (이한승)	세상에 해지면은 달 떠온단다	50,000,000원	2003년
	극단 로알씨어터 (윤여성)	그들은 외로이 춤춘다	50,000,000원	
	가극단 금강 (김정환)	대륙의 꿈	50,000,000원	
	극단 연우무대 (정한룡)	저 사람 무당 같다	30,000,000원	2003년
	극단 수레무대 (김태용)	발우	20,000,000원	사업취소
	극단 완자무늬(김태수)	꽃다방블루스	30,000,000원	
소 계		6건	210,000,000원	
음악	김대성	25현 가야금 3중주곡 '호호굿'	10,000,000원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이강구)	타악기페스티벌 (이귀숙 곡)	10,000,000원	
	서울목관5중주단 (김희준)	18회 정기연주회 (최우정 곡)	10,000,000원	
소 계		3건	30,000,000원	
계		총9건 (연극6건/음악3건)	240,000,000원	

(2) 창작공연활성화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 집중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대표적인 우수한 창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레퍼토리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창작공연활성화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지원신청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 지원선정 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창작공연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도록 관객과 언론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후지원사업의 경우 2002년도 하반기에 예술극장 대극장 보수공사 등 전반적으로 공연장 형편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재 공연하기에 급급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선정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원액이 하향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예산증액이 절실한 문제임. 또한 예산증액과 함께 사업취지에 맞는 최상의 작품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창작공연활성화기금신청 사업 외부 평가위원 평가

○ 대중소설을 연극으로 꾸민 '원 소스 멀티 유스' 시도는 연극 대중화의 한 방편이란 점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 레퍼토리로 정착시켜 연극을 어려워하는 관객들의 입문 코스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극계가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적인 자기 상품 개발에 힘쓰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한다.<(정재환(연극))>

○ 인기 있는 대중소설의 각색으로 이미 선 보였던 작품을 재 공연으로 올린 작품의 경우 새롭고 탁월한 예술적 가치나 창의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치밀하고도 꼼꼼한 무대미학적 접근으로 정서적 울림과 공감대 형성에는 여전히 성공적이다.<(허순자(연극))>

○ 이 (창작공연활성화)사업의 근거는 창작희곡의 활성화에 있는 듯 하다. 대상 지원 희곡의 수준이 들쭉날쭉인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창작희곡 뱅크를 만들어, 이 뱅크의 수준을 높이고, 여기서 선택된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를 고려하면 좋겠다.<(안치운(연극))>

○ 이 사업은 무용계에 큰 힘이 되어 온 지원사업이며, 사업의 독창성 및 연출적인 면, 무대의 흐름 등 해당 성과 목표에 근접한다고 말하고 싶다.<(손관중(무용))>

○ 기금 지원 공연 중에 가장 많은 수혜가 주어지는 이 사업은 지원자의 새로운 신작발표 개념이 아닌 분야의 질적·예술적 완성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던 출사위와 구성이 예측 가능할 만큼의 유사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무용 순수의 창작적 향상보다는 필요이상의 세트 전환에 주력함으로써 공연의 주된 추구가 무엇인가 의심스럽게 하는 사업은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대상에 부흥하는 지원자의 신중한 실험정신과 프로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안병주(무용))>

○ 올해 평가 대상 공연은 사전에 지원이 확정된 작품이었다. 문예진흥원의 지원금 중 단일 단체 지원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데다 60분 내외의 규모로 공연되는 대작 위주의 작품이 선보였다. 3개 심의 대상 작품은 완성도 면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완성도가 떨어졌던 작품들은 대부분 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실제 공연 무대 위에서 그대로 나타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만 따라준다면 사전

심의가 반드시 생산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제작비를 투여한 작품도 있어 무용가들의 지원금 활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했다. 반면에 `댄스 뮤지컬`이란 새로운 장르 개발이 시도되는 등 차등화 된 지원금으로 인한 생산적인 효과도 얻어냈다. 반면에 사후 지원의 경우는 제작 지원금이 쪼개지고 너무 남발되는 경향도 나타났다.<장광열(무용)>

○ (창작공연활성화 지원사업이) ‘창의적 예술지원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어려우며, (사업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항목들 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문승현(음악)>

○ 창작공연을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역시 새로운 작품의 탄생이며, 새롭고도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공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의 탄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본분에 충실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자금 지원시에는 수령자가 되어 할 인물도 봐야하나 탄생할 작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중으로 숙고해야 할 것 같다.<이석렬(음악)>

○ 창작공연의 분야를 좀더 세분화하여 각 하위분야별 지원 계획을 공지하고 새로 창작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각 단체나 개인이 가급적 시행착오 없이 공연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싶다. 창작공연인 만큼 자금의 단위가 적더라도 가능한 많은 단체에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2002년엔 비교적 새로운 창작공연들이 진흥원의 지원에 격려를 받았다.<김은양(음악)>

다) 다원적 예술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다원적 예술지원/다원적 예술기금신청사업 지원
---------------------	--------------------------

(1) 사업개요

○ 정형화된 기성(순수) 예술 장르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Indie)·실험 대안적인 경향의 예술, 형식·내용·제작방식 등에 있어 기존의 주류 문화예술과 다른 비주류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높이고

○ 대중 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역량을 키우고, 국민들이 직접 문화를 생산하고 향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함.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3) 다원적 예술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 대중분야지원과 독립·인디·대안예술분야 지원이 ‘다원적예술지원’으로 통합되었으며, 2001년 예산이 2억(분야별 각 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2년도 예산이 5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 전년 대비 예산의 대폭 증액(250%)으로 인해 정기 지원심의시 책정된 5억원의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고 3억3천5백만원(26건)만 선정하였으며, 지원심의위원의 결의에 의거 추가 홍보·안내를 통해 하반기 2차 심의를 갖기로 함. 이에 따라 2002년 8월 추가 지원 접수 및 선정을 통해추가로 20건 1억5천9백만원(신청 91건)을 선정하여 동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 지원단체의 사업 포기 1건 / 6,000,000원 지원되지 못함

○ 지원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현재 문화일반분야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평가위원제를 개선하여 다원예술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독자적인 평가위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원적 예술기금신청 사업 외부 평가위원 평가

○ 대체로 이 지원사업이 기획의도에 따른 지원여부와 전시성과의 예측이 힘든 경우이며, 지원의 기준을 형성하는 사례나 원칙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검증되

지 않은 공공장소 전시의 지원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김현도(미술)>

○ ‘다원적 예술’이라는 사업명이 모호하며, 이 사업이 이미 모든 장르들은 서로 섞여 부풀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생경한 사업이 이것에 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안치운(연극)>

○ 기존의 전통예술이나 순수예술이 아닌 실험적, 대안적 성격의 예술 형식이나 내용, 또는 새롭고 다양한 예술의 흐름의 모색과 이의 수용,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에서 볼 때 과연 그에 걸맞는 사업들이었나 하는 점에서 일말의 회의가 없지 않다. 일부 사업은 지나치게 퓨전적 이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오히려 외국 것의 단순모방에 치우친 점도 없지 않았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있을 수 있는 무분별한 문화수용 아닌가 하는 혐의도 짙다. 지나치게 전시 위주였거나 내용이 부실했다.<박 찬(문화일반)>

○ (평가대상사업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돋보인 좋은 기획이었다. 남녀노소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과 연극이었으며,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고전적인 것과 첨단적인 것이 섞인 퓨전 예술이 관객의 흥미를 끌 만했다. 어떤 사업은 동네 한복판에서 했는데 너무 시끄러웠고, 또 어떤 사업은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강하게 풍긴 것이 흠이었다. 다음 번에는 공연 주체와 관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내용이 가미되었으면 좋겠다.<이승하(문화일반)>

○ (평가대상) 사업이 다원적 가치창출을 요하는 후기 자본주의적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예술 실천방식이 어떤 것이고, 특히 2002년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변혁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35년 간의 퍼포먼스의 세대별 성과는 어떤 것이며, 세계의 퍼포먼스 역사 속에서 의미와 위상은 어떤지, 또 예술가와 관객 전반에 걸친 문제점은 무엇이며, 5000년 한민족 역사와 21세기 한국예술 속에서 한국전위예술의 종교철학적인 역할과 전망은 어떤 것인지를 밝힌 이론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행사의 큰 주제가 과연 하부 장르별로 성공적이었는가는 문제, 또 공통주제를 형상화하더라도, 행위주체의 실득력 있는 차별적인 시각, 그리고 그러한 차별성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게 하는 ‘일체의 엄격한 예술이론과 창작기술’(藝術詩學)의 고안 노력 등에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순모(문화일반)>

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신진예술가 지원/신진예술가 기금신청사업 지원
---------------------	--------------------------

(1) 사업개요

역량있는 차세대 예술 인력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사업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3)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자체평가

○ 문학 창작지원에 있어서 발간 중심의 고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작품소재의 취재를 비롯한 일련의 창작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진의 창작역량 강화에 기여함.

○ 다만, 발간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접수하였던 바, 신청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학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자체평가

○ 역량있는 예술 인력 발굴을 위한 단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됨.

○ 신진 예술인(개인)을 대상으로 국내 전시 및 국내외 연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신진예술인의 발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해외연수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총 소요 예산에 비해 지원금 지급율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사업수행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연수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신진의 자격 기준이 모호한 사업이다. 신진의 예술적 평가가 어떤 형태로든 입증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진의 경우 ‘해당분야의 관심도’ 항목과 ‘예술적 수월성’ 항목이 보다 중요하게 배점되어야 할 것이다.<전승보(미술)>

○ 지난 5-7년간 비영리 미술관 및 갤러리 혹은 대안공간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관화랑 일색이던 한국의 조악했던 환경을 자연스럽게 대폭 개선하여 전시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풍토와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에 문예진흥 기금이 여러 비영리 미술단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적절히 사용되어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자체적으로 인사미술공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진예술가 지원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달성해 왔다. 인사미술 공간의 빠른 활동 재개를 기대하였다. 인사미술 공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근의 전시형태는 설치에 상당의 시간이 할애됨으로 설치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작품의 질적인 효과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전시기간이 1주에서 평균 2주인 것에 비해 외국의 경우는 3주~5주이다. 이는 전시의 질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또한 2주 단위의 전시는 많은 작가에게 혜택을 주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 설치 및 홍보 등에서 시간이 모자라는 결과를 동반하므로 1년 동안 선정되는 전시 횟수를 약간 줄여서 질적으로 전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할 만 하다.<유현미(미술)>

○ 미술분야에서는 아마도 젊은 작가의 개인전을 주로 지원하는 이 항목의 성격상, 평가의 피드백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체나 당사자는 대형 기획전이나 그룹전의 조직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 개별작가들이며, 향후 미술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작가를 양성하는 토양은 예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진작가의 지원사업과 이 항목의 평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개별작가의 평가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이 될 것이다.<김현도(미술)>

(다)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평가

○ 각 분야의 신진 예술인(개인)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 및 국내외 연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유일한 사업 형태로서 신진 예술인의 발굴 및 창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다만,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의 문예인 해외연수지원사업 유형과 내용적인 면에서 신청인의 나이를 제외하면 변별성이 거의 없어 혼란이 있음.

○ 2003년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 각 장르별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적정하게 추진되었으나, 연극분야 지원대상인 김병춘의 ‘미국, 체코 연수’ (10,000,000원)는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

※ 신진예술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신진 예술가들의 공연 지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비단 공연 지원 뿐 아니라 독자적 기금사업을 장기 기획하여 포상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진흥원의 위상 뿐 아니라 현재 지원미비의 약점까지 보완할 수 있다.<김은양(음악)>

○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공연형태를 제외하고 신진 예술가에게 평균치 이상의 액수가 지원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술적 노력 외에도 지원서에 명시한 장소나 공연 규모 등은 지켜져야 한다.<이석렬(음악)>

○ 평가대상 사업이 신진작가의 기 검증된 재능이 신작(혹은 타 작품들)에 마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경우였으며, 이는 희곡대본에 마땅히 자리해야 할 작품의 공연성(performability)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허순자(연극)>

○ 무용 분야의 지명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 풍토에 있어 젊은 신진 예술가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선한 작품해석과 에너지 넘치는 기량을 소지한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이 이 기회를 발판으로 한국무용예술의 새로운 향방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업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명 단체의 소속단원으로써 지원 받아 개인의 역량보다는 인재 전술적 효과를 등에 업고 단순히 기존의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어떤 다른 분야의 사업보다는 신중하게 대상선정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안병주(무용)>

○ 이 부문의 지원사업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부문,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무용 부문에서는 가장 성공한 지원 사례로 꼽힌다. 올해 경우 특히 선정 대상 작품들이 완성도에서나 실험적인 시도 등에서 평균점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 장르별로 지원 선정자들의 지원금 활용이 지나치게 차별화 되는 것(예를 들어 발레 경우는 직업 무용단 단원들 위주로 해외 연수나 콩쿨 참여 등에만 치중되고 있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장광열(무용)>

○ 이 사업의 문제는 신진예술가들의 공연활동이 산포 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디서 언제 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많다. 이는 이들의 공연이 매체에 잘 다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받는 이들이 한꺼번에 일정한 기간동안 공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경우 매체의 지원과 평가의 대상이 쉽게 됨으로써 신진예술가들에게도 좋은 등용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안치운(연극)>

○ 이러한 구체적인 유형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홍보에 힘써줬으면 한다.<우현주(연극)>

○ 평가대상사업 모두 전통예술분야 중 무대음악 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기여를 한 음악회로 평가하고, 특히 프로그램 내용의 참신했으며, 연출, 무대미술, 음향 면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현경채(전통)>

○ 해금연주자 발표회는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공연으로 평가된다. 한해동안 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윤중강(전통)>

마) 관객개발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관객개발지원
---------------------	--------

(1) 사업개요

공연예술 관객을 개발하고 공연단체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연작품을 저렴하게 선택, 관람할 수 있는 공연종합관람권(사랑티켓)을 관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할인 차액을 공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2) 2002년도 주요 추진실적

(가) 서울 지역 사랑티켓 사업

- 주최 : 한국연극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음악협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한국공연예술메니지먼트협회 등
- 주관(지원대상) : 한국연극협회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최종원)
- 참가단체 : 총 171개 단체, 403개 작품
- 사랑티켓 종류 : 3종
 - 대학생, 일반용 : 2종(12,000원권, 20,000원권)
 - 초·중·고생용 : 1종(8,000원권)
- 사랑티켓 발행 및 판매·회수수량(단위 : 매)

구 분	발행수량	판매수량	회수수량	비 고
20,000원 권	40,000	23,485	23,242	
12,000원 권	170,000	163,201	158,247	
8,000원 권	156,000	138,479	132,790	
계	366,000	325,165	314,279	

- 지원내역 : 1,636,400,000원 (서울시 지원금 30,000,000원 별도)
 - 관객 지원 : 1,402,252,000원(관객이 사랑티켓 구입시 5,000원의 혜택을 관객에게 줌)
 - 소극장 지원: 197,213,000원(소극장공연관람 사랑티켓 한 매당 1,000원을 극장지원금으로 지원, 2001.4.20부터 시행)
 - 인쇄비 지원 : 36,000,000원(월별 3,000,000원)

※ 기타 사업 지원

- 사업명 : 대학로 공연관객개발사업 지원
- 총지원액 : 30,000,000원
- 사업내용
 - ① 세미나
 - 일시 : 2002.12.9, 14:00:
 - 장소 : 학전 그린 소극장
 - 내용 : 대학로 거리 환경의 현황과 전망
 - ② 거리 환경 개선 캠페인
 - 일시 : 2002.11.30~ 2003.4.15
 - 장소 : 마로니에 공원 등 대학로 일대
 - 내용 : 대학로 환경개선 캠페인(불법 호객 행위 및 게시물 단속)
 - ③ 문화소외계층 초청 공연
 - 일시 : 2002.12. ~ 2003.1월
 - 장소 : 대학로 일대 공연장
 - 내용 : 문화소외 계층을 초대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 대통령 선거 관계로 2003년으로 연기하여 시행.

(나) 제20회 전국연극제 사랑티켓 사업

- 기간 : 2002. 9.26 - 10.13
- 주관(지원대상) : 연극협회 전북지회
- 사랑티켓 종류 : 2종(일반용 8,000원권, 학생용 4,000원권)
- 사랑티켓 발행 및 판매 · 회수수량
- 티켓 운영 현황(단위:매)

구 분	발행수량	판매수량	회수수량	비 고
8,000원권	4,000	4,000	2,570	(일반용/관객 3,000원 구입)
4,000원권	10,000	10,000	5,512	(학생용/관객 1,000원 구입)
계	14,000	14,000	8,082	

- 지원내역(관객지원) : 29,386,000원
 - 일반용 : 12,850,000원(2,570매 x 5,000원)
 - 학생용 : 16,536,000원(5,512매 x 3,000원)

(다) 제11회 전국무용제 사랑티켓 사업

- 기간 : 2002. 9.4 - 9.10
- 주관(지원대상) : 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사랑티켓 종류 : 2종(일반용 7,000원권, 학생용 3,000원권)
- 사랑티켓 발행 및 판매 · 회수수량
- 티켓 운영 현황

구 분	발행수량	판매수량	회수수량	비 고
7,000원권	7,500	6,433	2,680	(일반용/관객 3,000원 구입)
3,000원권	9,500	9,325	5,186	(학생용/관객 1,000원 구입)
계	17,000	15,758	7,866	

- 지원내역(관객지원) : 21,092,000원
 - 일반용 : 10,720,000원(2,680매 x 4,000원)
 - 학생용 : 10,372,000원(5,186매 x 2,000원)

(라) 지역 사랑티켓 사업

- 기간 : 2002. 하반기
- 대상지역 : 부산,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전북
- 주관(지원대상) : 4개 대상 지역 시·도
-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원)

지 역	시도 확보예산	문예진흥기금지원액	비 고
부산광역시	30,000,000	60,000,000	
울산광역시	30,000,000	60,000,000	
경상남도	30,000,000	60,000,000	
대전광역시	10,000,000	20,000,000	
충청북도	10,000,000	20,000,000	
전라북도	10,000,000	14,880,000	사업시행 첫해로 지원금을 해당 금액만큼만 신청
	120,000,000	234,880,000	

※ 지역 자치단체 확보예산의 2배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Matching Fund System)

(마) 거창국제연극제 사업

- 개요 : 거창국제연극제 기간동안 ‘거창국제연극제’사업을 대상으로 사랑티켓 사업을 추진
- 주관 : 거창국제연극제 사랑티켓 추진위원회
- 기간 : 2002. 8.1 -8.15
- 지원액 : 22,934,000원 (거창군도 22,934,000원을 지원) 1:1 매칭펀드 시스템 적용, 지원
- 티켓 운영 현황 (단위 : 매)

구 분	발행수량	판매수량	회수수량	비 고
10,000원권	30,000	11,700	5,929	(일반용/관객 5,000원 구입)
5,000원권	30,000	4,527	2,661	(학생용/관객 2,000원 구입)
100,000원권	1,000	103	103	(일반용/관객 50,000원 구입)
50,000원권	1,000	103	103	(학생용/관객 20,000원 구입)
계	62,000	16,433	8,796	

(바) 사랑티켓 사업 개선

- 사랑티켓 회원제 운영
 - 개요 : 국민카드사와의 제휴로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제 추진
 - 주요 내용 : 국민카드사와의 계약에 의거 회원신용카드사용금액의 0.2%를 받아 이중 0.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 나머지 0.1%는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
 - 계약 체결 : 2002. 2.27
 - 회원수 : 97,000명(2002년 12월 현재)
- 사랑티켓 온라인 판매 개시
 - 개요 : 사랑티켓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던 사랑티켓을 온라인으로도 판매 시작
 - 판매 수량 : 1,085매(8,000원권(120매)/12,000원권(714매)/20,000원권(251매))
- 사랑티켓 인터넷 공연 예매 시범실시
 - 개요:사랑티켓 인터넷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사랑티켓 대상 작품에 대하여 직접 공연예매 실시

- 대상작품 :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극단유), 수업,세자매(연희단거리패), 광해유감(극단물리),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가네샤 프로덕션)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학전블루 대관공연 작품
- 판매 수량 : 백설공주를 사랑한난장이(845매), 세자매(24매),수업(20매),광해유감(14매),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8매)
- 기간 : 2002. 10 -12월
- 사랑티켓 정보센터 구축
 - 개요 : 사랑티켓 회원과 일반 공연 관객들에게 공연정보 제공 및 각종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랑티켓 정보센터 구축,운영 개시
 - 위치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정문 옆
 - 예산 : 3,700만원(국민카드사 예산 집행)
- 사랑티켓 평가사업 추진
 - 개요 : 사랑티켓 사업의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객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외부 연구단체에 관객개발사업 연구 용역의뢰,추진 개시
 - 대상 : 한국문화정책개발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연구기간 : 2002.12 ~ 2003.4
 - 예산 : 28,000,000원
- 사랑티켓 통합이미지(CI) 개발
 - 개요:사랑티켓사업의 이미지개선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랑티켓 통합이미지개발
 - 개발기간 : 2002.11 -2002.12
 - 예산 : 9,636,000원

(3) 관객개발지원사업 자체 평가

- 관객개발(사랑티켓)사업의 개선을 통해 공연예술 관객의 편의를 크게 증대하였다.
 - 인터넷 사랑티켓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사랑티켓을 사기 위해서는 대학로까지 나와야만 했던 관객의 불편을 해소, 온라인 상에서 사랑티켓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사랑티켓 인터넷 예매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랑티켓’을 통한 공연예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객의 편의를 크게 증대시켰다.
- 사랑티켓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그 동안의 관객개발사업의 성과 분석과 함께 향후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연구기한 : 2003년 4월초), 사랑티켓 통합이미지(CI)개발을 통해 2003년도부터는 새롭게 개발된 사랑티켓 도안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랑티켓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카드사와의 제휴로 사랑티켓사업 회원제 운영을 시작, 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0.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으로 있어 문예진흥기금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 2001년도 지역사랑티켓 시범실시(4개 지역)를 바탕으로 2002년도에는 6개 시.도로 지역사랑티켓 추진 지역이 확대됨과 아울러 전국연극제, 무용제 사랑티켓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바) 찾아가는 예술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찾아가는 예술지원/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사업 지원
---------------------	----------------------------

(1) 사업개요

문화예술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국민들에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정화된 예술 발표 공간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거행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전국 각지의 박물관·미술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3)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자체 평가

○ 상대적으로 문학의 보급 및 활용이 크게 위축된 지방에서의 문학 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에게는 문학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문학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 중심의 문학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방문단과 중앙문단 및 지방문단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함.

○ 지원된 사업들은 순회 강연이나 문학 기행 등을 통하여 창작을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고 독자와 창작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연출함으로써 현장에 참여한 지역민들에게 생생한 문학적 체험을 안겨 주었고 나아가 새로운 문학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함.

○ 문학관 지원의 경우, 지역 문학관이 해당 지역 문학행사 및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됨.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이 분야 평가대상 사업 중 하나는 문학자료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부족한 우리 문화 풍토에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공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잘 관리하고 또 그것들의 가치를 일반인들이 분유할 수 있게 하였다. 점에서 이번 전시회의 의미는 각별하다. 일반인들의 낮은 참여도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앞으로의 숙제이다. 그러한 방안의 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혹은 그에 선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확보와 관리일 것이다.<강웅식(문학)>

(나)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자체 평가

○ 일반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에 있어서 중소도시보다는 도서벽지나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문화예술에의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을 찾아가는 사업의 기본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교통편의 미비와 같이 수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나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칫 주체단체의 연례적인 집안행사로 그치기 쉬운 점 등의 유의사항이 있음.

○ 미술순회전시의 경우 작품의 운반에 따른 파손의 염려, 야외전시의 경우 일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수해로 인한 전시 취소 등의 예상치 못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였음. 또한 면단위 주민들에게는 미술전시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었던 바, 지역민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함.

○ 그동안의 수도권(도시) 중심적이었던 문화예술활동의 현실속에서 “평생 이런거 구경해 본 적 없다”는 노년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함.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지역의 성격과 해당 사업 개념의 동일성이 중요하다. ‘왜, 어떻게’라는 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심의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 시에는 기여도와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분석이 보다 중요하게 채점되어야 할 것이다.<전승보(미술)>

○ 문화예술의 혜택이 적은 소외된 지역이나 대상을 찾아 고른 문화혜택을 주는 행사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대체로 이미 알려진 장소가 아닌 점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홍보와 대중적인 호감과 만족도를 고려 해야 한다. 미술의 경우 이런 전시일수록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기획이 설정되기도 하는데 특히 지방의 문화불모지에서 갑자기 행해질 실험적인 내용의 전시가 얼마만큼의 현지 수용자의 이해와 만족도를 받을지를 미리 고려해서 기획해야 할 것이다.<유현미(미술)>

○ 미술영역에서 이 분야는 비교적 소외된 지역 전시공간과 관객저변을 확장하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창의적 지원이나 다원적 지원, 심지어 참여하는 예술지원과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지원심사와 평가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전시공간의 확장의 문제는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와도 연관된다. 오프라인의 전시공간 확산이 미술문화의 지역적 전달과 소통에 필수적 인가도 꽤 의문의 여지가 있다.<김현도(미술)>

(다)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 각 장르별 지원대상사업이 적절하게 완료되었으나,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이 분야 지원유형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됨.

○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시 기획된 사업내용(공연일정 및 장소)과 실제 사업 내용 간에 차이가 많아 현장 평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이는 신청단체에서 지원신청 시 확정되지 않은 사업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실제 사업 수행 시 공연일정 및 장소를 빈번하게 변경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현장평가 일정 수립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또한 지원단체의 사업 역시 규정된 행사 회수를 채우는 식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현장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회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사회자나 혹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휘자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연주자들의 친근하고 자연스런 매너도 중요하다.<이석렬(음악)>

○ 전국 순회공연 등과 같이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공연들은 사실 기획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 문제가 많았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공연이 축소되거나 취소, 혹은 변경되는 등 당황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성의 없는 공연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외되는 관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책임한 기획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선 지원 후 지급제를 전형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김은양(음악)>

○ ‘문화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수행에 가장 필요한 사업. 지방 문화회관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위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 방문처를 참가 가능인원이나 음악회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세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으며, 문화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하고 쉬운 작품들을 진흥원 차원에서 목록화하고 이를 음악가들에게 위촉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기능이 아니라 기획·유통기능이 필요하여 특히 연주되는 작품들에 어떤 정신과 문화가 배어있는지를 재미있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가 혹은 코디네이터 혹은 음악교육가가 음악가들과 ‘함께 다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를 예로 보면 그 나라의 많은 미술관에는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가가 배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중앙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놓고 사안 별로 파견시키는 방안을 시험 가동해보는 것을 제안하며, 문화란 경험제, 즉 경험해봐야 좋은지를 아는 재화이므로 문화국가 건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 문화교육.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단위 학교를 찾아가는 행사를 집중 지원하여 문화를 교육과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본 사업항목은 문예진흥원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문승현(음악)>

○ 중, 고등학생들 및 일반인들의 무용접촉 기획의 확대로서 바람직하며 이러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멀게만 느껴지는 공연예술을 공감할 수 있다고 느껴지며 이 분야의 지원금을 증대하였으면 한다.<손관중(무용)>

○ 문화적 소외지역이며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 부재 지역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이 공연사업은 문화예술의 단순한 경험 이상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단독 공연보다는 선정지역에 대한 지역적 전래 행사와 맞물린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안병주(무용)>

○ (평가대상사업이) 신규 사업보다 계속 시행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관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도출된 부문으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계획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진 행사들이 특히 많았다. 주최측에 따라 공연의 질과 내용에서 편차가 크게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문은 무용 대중화와 문화 차별 지역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란 성과가 돋보이는 사업이란 점에서 향

후 시행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지원금 배분에서도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부문이다.<장광렬(무용)>

○ 모 극단의 사업은 마당극 단체의 노련미를 확인해준 자리였으며, 아예 한 지역(경기도 남양주)에 터를 잡고 그곳을 무대로 지역문화를 꽃피우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따라서 이런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정재왕(연극)>

○ 행사가 훌륭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 장소와 때가 지나는 메리트들 속에 숨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거나 보완하지 못한 채 실천하려 한 사업은 결코 길항 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허순자(연극)>

○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신생 사업인 경우가 허다했다. 그 만큼 평가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결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요식적인 사업들을 가려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은, 대상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 사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안치운(연극)>

(라)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자체 평가

○ 지역 주민의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전국 각지의 박물관 등 지역 문화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함.

○ 순회행사의 성격상 지원신청 전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지원 결정이 난 후 실제 섭외 과정에서 순회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 부실 우려와 함께 현장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찾아가는 예술지원’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당 지원액을 늘리고, 지자체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예술회관 등과 함께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행사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찾아가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예술단체나 사설 또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문화기획 단체들이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내용은 대개 알찼다. 그러나 많은 회차의 행사진행으로 인해 참여단체 섭외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다.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겠지만 동호인 모임이나 질 낮은 아마추어들의 공연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 오가는 지하철역이나 수목원 등 자연휴양림에서 뜻밖에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서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 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박 찬(문화일반)>

○ 사람 많은 지하철에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과 흘러간 가요 리듬이 울려 퍼졌고, 휴일 공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예술품 공작을 하면서 가족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을 찾아가는 이런 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승하(문화일반)>

○ 이러한 유형의 예술행위는, 예술의 향수대상이 필연적이라고 예상되는 곳에 예술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예술 고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데, (평가대상사업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고 사료되지만, 행사의 목적과 방법론이 서로 모순되어, 지원의 원래 목적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오히려 행사의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몇 년간의 문예진흥원 등의 지원에 힘입어, 행사의 가치가 인정되고 체계가 섰다면, 재정적인 면에서, 각자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유관단체를 설득하여, 자율적인 운영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 후, 진흥원의 지원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정순모(문화일반)>

사) 참여하는 예술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사업지원
---------------------	---------------------------

(1) 사업개요

아동·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 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 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 애호가를 육성함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고 생활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문화 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3)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지원 사업 문학부문 자체 평가

- 일상 속에서 문학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쉬운 강좌, 백일장, 작품낭송, 창작교실 또는 이들의 복합행사 사업에 주로 지원되어 문학의 생활화를 도모함.
- 각 사업별로 갈수록 그 내용이 세분화되고 진행방법이 다채로워져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킴과 아울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강좌 및 백일장 행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창작의욕 고취 및 문학적 감수성 고양과 이를 통한 예비 작가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서순화에도 일조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지역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상호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대개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획되는 다양한 형태의 백일장이 사업 내용의 중심을 이루었다. 대체로 운영과 진행 면에서 무리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태도도 매우 진지했다. 각 대학에서 문예특기생 선발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공신력이 있는 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고등부 참가자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중등부 학생들의 참가를 촉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다수의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고 또 청소년들이 정신 문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강웅식(문학))

(나)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미술 부문 자체 평가

- 미술강좌나 청소년대상 실기지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은 수용자들의 물질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산책정에 많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용자층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최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수용자의 대상이 특정인으로 제한되면 곤란하다. 몇 몇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기보다는 제한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지적될 만하다. 지원 성격상 참여비를 필요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문제이다.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집중 지원했으면 한다.<전승보(미술)>

○ 대중의 문화예술의 관심고조를 위해 (찾아가는 예술지원)과 유사한 맥락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로 보아지며 대체로 수용자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차츰 중요도를 더 높게 잡아 더욱 개발 시킬 필요성이 있다. 미래의 문화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겨냥한 기획과 대중을 자연스럽게 미술관으로 유도하는 가족중심의 기획이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유현미(미술)>

○ 주로 이 분야는 미술관 현장학습이나 미술강좌 등의 학예기능의 보완과 관련된 지원사업으로서 매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외형적으로 미술영역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 팽창을 학예적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분야의 지원사업은 미술영역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다각적인 수준제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현도(미술)>

(다)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미래의 문화예술 향수층 육성 및 일반인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찾아가는 예술지원」, 「참여하는 예술지원」과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간의 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지원유형 구분 시 매우 곤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지원심의 대상 사업 및 지방 이관 사업에 대한 기준이 단위사업 편제 개편 시(2002년도) 애매하게 변하여 지원신청서 접수 시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이에 대한 진흥원 차원의 종합적인 정리 및 조정이 필요함.

○ 무용분야 지원금액 조정현황(1건) : 국립중앙극장예술진흥회(대표:김규문)의 '2002 전국 초중고교 무용지도교사 연수'사업이 지원금 지급계획 수립 전인 1.7~1.19에 시행되어 8,163,560원을 사용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바, 지원예정액인 10,000,000원을 지원하지 않고, 8,163,560원을 지원함.

※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성과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미흡했던 사업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원받은 공연단체의 경우, 취지와는 상관없이 연주자들의 발표회 정도의 수준에 그치거나 가족공연과 같은 인상이 짙어 기획의도와 거리가 먼 공연이 많았다.<김은양(음악)>

○ 전반적으로 충실한 내용의 공연들이 펼쳐졌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는 전문 음악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원되곤 한다. 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예술적 차원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본다. 기존의 행사적 특성과 틀은 어쩔 수 없지만 문예진흥 지원금을 받은 만큼 예술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이석렬(음악)>

○ 사업항목이 '찾아가는' 곳이 주로 문화 낙후지역이고 이런 곳을 방문한다면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찾아가는...>사업유형과 유사하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행해지는 <참여하는...>의 경우, 주로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런 프로그램은 "문화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므로 위의 <찾아가는...>과 통합시켜 <찾아가는...> 행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완결된 예술작품을 낙후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도 그 자체로 좋으나, 이런 공연의 전후에는 반드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항목의 취지에 맞다.<문승현(음악)>

○ 이 사업은 서울지역보다는 지방위주로 가졌으면 한다. 대체로 사업의 행사 시기가 하계 방학 중이라서 워크샵, 특강 등이 서울 위주로 이루어져 겹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지방 무용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손관중(무용)>

○ 평가 대상 사업 중 시행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운영 등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던 부문이다. 강습료를 받는 강습회나 연수회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같은 관행이 무시되고 있다. 심의 대상 사업 중에는 3개 무용 장르의 비중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르 쪽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면서 주최측의 이해관계를 계산한 운영 등이 노골적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향후 연수회나 강습회 등에 대한 지원심의 과정이 더욱 까다로와질 필요성이 있으며 예전처럼 강습비를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장광열(무용)>

○ 서로 다른 입장과 예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업들로서 다양성이 주목되는 단위사업이다. 연극교사들의 연수결과로 올린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성실하고도 모범적인 지역연극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행사들은 지원의 의미를 빛내주었다.<허순자(연극)>

○ 연극 관객의 부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의견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연극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극, 청소년극 중에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장기 공연되는 작품은 흔치 않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꾸준히 올리는 극단이 생겨 브랜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여러 페스티벌이 있는데, 아동/청소년 극도 그런 규모를 갖춘 페스티벌을 올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청소년 연극계의 경우도, 좀더 대중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학교들만의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안타깝다.<우현주(연극)>

○ 이 사업은 연수사업,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단위 단체들이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너그러운 편이다. 지원의 대상으로 삼은 만큼 보다 면밀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안치운(연극)>

○ 어린이와 청소년 페스티벌은 미래의 연극 관객을 개발하는 발판이 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다년간 지원한 뒤에 그 결과를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순항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우선할 때다.<정재왈(연극)>

(라)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자체 평가

○ 문화일반분야 참여하는 예술지원 사업은 총 122건 423,000,000원이 지원 결정되어 117건 414,000,000원이 지원 완료되었고 5건(9,000,000원)은 지원단체가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되지 못하였음.

○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과 아동,청소년의 예술체험활동과 초중등학교의 예술축제등을 주로 지원하여 일반국민의 예술참여기회를 확산하고 문화의 생활화에 기여하였음.

○ 초중등학교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체 예산이 거의 없이 문예진흥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건수를 줄이는 대신 대상을 엄선하여 자체 예산의 적정액을 확보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액을 상향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야외공간을 활용한 사업 등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예술지원’사업과의 변별성이 뚜렷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신청사업을 본 유형으로 일원화한 것은 사업 분류상 앞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부분으로 판단됨.

※ 참여하는 예술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 프로그램은 문화 향수층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일부 유료회원들로 한정된 강좌나 공연 프로그램은 참여도가 극히 저조했다.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1~2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주최측이 불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간 점도 있었다. <참여하는...>라는 사업의 성격에 걸맞는 내용 있는 프로그램 기획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박 찬(문화일반)>

○ 평가한 대상사업들이 행사목적에 매력을 느끼는 관객을, 효과적으로 행사현장에 유인하고, 그 참여자의 내면에 의도된 공동체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공유하면서, 보다 한 단계 높은 정신적 지평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성과를 획득했다고 사료된다. 계획된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보다 질 좋은 참여자들을 창출하고, 모두가 보람 있는 결과물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행사유형과 지역 고유의 이론과 실천방법론적 연구노력, 그리고 축적된 반성적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

첫째, 행사 주최자가, 행사시행 지역의 문화가치를 보다 깊이 탐구하여 이론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구체적인 실천방법론을 가져야 하고, 주어진 행사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참여자 모두의 공동가치가 될 수 있도록, 향수능력에 대응하는 기술적 전략수립 능력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연한 기술적 대응만이, 이러한 예술유형의 목표들, 즉 1차적으로는 참여자의 잠재력 개발, 최종적으로는 그 개발된 잠재력을 참여자 각각의 구체적인 삶에 응용할 의지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보은의 동학이나 안동 제비원의 샤마니즘적 유산과 같이, 한민족 모두의 바람직한 역사적 공동 문화가치가 될 수 있는 행사라면, 자료를 보다 세밀히 발굴하여, 국가차원 또는 범지역 차원의 축제가 되

도록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셋째, 이러한 행사주최자는, 이윤논리 위에서가 아니라, 문화교육 대상층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문화 가치 생산자로서, 여타의 문화교육장치와 중복되지 않는 차별성을 보유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전제되고, 냉정한 자기반성으로, 그 존속이유를 분명히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임.

넷째, 특히 결국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여 몇 개로 만들어, 문예진흥기금이나 문광부, 서울시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단체인 경우, 재정적인 수지현황 및 결과를 공개 하에, 지원요청을 해야 하고, 또한 문예진흥원 역시, 그러한 전제 위에서 지속적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문예진흥원은, 계속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고, 나아가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창의력을 가진 다양한 단체에게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공연목록들이 다른 문화단체의 것과 대동소이한 단체들은, 차별화 전략에 의거하여,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고유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공연장소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청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분담한 후, 지원을 신청하여야, 지금까지 산발적인 일체의 기획행사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될 것으로 보인다.<정순모(문화일반)>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20회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 사업목적 : 전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함으로써 여성 문학인구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문학이 일상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참가부문 : 시, 산문, 아동문학 등 3개 부문
- 참가자격 : 23세 이상(1980.01.01 이전 출생자)의 여성 - 학생 제외

(2) 주요실적

- 행사일시 : 2002.10.23(수) 09:00 ~ 16:30
- 행사장소 : 마로니에 공원 일대, 예술극장 대극장
- 행사협찬 : 동아제약(주)/수석문화재단, (주)라미화장품, 시문학사, 월간문학사, 아동문예사
- 참가자 : 309명
- 심사위원 : 7명(시 2명, 산문 3명, 아동문학 2명)
- 수상자 및 시상내용 : 30명
 - 장 원(3명) : 부문별 각 1명 (상금 70만원, 상패, 상품)
 - 우수상(3명) : 부문별 각 1명 (상금 30만원, 상패, 상품)
 - 장려상(9명) : 부문별 각 3명 (상금 20만원, 상장, 상품)
 - 입 선(15명) : 부문별 각 5명 (상금 없음, 상장, 상품)
- 부대행사 진행 : 문학강연(정진규 시인, “좋은 시에 대하여”)
- 예산집행 내역
 - 예산액 : 5,600,000원
 - 집행액 : 4,700,820원(83.94% 집행)
 - 집행잔액 : 899,180원
 - 수석문화재단 조건부기부금 : 5,100,000원(시상금, 강사사례비)
 - 참가비 수입 : 618,261원

(3) 참여하는 예술기획사업(전국여성백일장) 자체 평가

- 행사장소인 예술극장의 공사로 인하여 행사개최일이 예년에 비하여 늦춰졌고 야외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비교적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282명)보다 참가자 수가 많아(309명) 참여도 면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 협찬사인 동아제약(주)/수석문화재단과 (주)라미화장품이 조건부기부금 외에 행사홍보, 기념품, 행사준비물 등을 통하여 160,000,000여원 규모의 협찬을 제공하였고 행사종료 후에도 20주년기념수상 작모음집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이미지를 확고히 굳혀 나감으로써 단일 문화행사에 대한 기업 협력 사업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음.

○ 20년 전통과 국내 최고의 여성백일장이라는 행사 이미지에 걸맞도록 참가자 수를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행사홍보에 보다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예술전문소극장지원 사업
-----------------------------	-------------------------------

(1) 사업개요

작품수에 비해 부족한 발표공간난을 해소하고, 타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무용작품 발표공간의 마련으로 안정적인 발표무대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씨어터제로(대표:심철종)
- 지원항목 : 대관료 보전비 및 운영비 일부
- 지원기간 : 2002. 3 - 2002. 12(10개월)
- 지원액
 - 무용전문소극장 지원금 : 50,000천원 (5,000천원×10개월)
 - 시설 개보수 지원금 : 10,000천원
- 지원조건
 - 대관일수의 70%이상 무용공연대관
 - 대관료 50% 인하

(3) 사업결과

(가) 대관현황

총가용일수 (3월~12월)	총대관일수	무용	타 장르(연극, 음악 등)
306일	187일 61% (대관일수/ 총가용일수)	140일 75% (무용대관일수/ 총대관일수)	47일 25% (타 장르대관일수/ 총대관일수)

(나) 시설 개보수 : 조명램프 교체 및 신규구입, 객석의자 교체

(4) 예술전문소극장지원 사업 자체 평가

○ 연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난에 허덕이던 무용예술계에 무용전문소극장을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특히 젊은 무용가들에게 공간난을 해소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 상대적으로 높은 민영공연공간의 대관료를 낮춤으로써 대관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 소극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좀더 많은 무용가들이 무용전문소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수요연극강좌
-----------------------------	------------------

(1) 사업개요

연극인과 관객의 만남의 장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관객개발을 통한 연극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 높은 관극문화 창출에 기여함.

(2) 주요실적

- 기간 : 2002. 4. 3 ~ 6. 26 (상반기) , 2002. 9. 4 ~ 11. 27 (하반기)
- 장소 : 아트하우스 3층 상설강좌실 및 공연장
- 회수 : 매주 수요일, 상, 하반기 각 13회 (연26회)
- 시간 : 19:00 ~ 20:20 (80분)
- 수강회원 : 83명(상반기), 73명(하반기)
- 강좌내용

(상반기)

회차	일정	프로그램	강사
1	4. 3	나의 연극이야기	차범석(대한민국예술원회장)
2	4. 10	비극과 인간 (연극 제대로 보기 I - 평론가)	김윤철(평론가, 연극원교수)
3	4. 17	디오니소스는 누구인가? (연극 제대로 보기 II - 연출가)	정진수(연출가, 성균관대학교수)
4	4. 24	공연관람 및 토론 I	
	5. 1	휴강(노동자의 날)	
5	5. 8	원숭이가 만난 친구들 (가족과 함께 하는 연극 I -인형극)	여영숙(현대인형극회전문아카데미원장)
6	5. 15	집에서 하는 연극 놀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연극 II -아동극)	송인현(극단 민들레 대표)
7	5. 22	공연관람 및 토론II	
8	5. 29	연극의 매력? 마력! (연극 제대로 보기III-배우)	유인촌(배우, 유씨어터 대표)
9	6. 5	배우, 어떻게 꾸밀까? (연극과 무대 I-분장)	손진숙(무대분장가)
10	6. 12	무대, 어떻게 만들까? (연극과 무대 II-무대미술)	이태섭(무대디자이너, 용인대학교수)
11	6. 19	'오페라의 유령' 가면 벗기기 (뮤지컬 재미있게 보기 I)	김학민('오페라의 유령' 연출가)
12	6. 26	공연관람 및 토론 III	

(하반기)

회차	날짜	주제	강사1
1	9. 4	연극을 만들면서 (연극 제대로 보기-연출가)	채윤일(연출가)
2	9. 11	'명성황후'이야기 (뮤지컬 재미있게 보기 II)	윤호진(연출가, 극단 에이콤대표)
3	9. 18	공연관람 및 토론IV	
4	9. 25	전통의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연희와 마당극 I)	김명곤(국립극장장)
5	10. 2	몸짓으로 전하는 세계 (언어, 그 너머의 연극 - 마임극)	유진규(마임이스트)
6	10. 9	공연관람 및 토론V	
7	10. 16	(연극 제대로 보기 V - 극작가)	이근삼(극작가)
8	10. 23	제3의 연극을 찾아서	김정옥(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9	10. 30	(연극 제대로 보기III - 배우)	백성희(배우, 대한민국예술원회원)
10	11. 6	얼쭌, 마당극! (전통연희와 마당극 II)	임진택(전주세계소리축제총감독)
11	11. 13	한국 연극의 어제와 오늘 (연극 제대로 보기 IV - 평론가)	유민영(평론가, 단국대교수)
12	11. 20	이윤택의 연극이야기 :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이윤택(연출가, 우리극연구소대표)
13	11. 27	공연관람 및 토론VI	

(3) 수요연극강좌사업 자체 평가

○상반기 수강생의 1/3 정도가 하반기에 다시 수강하였으며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상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음. 또한 시간대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대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주부 등 수강생의 구성이 매우 다양했음. 특히 가족이 함께 강의를 듣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 자발적이면서도 다양한 수강생 층을 형성했다는 것은 연극인구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 주마다 다른 강사진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강좌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강의보다 공연관람 후 연출가, 배우와의 토론 시간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2003년부터는 1회 강좌, 1회 공연관람의 형태로 강좌와 공연 직접체험을 적절하게 연동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금요상설예술강좌
-----------------------------	--------------------

(1) 사업개요

작가와 독자 간 만남의 장을 상설운영함으로써 문학분야의 향수층을 개발하고 문학을 통한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 및 참여하는 예술 지원을 구현함.

(2) 주요실적

- 운영기간 및 강연회수 : 2002.04.12 ~ 2002.12.20, 연 35회 강연
- 강연시간 : 매주 금요일 19:00 ~ 20:40
- 강연장소 : 마로니에미술관 3층 상설예술강좌실
- 강연진행자 : 유중호(4월 ~ 9월), 김화영(10월 ~ 12월)
- 초빙토론자 : 김춘수, 고은 등 70명
- 수강회원수 : 307명(4월 ~ 6월 : 80명, 7월 ~ 9월 : 85명, 10월 ~ 12월 : 142명)
- 수강연인원 : 2,370여명

(3) 예산집행 내역

- 예산액 : 79,400,000원
- 집행액 : 61,142,310원(77% 집행)

- 집행잔액 : 18,257,690원
- 수강료 수입 : 16,856,762원

(4) 금요상설예술강좌사업 자체 평가

○ 2001년까지 진행되었던 작가 1인에 의한 문학적 체험담 위주의 강의 방식에서 탈피, 문학 평단의 중진인사를 진행자로 위촉함과 동시에 주제 중심의 강의로 전환하여 각 과정별 일관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강의의 집중도를 높였다.

○ 진행자 외에 주제와 관련된 작가 및 평론가 등 2인을 초빙하여 토론식 강의를 전개함으로써 활발한 강좌진행을 유도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수강회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학강좌의 새로운 유형을 정착시켰다.

○ 강연내용을 녹취,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수강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설강좌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직접 수강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를 도모하였다.

○ 다만, 2인의 토론자를 초빙함으로써 활발한 강좌진행을 유도하였으나 각자의 충분한 토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토론자 수를 1인으로 줄이고 강의내용의 깊이와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문화의달 행사추진
---------------------	---------------------

(1) 사업개요

10월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기념식 및 문화축제 행사를 펼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오늘날 우리 문화의 모습을 점검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원함

(2) 2002년도 문화의 달 행사 개요

- 일시 : 2002.10.19(토) 15:00
-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및 야외무대
- 주제 : ‘침묵에서 땅울림으로’ - 시와 가락과 춤이 하나되어
- 추진위원 : 차범석(위원장), 김윤수, 박종규, 이성림, 허영자

(3) 추진경과

- 2002.06.27 : 문화의달 행사추진위 구성 및 1차 회의
- 2003.07.03 :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2.07.09 : 제3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2.07.16 : 제4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2.08.19 : 제5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2.08.26 : 제6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2.09.12 : 전국 ‘강강술래 한마당 섭외관련 회의
- 2002.09.17 : 제7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2.10.02 : 제8차 추진위원회 개최
- 2002.10.04 : 행사 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 2002.10.19 : 문화의달 행사 개최

(4) 추진내용

(가) 기념식

- 일시 : 2002.10.19(토) 15:00-16:30

-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참석 : 문화관광부 장관, 예술원 회원 등 1,000여명
- 연출 : 이종훈
- 안무 : 조흥동, 최청자
- 사회 : 김동건, 오정해
- 내용
 - 문화의날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대통령 영상메시지
 - 문화정책 영상자료 상영
 - 문화선언문 낭독 (이강숙)
 - 서훈 및 시상
 - 문화관광부 장관(김성재) 치사
 - 서곡 : 성남시립합창단 ‘경복궁 타령’ / 박용 ‘저녁에’ 낭송
 - 춤과 노래 1 : ‘님의 침묵’ 김용년 작곡, 뿔마루무용단, 김혜경 노래
 - 춤과 노래 2 : ‘봉성화’ 김용년 편곡, 뿔마루무용단, 김법래 노래
 - 거문고와 선비 : 조흥동 춤, 거문고 김영재
 - 시낭송1 : 박정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낭송 / 박지일 ‘타는 목마름으로’ 낭송
백성희 ‘해’ 낭송
 - 공연 : 슬기둥 ‘땅울림’ 연주
 - 소리마당 : 김용우 ‘장타령’
 - 시낭송2 : 문정희, 박상천, 김정환
 - 공연 : 경기도립무용단 ‘비상21’

(나) 축하행사

- 일시 : 2002.10.19(토) 17:00-20:00
- 장소 : 국립극장 야외특설무대
- 참석 : 일반시민 등 1,000여명
- 연출 : 표재순
- 구성 : 국수호
- 사회 : 송승환, 문소리
- 내용
 - 북소리 등등 : 디딤무용단
 - 축창 : 안숙선 소리 /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
 - 강강술래 한마당 1 :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 강강술래 한마당 2 : 제주도, 충청북도
 - 밀양북춤 : 하용부 / 노름마치 연주
 - 소리마당 : 김용우
 - 문화달집태우기
 - * 줄타기, 진도강강술래, 문화소원지 쓰기, 문화그리기 등 부대행사

(5) 문화의달 행사추진사업 자체 평가

○ 기념식 및 축하공연의 경우,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국민의 단합된 힘을 문화예술 창조의 열기로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예년과 달리 일관된 주제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공연의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행사를 관람한 예술인과 일반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 야외 축하행사의 경우, 전국 강강술래 한마당을 통해 전국 예술인이 하나되는 대동제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특히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 “모두곶”은 산골의 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함께 참여하여 흥겨운 강강술래마당을 펼쳤고 처음 시도된 ‘달집태우기’ 행사는 관객과 출연자가 하나되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노래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음. 다만, 10월 말에 개최되는 관계로 날씨가 추워 야외에서 행하는 축하행사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문화의달 행사는 기념식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문화의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영화의날, 연극의 날, 무용의 날을 지정하여 특정 공연장에 입장하는 관객의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념식의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막기 위해 훈장 서훈 등 실제 행사 주최측인 문화관광부와 효과적 업무분담 등이 사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이달의 문화인물지원
---------------------	----------------------

(1) 사업개요

문화예술 각 분야에 걸쳐 우리 문화를 빛낸 월별 문화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조명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를 제공함.

(2) 추진내용

- 책자 및 포스터 발간
 - 기간 : 2002. 01 - 2002. 12
 - 제작부수 : 월별 소책자 25,000부 / 포스터 20,000부
 - 활용 : 전국 초·중·고교 및 공공기관, 예술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
- 현수막 제작 게시
 - 기간 : 2002.01 - 2002. 12
 - 장소 : 마로니에 미술관 전면
- 기념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12개 단체 17개 사업
 - 지원액 : 72,000,000원

(3) 이달의 문화인물지원 사업 자체 평가

- 이달의 문화인물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문화인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인물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하였다.
- 특히 전국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문화인물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발간책자, 포스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등 사업효과가 긍정적이다.
- 사업의 정책적 지원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3년부터 국고 예산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추진키로 함.

※ 월별 문화인물

월별	문화인물	생물연대	주요 약력	분야
1	선암 정약중 (選庵 丁若鍾)	1760 ~ 1801	조선후기 학자, 순교자 / 한국 최초 천주교 신학자(세례명 : 아우구스티노) / 한국 천주교 최초의 교리서 <주교요지(主教要旨)>의 저자	종교
2	수화 김환기 (樹話 金煥基)	1913 ~ 1974	서양화가 / 우리나라 모더니즘의 제1세대 / 한국적 정서를 양식화한 독특한 예술세계를 확립 / 주요작품 : <문도>, <산월> 등	미술
3	월남 이상재 (月南 李商在)	1850 ~ 1927	독립운동가, 시민운동가, 종교인, 언론인 / YMCA에서 민족운동 전개 / 일제치하 해학과 기지로 한국인의 정신 고양	한국학
4	송암 박두성 (松庵 朴斗星)	1888 ~ 1963	시각장애인 교육자 / 한글점자 창안 /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통하여 한글점자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 회담지 「축불」 발행 / 주요서적 점역 보급 : 성경, 명심보감, 의학서적 등	교육
5	박수근 (朴壽根)	1914 ~ 1965	서양화가 / 회백색을 주로 사용하여 단조로우나 한국적 주제를 서민적 감각으로 표현 / 주요작품 : <나무와 두 여인>, <노상>, <농악> 등	미술
6	조지훈 (趙芝薰)	1920 ~ 1968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 / 수필가, 한국학 연구가 / 민속학과 민족운동사에 공헌 / 한국문학사를 최초로 저술 / 주요저서 : <조지훈 시선>, <한국민족운동사> 등	문학
7	매죽현 성삼문 (梅竹軒 成三問)	1418 ~ 1456	조선초기 문신, 사육신, 집현전 학사, 어문학 및 음운학자 / 한중외교관계 전문가 / 한시의 대가, 훈민정음 창제에 공헌9	어문
8	운애 박효관 (雲崖 朴孝管)	? ~ ?	조선 고종 때 가곡의 명인 / 제자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歌曲源流) 편찬 / 노래하는 사람의 귀감이 될 가론(歌論)을 확립 / 문학과 음악발전에 크게 이바지	음악
9	난교 김병연 (蘭巢 金炳淵)	1807 ~ 1863	조선후기 시인, 방랑시인 김삿갓 / 절은 해학과 풍자를 담은 시들을 비롯,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김 / 주요시집 : <김립 시집(金笠 詩集)>	문학
10	보한재 신숙주 (保閑齋 申叔舟)	1417-1475	조선초기 문신, 재상, 어문학자 / 훈민정음해례본,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국조오례의 편찬에 참여 / 한글창제에 공헌 / 주요저서 : <해동제국기>, <보한재집> 등	어문
11	김승호 (金勝鎬)	1917 ~ 1968	1960년대 한국의 대표적 영화배우 / 250여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한국영화 진흥에 공헌 / 대표작 : <마부>, <박서방> 등	영화
12	남창 손진태 (南滄 孫晉泰)	1900 ~ ?	민속학자, 한국사학자 / 조선민속학회를 창립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민속학 연구 / 신민족주의사학을 제창하여 한국사 연구 / 주요저서 :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조선민족사개론> 등	한국학

※기념사업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월	인물	지원대상	지원사업내용	총사업비	신청액	지원액
2월	김환기	환기미술관	탄신기념전	27,800	13,900	10,900
		소계		27,800	13,900	10,900
3월	이상재	YMCA	기념학술대회	2,000	2,000	2,000
			유적지 답사	3,400	1,700	1,700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5,000	5,000	5,000
		소계		10,400	8,700	8,700
6월	조지훈	경산대학교	기념연구	24,000	12,000	8,000
		소계		24,000	12,000	8,000
7월	성삼문	한국어문화	기념학술강연	7,000	3,000	3,000
				7,000	3,000	3,000
9월	김병연	덕정초등학교	김삿갓백일장	5,000	3,000	3,000
		소계		5,000	3,000	3,000
10월	신숙주	한국어문화	기념학술강연	7,000	3,000	3,000
		고령신씨문중 공파총친회	기념출판	20,000	8,000	8,000
		한글학회	기념발표회	2,400	2,400	2,400
			기념발표논문수록	4,000	4,000	4,000
			묘소참배	1,000	1,000	1,000
	소계		34,400	18,400	18,400	
11월	김승호	한국영상 자료원	특별회고전	3,220	3,220	3,000
		온양문화원	기념특별축제	10,000	2,000	2,000
		돌마고등학교	특별회고전	10,000	5,000	5,000
		소계		23,220	10,220	10,000
12월	손진태	한국역사민속 학회	심포지엄	15,000	5,000	5,000
			기념출판	15,000	5,000	5,000
		소계		30,000	10,000	10,000
		총계				72,000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참여하는 예술지원/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1) 사업개요

- 목적 : 주민 친화형 문화환경의 지속적인 창출로 생활과 문화를 접목한 『선진문화환경』 조성
- 주요사업
 - 문화환경가꾸기 전문가 워크숍/문화환경진단/문화환경 홍보 프로젝트/문화환경 정보 및 컨설팅

체계 구축/문화유산 보존관련 국제워크숍

- 사업주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사)내셔널트러스트운동

(2) 주요실적

- 문화환경가꾸기 전문가 워크숍(제1차) : 30,312,000원
 - 일시 및 장소 : 2002.3.21-22 / 대전 유성리베라호텔
 - 참석자 : 전국 문화환경전문가, 시도 공무원 및 관련단체 관계자 70명
 - 내용 : 21세기 선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비전 및 과제, 대안발굴 모색
- 문화환경가꾸기 전문가 워크숍(제2차) : 32,000,000원
 - 일시 및 장소 : 2002.11.28-29 / 안면도 롯데 오션캐슬
 - 참석자 : 전국 문화환경전문가, 시도 공무원 및 관련단체 관계자 60명
 - 내용 : 2002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실적, 평가 토론
- 문화환경진단 : 60,000,000원
 - 사업기간 : 2002. 6.20-12.31
 - 내용 : 위원회 운영, 진단대상 선정, 지표개발 및 현장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등
- 문화환경 홍보프로젝트 : 100,000,000원
 - 사업기간 : 2002.11.13-12.20
 - 내용 : 홍보팸플렛, 홍보 CD-ROM, 홍보 비디오 제작 등
- 문화환경 정보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35,000,000원
 - 사업기간 : 2002.10.16-12.15
 - 내용:문화환경가꾸기 홈페이지구축, 사례 DB구축, 홍보물 VOD서비스, 컨설팅프로그램개발 등
- 문화유산 보존관련 국제워크숍 : 15,000,000원
 - 기간 및 장소 : 2002.10.1-12.2 / 한국관광공사 상영관 외
 - 주관 : (사)내셔널트러스트운동
 - 내용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일본, 스코틀랜드 사례 등)
- 기타(2002문화의달 행사 지원) : 15,000,000원

(3) 문화환경가꾸기사업 자체 평가

-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은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아 21세기 선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인식의 확산을 위해 문화환경진단, 홍보프로젝트 추진 등 문화환경가꾸기 방향 정립에 기여함.
-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추진의 원년으로서 전문가 중심의 워크숍과 홍보,교육을 위한 매체개발 등에 주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인식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따라서 본 사업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2003년도 추진예산이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미반영되어 향후 국고 반영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참고)2002년도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실적보고

1. 사업명 : 『문화환경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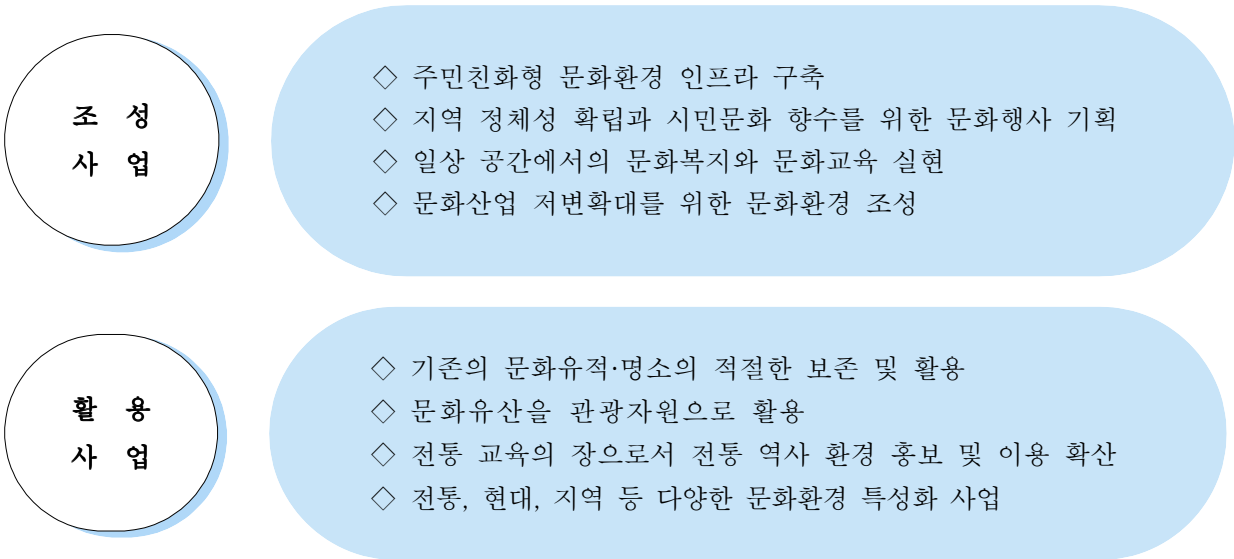
2.. 사업의 기획 의도

- 문화관광부 정책자문기구인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
- '91년부터 추진해 온 단기 『문화예술의 해』 사업을 2002년부터는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주요정책과제로 기획.

3. 사업의 목적 및 추진형태

- 본 사업은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에서 문화의 창달과 향수 및 체험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
- 주민에 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환경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추진

4. 『문화환경 가꾸기』 주요사업



5. 2002년 『문화환경가꾸기』사업 실적

- 문화환경 가꾸기 Work Shop 개최
 - 사업목적 : 전국의 문화환경 전문가, 시·도 관련 공무원 및 단체가 참여하여 21세기 선진문화환경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 사업실적
 - 1차 워크샵(2002. 3. 21 ~ 3. 22(1박2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 2차 워크샵(2002. 11. 28 ~ 11. 29(1박2일), 충남 안면도 롯데오션캐슬 리조트)
 - 결과물 : 1, 2차 워크숍 보고서 및 녹취록
- 문화환경 홍보 프로젝트
 - 사업목적 : 문화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의 교육 및 홍보
 - 사업실적
 - 문화환경가꾸기 교육/홍보용 비디오, CD-ROM, 팸플렛 제작
 - 사업기간 : 2002. 11. 13 ~ 2002. 12. 20(40일간)
 - 사업자 : 한국영상프로덕션, (주)친구 컨소시엄
 - 결과물 : 비디오, CD-ROM, 팸플렛 각 1,000개(부) 제작
- 문화환경가꾸기 홈페이지 구축
 - 사업목적 :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보 축적과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 사업실적
 - 웹서비스 구성형식으로 PHP 방식으로 제작
 - 사업기간 : 2002. 10. 16 ~ 2002. 12. 15.
 - 사업자 : (주)디자인 메이드
 - 결과물 : 홈페이지주소, culture.kctpi.re.kr

○ 문화환경진단 사업

- 사업목적 : 현재 문화환경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각계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보다 나은 문화환경을 가꾸기 위한 사업
- 사업실적 :
 - 경기문화예술회관, 안동 하회마을, 경주 불국사, 대전중구 문화의 거리, 대전 뿌리공원, 대전 신채호 생가 등의 진단을 통한 『2002 문화환경진단』 보고서 생산
 - 사업기간 : 2002. 6. 20. ~ 2002. 12. 31.
 - 사업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결과물 : 보고서 600부 인쇄(국문 180면(안), 칼라사진, 고급용지)

<표> 2002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실적 요약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계약금액	제작내용	개발기간
홍보프로젝트	한국영상(주) 컨소시움	78,500	각 1,000개 (비디오 25분, 팸플렛 40면, 4도 CD-ROM 600MB, 1시간 검색)	'02.11.13 ~ 12.22
홈페이지	(주)디자인메이드	28,000	웹서비스	'02.10.16 ~ 12.15
진단보고서	자체발간	4,500	600부(180면, 사진)	
합 계		111,000		

※ 홍보프로젝트는 컨소시움 및 자료공유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 제고

6 . 사업별 기획의도 및 활용방안

○ 홍보프로젝트의 기획의도

-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환경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의 정립과 확산, 특히 지자체 및 일반시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
- 문화관광부의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은 이러한 인식의 제고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환경가꾸기가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임.
- 문화환경가꾸기 사업 첫째는 이러한 인식제고, 시범사업 등에 초점을 두었음.
- 특히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 홍보를 통하여 문화환경가꾸기 참여 유도

○ 홍보프로젝트의 내용 및 활용

- 전체적인 방향의 통일성은 유지하면서도, 홍보매체의 특성을 살려 콘텐츠 구성과 시각적 효과를 달리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기획
 - ① 비디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련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홍보
 - ② 팸플렛 : 일반 국민대상의 문화환경 중요성, 문화환경가꾸기 사업별 소개
(공공기관, 문화기반시설 등에 비치)
 - ③ CD-ROM :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홍보·정보 제공
- 대상별로 발송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비디오는 문화관련 교육시 활용토록 추진
- 향후 문화환경에 대한 언론 홍보 추진

○ 문화환경가꾸기 홈페이지 기획의도

- 문화환경가꾸기 홈페이지는 문화환경가꾸기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문화환경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축적·교류, 지속적이고 상설적인 컨설팅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환경가꾸기

- 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
- 향후 지속적으로 DB를 확충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컨설팅과 매개역할이 가능하도록 추진

○ 문화환경진단보고서

- 2002년 시범 문화환경진단(4개지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 대상별 문화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개선에 활용토록 함
- 시범진단결과를 평가하여 진단사업추진체계의 개선, 진단지표의 개선방안 제시
- 2003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진단 추진 예정

아) 예술자료, 정보보급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자료, 정보보급지원/예술자료정보보급 기금신청사업
-----------------------------	------------------------------

(1) 사업개요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정보화 및 보급, 기 개발(발간)된 문화예술 콘텐츠(문헌·시청각자료 등)의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예술자료정보보급 기금신청사업 자체 평가

(가) 예술자료정보보급 기금신청사업 문학부문 자체 평가

○ 문학분야에 있어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에서 이루어진 웹진 발간 사업과 문학컨텐츠의 개발·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 심의시에 향수자 입장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측정하고 아울러 결과물의 지속 활용 및 개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지원 효과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문학정본 확정 사업이나 한국 소설 인물사전 편찬 사업 등 절실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사업은 공공기금이 지원해야 할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원유형에 있어서는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예술자료정보보급 기금신청사업 미술부문 자체 평가

○ 대부분의 사업이 연중 지속 사업임에 따라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및 중간 결과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원대상 사업 중 온라인 전시는, 미술분야의 의사소통의 경로가 화랑이나 미술관 전시에만 치우쳐있던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폐쇄적인 매체를 일반대중을 향한 쌍방향 소통의 매체로 전환시키는 시도에 있으며 향후 미술분야 콘텐츠의 보급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술자료정보보급 기금신청사업 기타부문 자체 평가

○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음.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예술정보화 보급 등 관련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건수 증액이 필요하다.

자)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의보존,조사연구지원/예술보존조사연구 기금신청사업 지원
---------------------	---------------------------------

(1) 사업개요

소중한 예술 유산과 각종 예술 자료의 구축 및 기록 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활동,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예술보존조사연구 기금신청사업 자체 평가

○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문학인이 6인에 이르는 시간적 계기에 맞추어 정지용, 채만식, 나도향 등의 문학세계를 집중조명하고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세미나 행사 4건이 지원됨으로써 문학적 추세의 흐름에 부응하는 사업효과를 달성하였음.

○ 분야별 주요 문학단체의 연례 세미나 및 심포지움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문학인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문단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함. 문단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각 단체활동이 당면한 과제 및 발전방향의 제시가 주된 의제로 다루어졌고, 일반인과 지역 문인 등 비회원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 지원대상 가운데 한국문인협회가 발간한 「문단유사」는 협회 40년의 정사를 뒷받침하는 현장 자료를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증견에서 원로까지 문인 109명이 필자로 참여하여 문인과 문단, 동인과 문예지에 관한 크고 작은 비화를 소개함으로써 한국문단의 귀중한 자료를 생성하였고 문단 내외를 통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바, 동 지원유형의 본보기가 됨.

○ 미술분야의 학술대회 행사 및 연구 성과물의 발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존가치 있는 자료를 집대성하고 참신한 연구 지식을 발굴하여 미술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술 분야에 있어서 지속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미술분야 발간사업의 경우 실질적 사업추진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진일정의 조정 및 추진과정의 검토가 요구됨.

○ 문화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를 위한 세미나, 심포지움, 평론집 발간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예술 창작 및 활동의 이론적 토대와 다양한 예술현상에 대한 자료 정리 및 보존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일부 발간사업의 경우 세미나·심포지움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이 분야 예산 증액이 요구됨.

○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완료하였음. 책자 발간 사업의 경우 내용, 권수, 시기 등이 당초 계획과 달라지는 점이 많아 지원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예술보존조사연구 기금신청사업 외부 평가위원 평가

○ 문학 분야의 경우 이 유형의 지원 사업은 대개 작고문인들의 문학세계와 관련한 세미나가 주종을 이루었다. 의욕적인 소장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것처럼 세미나가 주종을 이루는 사업도 더욱 활발히 펼쳐져야 하겠으나 그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고 판단된다. 특히 ‘작고문인’들의 1차 텍스트를 발굴하고 보완(가령 섬세한 주석 작업 등)하여 이를 출간하는 방향의 사업도 기획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한 형편이라 하겠다.<강웅식(문학)>

○ 세미나가 열린 장소나 시간 차원에서 볼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나 소책자 등도 만들어져 세미나에 오지 않은 회원들이나 음악애호가들에게도 배송되어야 한다.<이석렬(음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 지원/우수도서보급사업
---------------------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우수예술도서보급사업
- 사업목적 : 문화예술도서 중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공공도서관 등 전국의 문화 거점공간에 배포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아울러 작가-출판사-문화공간-향수자를 연계하며 창작 및 향수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도함.
- 대상도서 : 2001.09.01 ~ 2002.08.31의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단행본 문학·예술 도서
- 선정분야
 - 문학도서 : 시·시조, 소설, 문학평론, 희곡, 아동문학, 수필
 - 예술도서 :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예술일반
- 보급종수 : 230종(문학도서 190종, 예술도서 40종)
- 선정방법 :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2) 주요실적

- 도서선정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02.08.19 ~ 09.18
 - 신청 종수 : 728종(문학도서 555종, 예술도서 173종)
- 도서선정 심의 (심의위원 20명)
 - 1차 심의 : 2002.10.26, 본심 대상도서 333종 선정(문학도서 264종, 예술도서 69종)
 - 2차 심의 : 2002.10.28 ~ 11.16, 보급대상도서 230종 및 후보도서 71종 선정
 - 3차 심의 : 2002.11.23, 최종 보급대상도서 230종 및 후보도서 67종 확정
- 선정도서 보급처
 - 문학도서 : 새마을문고 중 우수 시범문고 140개처
 - 예술도서 : 공공도서관 423개처, 중국 연변 민족문화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

※ 국고사업과의 연계 : 예술도서 보급처 425개처에 대한 문학도서의 보급은 국고에서 추진

(3) 우수도서보급사업 자체 평가

- 문학도서만을 대상으로 하던 종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술분야의 도서를 선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파급시켰다.
- 출판사로부터의 도서 신청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선정된 도서의 구입 및 보급은 입찰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추진한 결과 기존의 거래가격으로 구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출판사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가 미미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 지원 / 문화예술발간
-----------------------------	-------------------------

(1) 사업개요

- 1974년 5월 『문예진흥』으로 창간한 이래 현재까지 무수한 변화를 거치면서 발간 유지되어 온 본지는 2002년 월 1회, 2천5백부를 발간하여 판매와 기증을 병행하였음.
- 발간체제
 - 간 별 : 월간 / . 판 형 : 4 x 6 배판
 - 표 지 : 원색 / . 제 본 : 무선제본
 - 부 수 : 매회 2,500부 내외

(2) 주요실적

- 2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중국인이 몰려온다>, 164면
- 3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아동 문화예술의 현상과 방향>, 164면
- 4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현상과 대안>, 164면
- 5월호 발간 주요내용 : 연속집중기획 <월드컵과 문화예술/문화예술 축제>, 168면
- 6월호 발간 주요내용 : 연속집중기획 <월드컵과 문화예술/월드컵 개최이후 문화환경 조성>, 164면
- 7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지방자치제와 문화예술>, 160면
- 8월호 발간 주요내용 : 연속집중기획 <월드컵과 문화예술/월드컵응원을 통해 본 우리의 축제문화>, 148면
- 9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관광개발 어떻게 해야하나>, 164면
- 10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한중 문화교류>, 144면
- 11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순수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172면
- 12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무역개방시대의 문화예술>, 부록 <문화예술관련사이트>, 156면
- 2003년 1월호 발간 주요내용 : 집중기획 <새정부 문화정책>, 부록 <전국문화공간주소록>, 180면

(3) 문화예술발간 사업 자체 평가

○ 월간 『문화예술』 본래의 발간 취지대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계 활동상과 문화정책, 분야별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지로서 꼭 필요한 간행물이 되는 한편, 문화향수자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해 문화예술 저변확대에도 주력하고자 했고, 그 결과 문화예술전문지로는 유일한 국내 최장수 발간물로 자리를 잡았다.

- 문화예술전문지로서 자리를 굳힘에 따라 정기구독자 수가 예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 지원 / 문예연감발간
-----------------------------	-------------------------

(1) 사업개요

○ 문예연감은 1976년 창간 이래 이어져 온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사료집으로서 매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문화예술 각 분야 활동의 총량을 수록하고 있으며, 매년 700부를 발간하여 판매 및 기증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

- 발간체제
 - 판형 : 4x6배판
 - 발행부수 : 700부
 - 발간 면수 : 1,072면
 - 지질 : 표지 아트200g/m², 면지 엠보싱120g/m², 간지-목차 아트120g/m², 화보 : 아트 120g/m², 본문 미색모조80g/m²
 - 발간일시 : 2002년 7월 31일

(2) 주요실적 및 발간내용

- 본문 내용 중 개관은 기존의 6개분야 39개 분과에서 6개분야 44개분과로 확대하여 발간함. (개관 집필자: 문덕수 등 44인, 기획자료 집필자 : 이승하 등 6인)
- 신규로 분야별 총론을 편성하여 한 분야에 대한 1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함.
- 권말부록으로 문화예술 단체 및 공연.전시장의 주소록을 새롭게 편성함
- CD-ROM을 동시 발간함

(3) 문예연감발간사업 자체 평가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개관으로 수록하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해당분야 문화예술 활동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의 정리 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양상의 통계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료를 담아내고 있다.
- 문예연감은 현재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예술 사료집’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 지원 / 한국문화정책개발원지원
---------------------	------------------------------

(1) 사업개요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지원하는 사업

(2) 추진실적

- 총 지원액 : 2,000,000,000원
- 지원내역
 - 연구사업비 : 708,906,000원
 - 정책연구 : 502,872,000원
 - 정책토론회 : 26,900,000원
 - 책자발간 : 44,240,000원
 - 연구자료조사 : 128,594,000원
 - 북한문화조사 : 6,300,000원
 - 인건비 : 833,384,000원
 - 경상비 : 457,710,000원

※ 특이 사항

-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과 통합되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
 - 출범일 : 2002.12.4(법원 등기일)
 - 초대원장 : 정순택

☞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문화관광부의 법인설립허가에 따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기부하는 업무,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정관에 명시(정관 부칙 3조),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업무를 승계하고 있어 이를 인정, 향후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관련한 모든 문예진흥기금사업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과 추진하도록 함.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지원 자체평가

- 문화 부문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지원, 문화관련 각종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함.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의 보존 조사연구 지원 / 문화복지정보지발간지원
---------------------	------------------------------

(1) 사업개요

전국 시.군.구 대상 문화도시 만들기운동의 일환으로 96년도에 창간한 문화정보지 문화도시 문화

복지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

(2) 추진실적

- 총 지원액 : 200,000,000원
- 발간 개요
 - 판형 : 4 x 6배판
 - 면수 : 60면(표지 포함) 내외
 - 부수 : 각 3,000부
 - 발간주기 : 격주간 (총 21호 발간)

(3) 문화복지정보지발간지원 사업 자체평가

○ 문화정보지인 문화도시 문화복지의 발간으로 문화정보의 확산과 함께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복지 정책개발 추진을 유도하였음.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해외소장한국전적자료조사지원
-----------------------------	---------------------------

(1) 사업개요

해외에 유출된 우리 전적 문화재의 종합적인 목록을 조사하여 해외에 유출된 전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소장한국전적조사연구회에서 수행하는 해외소장한국전적자료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내역

- 지원대상 : 해외소장한국전적조사연구회(천혜봉)
 - 영국대영도서관 한국전적자료 조사
 - 기간 ; 2002.4.21 ~ 5.5
 - 조사대상 : 동활자본 31종 93책 등 한국전적 229종 594책
 - 일본대마도 역사민속자료관 한국전적자료 조사
 - 기간 : 2002.9.8 ~ 9.18
 - 조사대상 : 초조대장경 597점 등 한국전적
- 2002년도 예산집행 실적 : 30,000,000원 (예산액 30,000,000원)

(3) 향후 계획

- 동사업은 2003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차) 전통예술의 발표, 전승보급 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전통예술의 발표, 전승보급 지원/전통예술발표전승보급기금신청사업
-----------------------------	------------------------------------

(1) 사업개요

전통예술의 보존·계승 발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3) 전통예술 발표전승보급기금신청사업 자체 평가

- 지원사업 포기 현황(2건) : 직지정보박물관 ‘제2회박물관특별전’(10,000,000원), 김외경 ‘쪽 천 연염색전’(5,000,000원)이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음.
-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나 많은 공연들이 관객 동원에 실패하여 예술창조자지원이라는 의미나 보존·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나 일반인의 전통예술에 대한 향수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 유형의 특성상 전문 예술경영인이 부족하여 사무 행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일부 순회공연은 날씨 및 수해관계로 일정 및 장소의 변경이 빈발하여 사업 및 현장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통예술 발표전승보급기금신청사업 외부 평가위원 평가

- (평가대상)공연의 내용적인 면 등에서 우수했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해당 예술인은 2002년 KBS국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한편 국악계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지만, 몇몇 대회는 운영이라든지 심사 등에서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무척 아쉽다. 이들 전통분야 사업들을 진정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지원이나 대회운영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반해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진일보한 면이 역력하다. 몇몇 지원사업의 경우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케이스이지만, 그 공연의 실제 내용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지나치게 외형적인 수치 등에 의존해서 지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평가대상사업 중 괄목할만한 공연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연들도 있었으며, 어떤 행사는 원래의 체험(강습)형식이 아닌 문제가 있기는 하나, 공연 자체 등에서 성공했다고 보여진다.<윤중강(전통)>
-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의의를 살려 발표가 잘 진행된 편이다. 일부 단체는 다소 충실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나, 대부분 충실한 발표가 되었다.<전경옥(전통)>
- 기획이 돋보였던 사업들과 관객들의 호응도 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사업, 전통예술의 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 등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현경채(전통)>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전통예술발표,전승보급지원/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대한민국국악제, 한국민속예술축제)
---------------------	---

■ 대한민국국악제지원

(1) 사업개요

1981년 시작된 국악계 최대 행사로, 국악의 전 장르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 제공으로 관객들에게 격조 있는 국악감상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지원함.

(2) 주요실적

- 사업명 : 제22회 대한민국국악제
- 일정 : 2002. 6. 15 - 6. 20
- 장소 : 국립국악원 예약당, 광화문시민 열린마당, 종로국악정 등
- 주최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 후원: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 추진내용 : 전통연희마당, 국악관현악축제, 열린국악 등
 - 기념국악세미나 : 20세기 전통민속음악의 전승과 미래전망
 - 전통연희마당 : 봉산탈춤한마당, 줄타기와 판굿, 전통타악축제

- 국악관현악축제 : 창작 관현악무대, 관현악과 민요, 관현악과 국악가요 공연
- 관객과 함께 하는 열린 국악 : 주부들을 위한 국악한마당, 청소년을 위한 국악한마당 등
- 본 공연 : 궁중음악과 창극의 밤, 전통민속음악의 밤, 국악관현악과 민요의 밤 등 공연
- 관람인원 : 20,000명
- 지원액 : 100,000,000원

■ 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

(1) 사업개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보존 계승을 위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도의 행사비, 입상종목 전승보존금, 시연참가팀 출연보조금을 지원함.

(2) 주요실적

- 사업명 :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일정 : 2002. 10. 16(수)- 10. 18(금) (3일간)
-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 잔디구장
- 주최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MBC
- 주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참가단체 : 21개 시도 및 5개 시연팀
- 행사내용 : 전야제, 개회식 및 공개행사, 경연 및 시연, 폐회식, 시상 등

(3) 지원내역

- 주관처 행사비 지원액 : 250,000,000원
- 시연종목 출연팀 보조금 : 29,500,000원
 - 강원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 6,375,000원
 - 충북 전통택견 : 5,187,000원
 - 전남 강강술래 : 5,544,000원
 - 경북 월월이청청 : 6,375,000원
 - 이북5도 북청사자놀이 돈돌놀이 : 6,019,000원
- 입상종목 전승보존금 지원 : 20,500,000원

시상명	훈격	시도	입상종목	전승보존금지원액
종합최우수상	대통령상	전라북도	금과 들소리	3,000,000원
종합우수상	국무총리상	제주도	정의고을 여름들노래	2,500,000원
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강원도	평창 둔전평 농사놀이	각 1,500,000원
		경기도	아방리 줄다리기	
		경상남도	마도 갈방아 소리	
		부산광역시	부산농악	
공로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광주광역시	광주 지산농악	각 1,500,000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인천광역시	인천염뽕 일노래	
	MBC사장상	전라남도	무안 들노래	
장려상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상	충청남도	서산지점놀이	각 1,500,000원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대전광역시	계족산 무제	
총계		12개처		20,500,000원

(3) 전국규모예술 행사지원사업 자체 평가

○ 대한민국국악제 지원

원래 10월 예정이었으나 월드컵 기간에 맞춰 6월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야외공연 시 우천 대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월드컵이 국가적인 축제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바람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과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전통예술 소개 프로그램 등은 외국인에게 국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열린 마당 공연 등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국립국악원에서 진행된 본 공연의 경우 객석이 거의 꽉 차는 등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악계 관련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을 어떻게 증대,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여름 수해로 일부 지역 참가단들이 참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19개 시도 대표 1,185명이 경연에 참가하고 5개 단체 320명이 시연팀으로 출연하여 총 24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사라져가는 각 지역의 민속놀이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시연과 경연을 통해 보존한다는 큰 의의가 있으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던 놀이를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의 계승에 얼마나 중요한 부문인지 생각해 하였다. 이렇게나마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 분야의 전문적인 예술행정인력이 부족하여 이의 확보가 중요하다.

카)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사업지원
-----------------------------	---------------------------------

(1) 사업개요

세대간·계층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3)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자체 평가

(가)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문학부문 자체 평가

○ 지원대상 사업 중 대표적인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발행한 계간지 「숫대문학」에는 장애인 문인들에게 필요한 문학기 소식과 장애인 문학의 현황분석 및 일반문단과의 비교 자료 등을 게재함으로써 문학을 통한 장애인들의 상호 유대 및 일반인들과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였다.

○ 장애인의 개인 작품집 발간 지원은 수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장애인 문인들에게도 큰 격려와 함께 의욕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발간된 작품집을 시설과 병원에 무료 배포함으로써 다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 지원대상 사업 전체가 장애인들에게만 한정되고 있어서 극빈 노동자나 무의탁자, 철거지역민 등 기타 소외 계층을 위한 문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가 일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히려 제약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동화에 필수불가결한 수단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하에 지원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나)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자체 평가

○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개발 육성하며 그들 스스로 완성한 작품을 전시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고,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사업추진의 지속적인 추진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업추진 단체(개인)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건수의 확대 및 건당 지원규모의 증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지원신청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문제는 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사업추진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른 기획자에 의해 지원신청이 이루어진 결과 상호간의 사업규모 및 진행과정의 논의가 충분치 못함에 기인하는 바,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미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문화복지 개념에서 지원 가능한 분야이지만,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은 같은 문화복지지원 항목이라도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난 예술성이 강조된 사안에 집중되었으면 한다.<전승보(미술)>

○ 전반적으로 이 분야의 미술지원사업은 너무 제한적이며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지원은 좀더 확대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작가의 발굴을 유도하는 기획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김현도(미술)>

(다)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자체 평가

○ 장애인 시설 및 소외지역(고아원, 양로원, 교정시설 등)을 방문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보급 및 향수 확대 사업으로서 비교적 적은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력이 매우 뛰어났다. 이와 같은 사업은 많이 지원할 수록 사업의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 및 지원 건수 향상 조정이 요구된다.

○ 단, 연극분야 극단한강 ‘전국 소년보호교육기관 순회공연’사업은 단체 사정에 따른 순회지역 축소로 당초 지원예정액을 조정 지원함.(9,000,000원 -> 6,000,000원)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공연예술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찾아가는...>과 <참여하는...>과 통합시키는 안을 제안.<문승현(음악)>

○ 이 분야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은 청중이 동원 되어 보람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애초 지원서에 청중을 동원할 방법이 어느 정도는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서에는 그 날 청중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명시해야한다. ‘누구를 위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위할 것인가’도 중요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충실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분야로 보인다.<이석렬(음악)>

○ (이 사업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임에도 실제 관객들은 일반인인 경우가 많았다. 출연자들의 경우도 전문 무용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장애인들이 직접 공연장을 찾아 감상하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시도도 결들여질 필요가 있다. 공연 레퍼토리 선정에서도 그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장광열(무용)>

○ 이 사업은 오지, 장애인등과 같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공연단체와 문화복지 시설간의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데 있다. 극단은 형식적으로 공연을 하고, 문화복지 시설은 마지못해 공연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안치운(연극)>

○ (지원대상선정에) 보다 세심한 판단을 해야 하며, 상업적 극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연을 올리는 단체에서도 스타 극단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좋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극단에 혜택을 주고 홍보에도 힘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에 (부분적으로라도) 몸담는 기존의 프로 극단도 장려해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연극이라는 매체의 가치도 함께 높여가야 할 것이다.<우현주(연극)>

(라)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자체 평가

○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행사, 교도소, 고아원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방문하거나 관련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연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음.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예술적 창조성이 요구되기 보다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에 의미가 있으므로 준 전문적 단체라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성과가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지원건수 및 지원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함께하는 문화복지 기금신청 사업 문화일반부문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주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치료 차원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기지촌 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들로 판단된다. 그러나 참여자들보다는 주최측의 열의가 더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배려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성과를 단선적으로 계량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사업의 성격이 복지차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확대 지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박 찬(문화일반)>

○ 어떤 사업은 불가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는 복지차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수요자가 있는 곳에 문화적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장치라고 사료되나 이러한 목적의 지원은 일회적인 문화행사 지원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기에, 인접한 노인병원과 연계되어야,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이며, 다만 지속적으로 실천이 요청되는 사업이기에,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문화지원 차원보다는 국가의료차원에서 다루어야 해결될 사안으로 사료된다.<정순모(문화일반)>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함께 하는 문화복지 지원/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
---------------------	-----------------------------

(1) 사업개요

○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큰 원로문화예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문화예술인으로서 30년 이상 해당 분야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신 분
-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생계가 곤란하신 분

(2) 추진실적

- 2002.01- : 추천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
- 2002.01.25 : 지원심의회 개최 (신규 선정자 : 4명)
- 2002.01.28 : 지원기본계획 수립

(3) 지원 인원 : 60명

분야	문학	미술	사진	음악	건축	전통	연극	무용	연예	영화
명	14	8	7	2	1	7	5	4	8	4

○ 2002년 지원 중단 : 9명

- 김봉룡(문학), 김광수(미술), 이인화, 조동화(전통), 박순조(무용), 현동주, 엄재욱, 이상우(연예) 태길성(영화)

(4) 지원액 : 일인당 연간 720만원(월 60만원)

(5) 함께 하는 문화복지기획지원사업 자체 평가

○ 생활형편이 어렵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원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들의 호응과 지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동 사업 ‘원로 문예인 복지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문학분야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분야에 비교해 많으며, 또한 지원 대상자 사망 시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3명인 음악분야의 경우, 1993년 이후 새로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분야별 지원대상이 고정화되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주기적으로(예를 들면, 5년마다) 전체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여부를 재심사하여 지원 지속 여부 결정 및 분야별 지원대상자수 조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에 비하여 지원 수혜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지원 지속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경제여건 등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 원로대상자 명단

분야	전공	지역	성명	성별	연령
문학14명	시	서울	박정은	남	75
	시	서울	최재형	남	84
	시	인천	랑승만	남	68
	시	경기의왕	이활	남	76
	시	서울	이형기	남	68
	시	서울	김남석	남	85
	시	대전	김대현	남	81
	시,회곡	서울	박재봉 (박일동)	남	68
	소설	제주	최현식	남	76
	소설	전남 나주	승규선(승지행)	남	81
	평론	경기 안양	정귀영	남	84
	평론	경기 군포	김상일	남	75
	회곡	경기 고양	이용찬	남	74
	문학	부산	김봉룡	남	77
미술8명	양화	대구	강운섭	남	81
	양화	경북 김천	백종호 (백낙종)	남	81
	양화	전남 강진	김영렬 (완향)	남	78
	양화	광주	홍진삼	남	61
	양화	서울	배한기	남	68
	양화	경북 경주	조규만 (납청)	남	64
	서예	경남 진해	박을호 (심재)	남	80
	미술	강원 고성	김광수	남	80

사진7명	사진	경기 부천	이형록	남	84
	사진	경기 안양	정철용	남	82
	사진	전북 군산	채형석 (채원석)	남	79
	사진	부산	최민식	남	73
	사진	경북 포항	박원식	남	77
	사진	경남 거창	최길원 (최용호)	남	60
	사진	강원 원주	김명옥	남	81
음악3명	성악	서울	김대진	남	82
	성악	광주	박기석	남	87
	작곡	서울	김효길	남	81
건축1명	설계	서울	송민구	남	81
전통7명	시조	서울	박기옥	남	85
	시조	대전	김복례 (김하정)	여	75
	국악고수	전남 목포	이인동	남	81
	국악고수	서울	신유경 (신금실)	여	75
	국악	경북 경주	김민태	남	83
	국악	서울	조순희	여	72
	전통	전남 화순	조도화	남	87
연극5명	연출	경기 부천	리보라	남	83
	연출	서울	방헌	남	79
	연기	서울	최대용	남	67
	연출	경주	이수일	남	66
	극작	서울	하동열 (하유상)	남	73
무용4명	한국무용	서울	최부돌 (최희선)	여	72
	한국무용	서울	한순옥	여	69
	평론	서울	박용구	남	87
	한국무용	대구	박순조	여	78
연예7명	가수	대구	배경희 (고화성)	남	74
	연주	서울	이상우	남	67
	무용	경기 성남	강윤덕 (강윤복)	여	77
	작곡	대구	이병주 (남국성)	여	80
	연기	서울	박호	남	80
	가수	서울	현동주	남	82
	연주	서울	엄재욱 (엄토미)	남	79
영화4명	감독	서울	김기	남	72
	조명	서울	김강일	남	61
	음악	서울	황해창 (황문평)	남	81
	촬영	서울	태길성	남	72
총 60명					

타) 지역문화활성화지원 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지역문화활성화지원/지역문예진흥지원
---------------------	--------------------

(1) 사업개요

중앙 문예진흥기금을 15개 광역시·도에 직접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연계망을 고유하고 정책적인 보안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을 신장하는 사업

(2) 지원금 배분 및 등급기준

○ 배분기준

기 준 항 목		2000 배분기준	2001 배분기준	2002 배분기준
문예진흥기금 모금실적		30%	30%	30%
문화예술분야 투자예산	투자예산 증가율	30%	-	-
	1인당 투자예산증가율	-	30%	-
	1인당 투자예산액	-	-	20%
문화예술활동 지원실적	지원 건수	20%	20%	-
	지원의 효율성	-	-	20%
지역문예진흥사업 운영 평가치 반영을 통한 인센티브		-	-	20%
인구수		20%	20%	10%
계		100%	100%	100%

- 등급기준 : A급 3억원 (2개처/경기,인천), B급 : 2억7천만원(3개처/부산,광주,제주), C급 2억4천만원(그외 10개처)

(3) 사업운영 개선 추진실적

-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시.도 관계자회의 개최

- 목적 :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과 관련한 시.도의 의견 청취 / 우리원의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역간 협조 체제 강화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 등

- 일시 : 2002. 12.6(금),14:00 ~ 20:00

- 장소 : 문예진흥원 본관 3층 회의실

- 참석

·우리원: 원장,사무총장,지원1,2,3부장,총괄협력팀장,미술관운영팀장,기금개발운영팀장,담당자 등

·문화부 : 문화정책과(최선식)

·시.도 : 시.도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담당자 등 총 24명

- 회의 내용

· 문예진흥기금 사업 관련 우리 원의 협조 요청사항 전달

· 지역문예진흥기금 운영 관련 시.도의 협조 요청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방법 개선 요청(지급절차 간소화 등) /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액의 상향 조정 / 지역문예진흥기금 개선을 위한 진흥원의 행정 지침 요청 등

· 전국문예진흥기금 운영협의회(가칭) 설치(안) 관련 사항

협의회 설치안에 대해 시.도 관계자들 찬성 / 진흥원이 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하여 2003년 초에 후속 모임을 갖도록 함.

· 기타

전국연극제, 무용제 지역 예선대회 참가자격 확인과 시정 요청

- 2002년도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 : 15건, 3,810,000,000원(예산액 3,810,000,000원)

- A급 : 300,000,000원X 2개처 = 600,000,000원 (인천,경기)

- B급 : 270,000,000원X 3개처 = 810,000,000원 (부산,광주,제주)

- C급 : 240,000,000원X10개처 =2,400,000,000원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4) 지역문화활성화기금신청사업 지원 자체 평가

-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15개 시도 관계자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에 대한 지역의 애로 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였고, 향후 동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지역간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2003년도 전국문예진흥기금 운영협의회(가칭)설치 관련 회의를 갖도록 하였음. 향후 동 협의회 설치는 지역문예진흥기금 사업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통일민족문화교류기금신청사업
---------------------	----------------------------

(1) 사업개요

남·북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과 재외동포 대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

- 신청자격 : 국내 및 재외 문화예술단체(개인)
- 지원대상 사업
 - 남북간 민족문화예술교류사업 (전통예술 분야 포함)
 -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각종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사업(각종 공연, 전시, 세미나, 인적교류 사업 등)
 - 남북간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
 -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사업 (전통예술 분야 포함)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예술 사업(공연, 강좌, 출판 등)
 - 재외동포 예술인들의 공연, 교류 등 각종 문화예술 사업
 - 재외동포 예술인의 초청, 파견, 연수, 세미나 등 각종 문화예술 사업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3) 통일민족문화교류기금신청사업 자체평가

○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사업은 현지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급하고 민족정체성을 심어줌과 동시에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의 언어와 문화유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장기적인 문화보급의 자산이 되는 도서, 음반 및 영상, 전통 악기 보급 사업도 성과를 거둠.

○ 남북 관련 사업은 실효성의 문제로 인해 남북 문화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 북한예술 관련 서적 발간 등 국내사업이 대부분이며 실제적인 예술교류사업 지원 실적이 저조. 2002년도에는 남북 관련 사업에 4,200만원 지원됨.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 지원 사업과의 예산 분리를 통해 각 장르별 실제적인 남북간의 교류사업 지원 강화 검토 필요. 2002년도 지원사업 중 민예총의 ‘코리아통일 예술축전’은 남북간 민간교류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의.

○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사업의 경우 현장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성과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성과측정기초자료의 수치를 성실하게 기입할 것이 요청됨. 한편, 계획대비 기업 협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통일민족문화교류기금신청사업 외부 평가위원 평가

○ 현장평가 대상사업의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교포들이 그곳 언어로 창작한 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 정서에 대해 발표자들은 체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호소력 있는 발표를 하였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포들의 ‘한국적 정체성’과 관련한 조사와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종의 숙제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그것이 일회성 행사를 위한, 그 행사의 종료와 함께 관심도 함께 식는 그런 것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업의 지속적 전개에 의지 여부도 평가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강용식(문학)>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통일문학전집 발간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명 : 통일문학전집발간
- 사업목적 : 남북간의 대립적 구도를 해소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문화교류 기반 마련, 문학을 통한 남북 상호 문화적 토양의 이해 및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문학 연구 기초자료 및 역량 축적과 함께 문학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계기 마련
- 사업기간 : 1999년 ~ 2002년
- 발간대상분야 :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 발간대상작품 발표기간 :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 각각에서 발간(발표)된 문학 작품
- 발간형태 : CD-ROM 발간
- 활용방안 : 비매품, 학술연구용 배포 활용

(2) 주요실적(2002년도)

- 수록대상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최종 발간·편집 목록 확정 및 제작 추진
 - 수록작가 : 1,004명(남한 746명, 북한 258명)
 - 수록편수 : 5,382편(남한 4,406편, 북한 976편)
- CD-ROM 발간 계약 체결
 - 제작형태 : CD-ROM
 - 파일형식 : XML 방식(국내 전자책 표준기준 적용)
 - 제작부수 : CD 3,000매
 - 계약업체 : 아이티레디주식회사
 - 계약금액 : 168,300,000원
 - 납품기간 : 2003.2.28
- 남한작품 게재 출판동의 추진
 - 출판동의를 위한 보안인증프로그램 추가 설치
 - 출판동의 확보
- 북한작품 저작권 동의 추진
 - 계약업체 : 대헌서적(대표 김주팔) <북한서적출판전문업체>
 - 계약금액 : 180,000,000원
 - 대상작품 : 북한수록대상 예정작품 979편

(3) 통일문학전집 발간 자체 평가

-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발표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전집을 발간함으로써 문학을 통해 남북간의 단절된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함.
- 문학적으로 북한문학의 현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로서 활용하고 향후 남북문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남북문화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하)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문화예술해외교류 기금신청사업지원

(1) 사업개요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분야의 국제회의 행사의 국내 개최, 해외 참가나 순회 전시 공연, 외국의 우수한 공연예술단체 초청 등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문학·미술·공연예술 단체 및 개인
- 지원대상 사업
 - 국제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회, 워크숍, 연수 및 페스티벌 등의 국내개최(유치) 및 해외참가
 - 국제 교류 전시·공연행사 및 해외 저명 작가 초청 등 인적교류 사업
 - 문학·미술분야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 Program) 참가 사업
 - 해외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현지체류(1개월 이상) 문학·미술창작 국제교류프로그램
- 별도 추진 사업
 - 미술 분야 미국 뉴욕 소재 P.S.1 한국작가 참가
 - 2002년도 지원대상 : 김홍석(2001-2002년도), 김종구(2002-2003년도)

(2) 기금 지원실적 : 부록 참조

※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지원 100,000,000원 포함

- 행사명: 제14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총회 및 2002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 일시 : 2002. 7. 20 ~ 7. 28 (9일간)
- 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등 총14개 극장 및 국제회의실
- 주최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세계본부, 국립중앙극장
- 후원 :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서울특별시, 성균관대학교, 방송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연극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아시테지 일본본부
- 내용 : 제14차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총회, 국제 심포지엄, 2002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워크숍 등 부대행사

(3) 문화예술 해외교류기금신청사업지원 자체평가

○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의 지원대상은 국내사업과는 달리 국제교류의 역량을 확보한 사업들로서 수행된 지원사업은 해당 지원유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 해외기관 및 단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원유형의 성격상, 연도 중반에 지원사업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업 포기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갑작스런 사업 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국제교류분야 일반공모사업이나 예산액은 12억원으로 문화예술계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002년도 지원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 비율은 창의적예술지원이 16%(129억4천만원 신청에 21억원 지원결정)인데 반해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의 경우 12.7%(80억6천만원 신청에 10억3천만원 지원결정)에 불과함. 또한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분야 지원신청액 규모도 2002년도 80억6천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약 20% 증가한 96억7천7백만원으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음.

○ 무용분야의 경우 규모가 큰 축제 성격의 행사 개최 지원이 다수였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단체를 초청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우수한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상당수의 유료 관객을 동원하여 무용인구 확충에 좋은 영향. 한편으로 초청 작품의 수준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극분야의 경우 단체 중심의 회의나 세미나 참가 지원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개별 단체의 해외 공연 지원이 축소된 경향 보임.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교류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개별 단체들의 해외공연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봄. 국제연극제 등의 국제종합예술제의 경우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과 자원봉사자 운용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특한 색깔을 지닌 예술제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행사도 있으나, 우후죽순처럼 각 지역마다 국제연극제를 신설하면서 유럽의 비슷한 단체를 초청하는 등 행사의 차별성이 흐려지는 경향이 엿보임. 독자적인 성격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지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연극의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 아시아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는 장이 되었음. 아동청소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 연극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예술적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축제였음. 국내외 참가자들로부터 체계적인 총회와 훌륭한 축제 조직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2002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에 초청된 공연작품들은 한국과 아시아, 구라파의 아동청소년 연극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선정이었다.

※ 문화예술 해외교류기금신청사업 외부 평가위원 평가

○ 베트남 문인들을 초대하여 우리 문인들과 함께 ‘전쟁과 문학’에 관한 세미나는 매우 참신한 기획이었다. 여러 방면에서 베트남과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번 행사를 통해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지만 주목할 만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의 경우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기 쉬운데 참신한 기획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했다. 다만 문인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의 낮은 참여도가 아쉬웠다.<강용식(문학)>

○ 형식적인 작품교환방식의 전시보다는 실제적인 문화 인적 교류가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교류가 될 것이며 전시의 특성상 한두 건의 전시를 힘있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정확한 정보의 확인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관전시 보다는 비영리 갤러리, 미술관에서의 전시장지원 등이 확보된 전시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원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유현미(미술)>

○ 무엇보다 ‘기여도와 파급효과’ 항목이 중요하다. 지원 심의시 전시개최의 의의와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필요하다. 여타 항목보다 전시 개념이 불분명했으며 외국작가 초대라는 일차적 목적에 급급하다는 인상이다.<전승보(미술)>

○ 해외교류지원사업은 학예기능의 전문성과 아울러 특별히 진취적인 기획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단발성의 전시보다는 피드백이 가능한 지속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 방향의 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시를 둘러싼 각 지역의 언어적 매개-번역-의 성과를 평가하고 축적하는 방법도 보완되어야 한다.<김현도(미술)>

○ 자체 공간의 확보와 자연환경까지 포용하는 한 축제는 눈부신 발전을 검증한 매우 우수한 단위사업으로 주목된다. 이 축제의 다양한 내용의 공연 및 부대행사들은 그 올찬 구성과 실천에 있어서 단순히 지역행사로서의 스케일 이상이다. 그들을 관객들의 범주와 분포는 넓으며, 그들의 적극적 참여와 높은 만족도는 양질의 행사로서 자리잡은 이 축제를 확인해준다.<허순자(연극)>

○ 이 사업은 정해진, 반복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름 있는 사업들은 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새로운 해외교류 사업을 찾아내는 일이 절실하다고 여긴다. 지금은 몇몇 기존 단체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몇몇 평가대상은 무조건적으로 국제적인 차원만을 내세운 나머지 내용은 형편없는 사업도 있었다. 이를 시정하는 일이 사업의 질과 더불어 한국문화예술 해외교류의 폭을 바르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안치운(연극)>

○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만 치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 지원 사업 중에는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지나치게 축소되어 치루어졌고 사업 성과도 미미했던 단체도 있었다.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데는 주최 단체와 연관이 있는 인맥에 연연한 대상자 선정과 이익만을 염두에 둔 사업시행을 고집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사업 계획서와 크게 달라진 경우 행정상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요구되며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 행사에 대한 편중된 지원에서 탈피, 해외로 내 보내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공연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사업 시행도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장광열(무용)>

○ 평가대상인 한 사업은 기획적인 독창성과 주최측의 진행 등 타장르의 무대예술인 등 참여도와 함께 타 단체의 기획공연과 차별성이 보였다.<손관중(무용)>

○ 자신의 단체가 해외와 교류함으로써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지원서에 명시해야 한다. 자신의 서클이 해외 인물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국가나 음악분야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 봐야한다. 그러므로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행사 홍보에 적극적이

어야 하며 많은 청중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행사의 결과를 공적인 차원에서도 분석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단체에게 지원금이 주어져야 한다.<이석렬(음악)>

○ 문화예술의 해외 교류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교류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망된다.<전경옥(전통)>

○ (한 평가대상단체는) 국악계의 중견단체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고, 최근 해외 연주자와의 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전통음악을 초청하였지만, 실제 중국연주자들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다. 중국본토, 대만, 홍콩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무대를 꾸몄으면 하는 바람이다.<윤중강(전통)>

○ 문화예술의 해외교류가 말대로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 공연의 열 배는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국위선양이나 국가위신 추락이나 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행사 주최측도 준비를 잘해야 하고 평가위원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재외동포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몇 명 예술인을 데려와 공연한다고 하여 문화예술의 해외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법이다.<이승하(문화일반)>

○ 단 1건의 평가로 전체적인 면을 조망하거나 평가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본 위원회 평가대상이었던 사업은 이름만 거창할 뿐 전혀 실속이 없는 말 그대로 전시 위주의 급조된 행사로 생각되었다. 진정한 국제예술제로서 격을 갖추었는지 내용은 어떠한지, 지원심의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박 찬(문화일반)>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문화예술해외교류기획사업
-----------------------------	--------------------------------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

(1) 사업개요

한국문화 해외소개의 장으로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제8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 참여하는 한국 작가를 지원함.

(2) 2002년도 주요 추진실적

- 행사명 : 제8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 기간 : 2002. 9. 7 - 11. 3(일반공개 2002. 9. 8 - 11. 3)
 - 시사회 : 2002. 9. 6 - 9. 7(한국관 개막식 : 2002. 9. 6, 11:30-13:00)
 - 공식개막 : 2001. 6. 7, 14:00-
- 장소 : 이태리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내 한국관 및 아르세날레(초청작가 전시)
- 주관 : 베니스비엔날레협회(총감독 데이안 수직/Deyan Sudjic)
- 주제 : NEXT
- 한국관 커미셔너 : 김종성(남, 1935년생, 서울건축 대표)
- 한국관 참가작가 및 참가작품
 - 김영준 : 파주출판단지 공동주거 계획
 - 김중규, 김준성 : 헤일리 아트벨리 커뮤니티 하우스
 - 민현식, 이민아 : 공원 + 도서관
 - 박헬렌주현 : 헤일리 아트벨리 스튜디오 + 주택
 - 우규승 : 추모공원과 납골당
 - 이종호 : 박수근 미술관
 - 조성룡 : 파주출판단지 상가블럭

(3) 2002년도 수상내역

- 작가상(Leone d'oro - 황금 사자상) :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Alvaro Siza Vieira, 포르투갈)
- 국가관상(Leone d'oro - 황금 사자상) : 네덜란드관.

- 개인특별상(Premio Speciale) : 장 쩐(Zhang Xin, 중국, 프로젝트 발주자)
- 도시특별상(Premio Speciale) :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입선(Menzione Speciale) : NEXT 멕시코 시티 - 호수 계획.

(4) 한국관 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 9명
 - 건축계 전문인사 위촉 위원 : 김한근(한앤김건축대표), 강석원('96베니스건축전커미셔너)
 - 김인숙(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정기용(한양대건축대학원교수), 김자호(간삼건축대표),
 - 송효상(이로재건축사무소대표)
 - 당연직 위원(3명) : 오기수(한국건축가협회장), 이진배(문예진흥원 사무총장),
 - 노태섭(문화관광부 예술국장)
- 회의 개최
 -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 : 2001. 12. 17
 - 한국관 전시기획(안) 설명 및 참가작가 선정 승인 : 2002. 3. 16

(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 자체평가

-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이 정례화되면서 국제건축전이 건축계의 주요한 전시로 부각되고 있음이 관람객수의 증가, 관람층의 다양화 등에서 확인되었음
- 한국관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호평이 예년처럼 계속되었음
- 국가관상을 받은 네덜란드관의 경우 개별적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제작에서 전시까지 일관된 연출을 통해 국가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향후 한국관 전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해외문화기관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1) 문화예술국제교류기획사업

(가) 중국 중경시천극원 한국 초청공연 사업

- 초청단체명 : 중국 重慶市川劇院 (Chongqing Chuan Opera Company)
- 초청공연명 : 重慶市川劇院의 “金子”
- 초청협력기관 :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 초청인원 : 총 32명 (중국문련 2인 포함)
- 초청일정 : 2002. 6.2 - 6.11 (9박 10일)
 - 6. 2 : 중국공연단 서울 도착
 - 6. 3~6. 6 : 우리 원 자체 기획공연 및 2002 서울공연예술제에 해외초청작품으로 참가
 - 6. 7~6. 9 : 수원화성국제연극제에 해외초청작품으로 참가
 - 6.10~6.11 : 국내 관광 및 중국 출발
- 서울공연(우리 원 기획공연 및 서울공연예술제 해외초청작품)
 - 공연명 : 중국 중경시천극원 “金子”
 - 일시 : 2002. 6. 3(월) ~ 6. 6(목)
 - 6. 3 : 공연 준비
 - 6. 4 : 18:00, 1회 공연
 - 6. 5 : 19:30, 1회 공연 및 공연 축하 리셉션 개최
 - 6. 6 : 15:00/ 18:00, 2회 공연
 - 장소 : 문예회관 대극장
 - 주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중경시천극원, 서울공연예술제집행위원회
 - 후원 :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주한중국대사관
- 수원공연(수원화성국제연극제 해외초청작품)
 - 공연명 : 중국 중경시천극원 “金子”

- 일시 : 2002. 6. 7(금) ~ 6. 9(일)
 - 6. 7 : 공연 준비
 - 6. 8 : 16:00/ 19:30, 2회 공연
 - 6. 9 : 16:00/ 19:30, 2회 공연
- 장소 : 경기도문예회관 소극장
- 주최 : 수원화성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중국 중경시천극원
-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주한중국대사관
- 중국 공연단 사전 답사팀 방한
 - 초청기간 : 2002. 5. 2(목) - 5. 5(일)/ 3박 4일
 - 초청대상 : 중경시천극원 2명 및 중국문련 실무자 1명
 - 沈鐵梅(Shen Tiemei) 1965년생, 중경시천극원 대표, 주연배우
 - 沈中英(Shen Zhongying) 1937년생, 중경시천극원 조명 기술자
 - 曹 俊(Cao Jun) 1979년생, 중국문련 아주처 직원
- 총소요액 : 50,311,678원
- 자체평가

- 중국 중경시천극원 한국 초청공연 사업은 2001년 중국문련 대표단의 한국 방문시 합의한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정례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첫 교류 사업으로서 올해 수교 10주년을 맞는 양국간의 외교적 우호 증진 및 향후 문화예술분야 교류사업 활성화에 기여.

- 우리 원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공연된 작품 “金子”는 중국 근대극의 창시자로 꼽히는 조우(曹禹)의 희곡 “原野”를 각색하여 중국 4대 지방극의 하나인 “川劇” 스타일로 연출된 작품임.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원은 각각의 사업 파트너(중국문련 및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조직위)와 중국 공연단의 한국 공연에 필요한 역할 분담, 예정 부담 등의 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체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

(나) 불어판 한국의 불교미술 소개 서적 발간지원

- 제목 : 『경주 남산, 만불의 산(La Montagne de dis mille Bouddhas)』
- 발행처 : Editions Cercle d'Art, Paris, France
- 저자 : 윤경렬
- 사진 : Antone Stephanie
- 발행일 : 2002.09.30
- 지원액 : 10,000,000원

(다) 프랑스 한국문화축제 참가 지원

- 행사명 :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2002 문화페스티벌
(Musique et Tradition au pays du Matin Calme Corée 2002)
- 주최 및 주관 : 생 제르맹 앙레시(Ville de Saint-Germain-en-laye),
현대음악센터(L'Atelier de Musique Contemporaine)
- 기간 : 2002년 11. 05(화)~ 11. 17(일)
- 장소 : 생 제르맹 앙레시 알렉상드르 뒤마 극장 등
- 주요 행사내용 : 개막 콘서트, 정명훈의 피아노 협주회, 국립국악원 공연 등
- 공연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금) 20:30, 이수당 알베르 까뮈 극장(800석)
 - 11월 16일(토) 20:45, 생 제르맹 앙레 알렉상드르 뒤마 극장(703석)
 - 공연내용 : 전통음악과 무용 7작품

○ 지원액 : 27,590,000원 (국립국악원 연주·무용단원 19명 및 한국측 기획자 파견 항공료 및 악기 운송료)

(라) 우즈베키스탄 예술아카데미 PC 지원

- 지원내용 : PC 2세트
- 지원목적 : 우즈베키스탄 예술아카데미의 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

○ 지원액 : 5,000,000원

(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사물놀이 악기 및 의상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사물놀이 악기 3세트 및 사물북 12벌
- 지원목적 :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예술 교육 및 실습
- 지원액 : 1,452,000원

(2) 해외주요문화기관교류 사업

(가) 우리 원 대표단 중국 문련 초청 방문

- 기간 : 2002. 4. 1 ~ 4.10(9박10일)
- 지역 : 북경, 서안, 남경, 상해 등
- 방문자 : 김정옥 원장, 정승태 기획조정부장, 장계환(회계관재팀), 장용석(총괄협력팀)
- 초청기관 :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주석 : 주위치)
- 내용 : 문화예술교류의정서 연장 체결, 한중미술교류전 관련 협의, 주요 인사 면담 등

(나)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대표단 파견

- 기간 : 2002. 3. 11 ~ 3. 25(14박15일)
- 지역 : 프랑스 파리, 리용
- 방문자 : 이진배 사무총장, 양효석 공연예술팀장, 이종원 문예회관팀장, 이재승 총괄협력팀원 및 외부인사 1인(이현정 LG아트센터 공연기획팀장-자비 참가)
- 내용 : 프랑스문화부 위임사업인 꾸렁 프로그램(programme courants)의 일환으로 각종 문화 예술기관 방문

(다) 해외주요 문화행사 초청 방문

-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 기간 : 2002. 9. 1 ~ 9. 5
 - 지역 : 중국연변
 - 방문자 : 김정옥 원장, 박두현 문학미술팀장
 - 초청기관 : 중국연변문련
 - 내용 : 기념행사 참석, 통일문학전집 관련 협의, 주요 인사 면담 등
-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개관70주년 기념식 참석
 - 기간 : 2002. 9. 13 ~ 9.20
 - 지역 : 카자흐스탄 알마아티
 - 방문자 : 이용진 공연예술팀장
 - 초청기관 :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 내용 : 기념행사 참석, 주요 기관 방문 등

(라) 해외동포 문화예술계 인사 초청

- 초청인사 명단
 - 중국:전득주(51세, 중국연변연극가협회상무부주석),맹헌록(53세, 중국연변연극가협회부비서장)
 - 카자흐스탄 : 이올레그(60세, 카자흐스탄국립고려극장총감독)
- 기간
 - 중국대표단 : 2002.10.21 ~ 10.28 (7박8일)
 - 카자흐스탄대표단 : 2002.10.18 ~ 10.25 (7박8일)
- 주요 일정
 - 문화의 날 행사(국립극장) 참석
 - 우리 원 임원 면담 및 시설(예술극장,마로니에미술관,예술자료관) 시찰
 -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창덕궁 방문

- 연극 세자매(학전블루극장), 전통창극 다섯바탕던(국립극장) 공연 관람

(마) 2002년도 예산집행 실적 : 36,849,321원 (예산액 55,910,000원)

(바) 자체평가

○ 중국문련의 경우 기관교류의 성과가 중국 중경시친극원 한국 초청공연 사업으로 가시화되는 의의가 있었으며 프랑스세계문화의 집과의 교류는 문화선진국인 프랑스 문화예술정책의 실체를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중국연변조선족문련, 카자흐스탄국립고려극장과의 상호교류는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에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3) 해외문화예술정보서비스사업

(가) 해외문화예술기관 신규정보조사

○ 대상기관 : 미국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영국 Arts Council, 독일 세계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프랑스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

○ 연감 및 최근 정보물 수집

(나) 자체평가

○ 우리 원과 유사한 해외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신규정보 조사를 통해 우리 원의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보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 해외교류 분야 간접 지원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문화체험학교 운영

(1) 사업개요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을 함양시키고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교포에게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학교를 운영

(2) 2002년도 주요실적

○ 제1차 한국문화체험학교

·교육기간 : 2002. 7. 18(목) ~ 7.20(토) / 3일간

·교육장소 : 마로니에미술관 강당, 삼청각, 진천동원김치공장, 이천예원도요, 경기화성용주사

·교육대상

신청인원 : 주한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교포 160명

참가인원 : 122명(1일차 69명/2일차 74명/ 3일차 40명)

·교육내용 : 전통문화교양강좌(민속학자 주강현), 한지공예, 가야금병창, 북장단, 김치담그기 체험, 전통도예 강의 및 실습, 사찰체험(발우공양, 참선, 다도, 연등만들기, 탑돌이)

○ 제2차 한국문화체험학교

·교육기간 : 2002. 10. 11(금) ~ 10. 12(토) / 1박 2일간

·교육장소 : 이천예원도요, 안동지례예술촌, 안동민속박물관, 안동하회동탈박물관, 하회마을

·교육대상

신청인원 : 주한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교포 50명

참가인원 : 43명

·교육내용 : 전통도예 강의 및 실습, 전통가옥민박체험, 하회별신굿 강습 및 국악연주회, 안동민속박물관, 하회동탈박물관, 하회마을 견학, 하회별신굿탈춤 관람

(3) 자체평가

○ 이론 위주의 강의 방식이 아닌 현장 체험 및 실습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생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교육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음.

○ 교육생 개인 차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 한옥 숙박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각국 젊은이들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마련.

단위사업(지원유형) /세부사업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한일문화교류지원 사업
-----------------------------	-------------------------

(1) 사업개요

한·일 양국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정착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양국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함.

(2) 사업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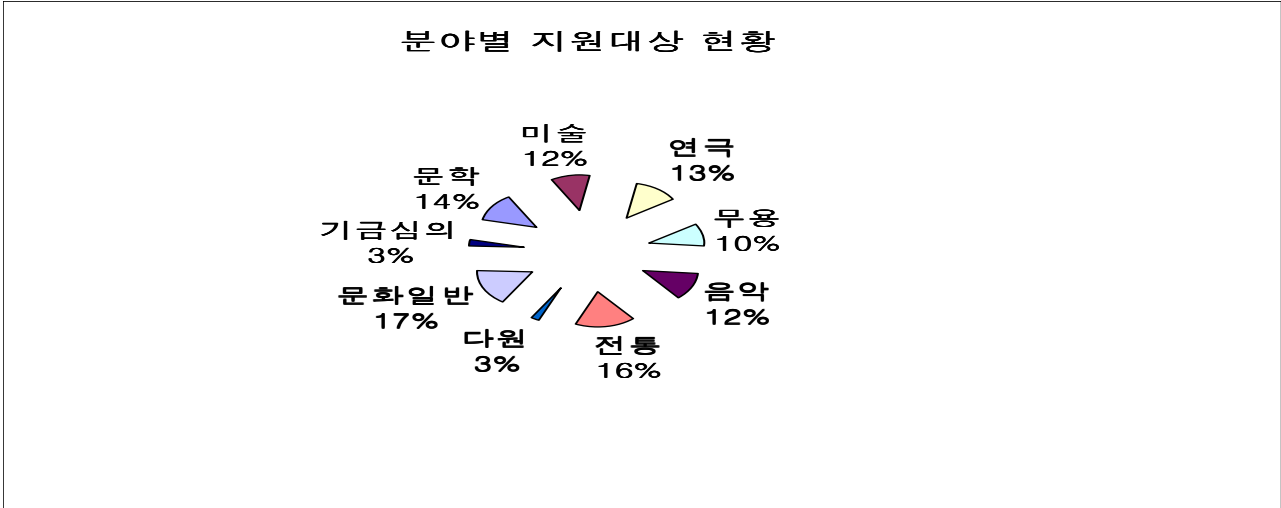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한일문화교류회(지명관)
-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
- 한국전통예능 일본방문단
 - 기간 : 2002.11.2~11.7
 - 장소 :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돗토리시
- 한국청소년 예술방문단
 - 기간 : 2002.7.25~7.29
 - 장소 :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돗토리시
- 한일문화교류현황 전국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2.3.10~6.20 (이후 홈페이지 작업)
 - 조사대상 : 16개 광역시도 및 85개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담당과
- 한일문학작품번역사업 지원
 - 작품명 : 사양(斜陽) / 다자이오사무 著 / 유숙자 譯 / 222면
 - 작품명 : 사쿠라지마 / 우메자키 하루오 著 / 장남호 譯 / 282면
- 김홍수 이라야마 2인전 지원
 - 기간 : 2002.1.8~2.22
 - 장소 : 일본 동경예술대학 미술관

(3)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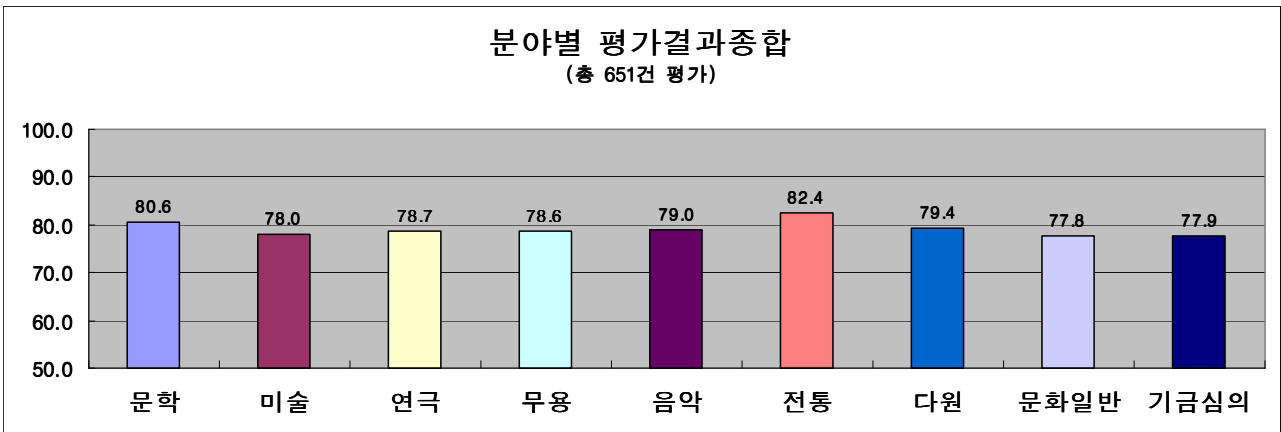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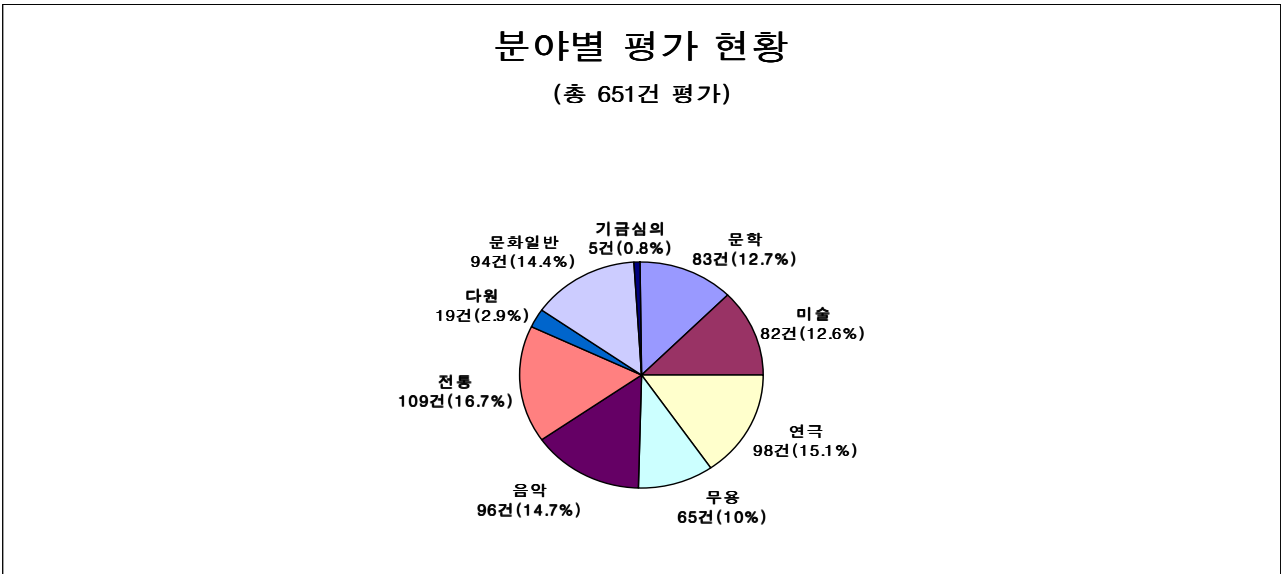
- 동사업은 2003년도부터 국고 지원될 예정임

3. 분야별 종합평가

가. 분야별 지원대상 현황



나. 분야별 평가 결과



다. 분야별 현장평가 대상 단위사업

단위사업 \ 분야	기금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문화일반	다원
창의적 예술 지원	●		●	●	●	●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	●	●			
다원적 예술 지원									●
신진 예술가 지원			●	●	●	●	●		
관객개발 지원	자체평가사업								
찾아가는 예술 지원		●	●	●	●	●		●	
참여하는 예술 지원		●	●	●	●	●		●	
예술자료·정보 보급 지원	해당사항 없음								
예술 보존·조사 연구 지원		●		●					
전통예술발표·전승보급지원	●						●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	●	●	●		●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자체평가사업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		●			●	●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	●	●	●	●	●	●	

라. 각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평가 내용

문학 분야 총평	평가위원
<p>문학 분야의 사업들을 그 형식상의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백일장, 학술발표 대회, 자료전시회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활자, 나아가 책의 형태로 수용과 향유가 이루어지는 문학의 매체 특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형식을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형식의 개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문학 분야에서는 친편일률적이고도 파편한 느낌의 사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타 다른 분야(미술, 연극, 음악, 무용)에서 가능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긴 하겠으나,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p> <p>수용자의 지리적 범위와 분포의 규모 및 호응도와 관련한 평가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업 성격상 백일장의 경우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술발표대회나 자료전시회의 경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감이 있다. 학술발표대회는 그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울 것이긴 하나, 좀더 포괄적이고 현장성이 강한 주제의 발굴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나 '학술발표' 이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만 일반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분야 관련 전문인사의 현장 참여도와 호응도' 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이 눈에 띄었다. 초청 연사나 세미나 발제자 그리고 심사위원 등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분들 이외에는 참여와 호응이 다소 미진했다. 보다 많은 문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사업이 수행 단체의 가족적 행사에 머무르는 것도 경계해야 할 사항이었다. 실제 현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들을 주관한 단체들은 이 점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 까닭에 그러한 위험에서 충분히 벗어났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사안일 것이다.</p> <p>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기획과 운용에 많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야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매우 성실하게 수행되었으며 참여자도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장 평가를 위해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느꼈던 열기를 감안하고 또 그 파급 및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년도에 이루어진 문학분야의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보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몇 가지 사업의 경우는 비록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된다.</p>	강용식

미술 분야 총평	평가위원
<p>외형적으로 문예진흥원의 기금지원사업은 전시문화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술영역의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접근방식이 요구될 것이다. 미술분야의 경우는 여타 예술형식과는 달리 사전 기획의도와 전시결과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쉽다. 실험성이 강한 현대미술의 속성상, 서면만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평가결과를 놓고 보면 특히 매체 실험을 지원한 전시에서 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평가가 아니고는 그 성과를 계량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므로 지원대상과 현장평가대상의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현장평가대상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원활해지도록 이제부터 항목별 평가결과를 예년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진작가지원'의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축적해갈 필요가 있다.)</p> <p>미술의 경우, '찾아가는 예술지원'과 '참여하는 예술지원', 그리고 '다원적 예술지원'과 '창의적 예술지원'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찾아가는 예술지원'의 실질적 대상의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평가결과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장소를 활용한 전시의 경우는 대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지원심의회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p>	김현도
<p>미술분야의 평가에서 비평적 접근과 계량적 평가 접근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특히 창의성 항목에서 지원 목표를 계량적 평가로 판단하기엔 문제점이 있다. 평가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지원심의회에서 보다 엄밀한 심의가 필요하다.</p> <p>해당 년도의 기금지원 심의자중에서 평가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서류상으로 심의한 결과와 현장 평가의 일치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년도의 평가가 종료된 후 심의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자의 결과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책임 심의와 책임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한다.</p> <p>평가항목의 분석기준이 일률적으로 편성되기보다 각 지원 분야의 성격에 따라 배점 기준이 달라져야 하며 분석 기준 또한 차별을 두었으면 한다. 계량적 수치화가 힘들지만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차별은 필요할 것 같다.</p> <p>예산 심의시 인구비율에 따른 지원액수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고액의 지원이 편성된 감이 없지 않다. 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혹은 '참여하는' 등의 사업이 많아 지원 건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액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하다.</p> <p>평가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더라도 평가 작업의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체에 지원심의 또한 보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심의장소를 공개적인 곳에서 대중들의 참관이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 심의기간 또한 충분히 늘려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것들은 지원심의회와 평가의 수월함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받게 할 것이다.</p> <p>평가 사업의 비율을 확대했으면 한다. 지난 2002년도의 경우 평가 대상이 15%라고 들었는데 최소한 30%는 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상 사업이 1/3은 되어야 전체 지원사업의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또한 평가대상을 지정하여 평가위원에게 과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이 임의로 지정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p>	전승보

음악 분야 총평	평가위원
<p>2002년 한 해 문예진흥원의 지원기금을 받은 음악공연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음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단체나 개인들의 숨은 음악에의 열정과 창작욕구를 볼 수 있었다. 여전히 관객의 참여도는 낮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나 점차 확산되는 매니아들의 움직임이 미래에 대한 작은 가능성을 남겨놓는다.</p> <p>2001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공연들 중 비교적 규모 있는 단체의 정기 공연들은 이번에도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모양새가 더욱 견고해지고 짜임새 있게 변모하여 초기 평가기획 의도대로 해당 사업의 부분에서 점차 안정된 모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평가의 목표도 단지 비평의 대상이 아닌 멀리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공연인가 아닌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핵심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듭 언급했지만, 각 공연 단체나 개인에 대한 개별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연 성과 및 성실성등을 등급화하고 이를 기관들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단체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금의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가급적 균등한 기회를 많은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먼저 음악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p> <p>한편, 고질적인 문제로 제시되는 '관객의 참여도'는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단지 '관객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의 존재의미'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창작공연에 있어서 만큼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에 있어 개별 평가조항이 없는 이상 평가자 임의대로 배점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p> <p>마지막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역시 공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했던 점과 갖은 공연 취소나 변경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진흥원의 각 단위사업들이 거시적인 계획과 실천가능한 하위목표 들로 점차 안정된 평가정책 아래에서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부문에 기여하길 바란다.</p>	김은양

<p>사업항목을 대대적으로 정비, 중복부분을 없애고 항목 별로 상, 하위를 두어 연도별·사업별 중점과제를 적시했으면 한다.</p> <p>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정량적 평가지표의 개발이 핵심 관건. 평가지표가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형평성 시비가 없어지고, 형평성 시비가 없어져야 대형 프로젝트를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소액다건주의 지원은 이제 끝내야 하며, 프랑스에서는 문화부에서 작품 위촉을 직접 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BK21 사업을 하듯, 문예진흥원에서도 집중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p> <p>신정부의 문화 관련 핵심과제가 “문화인프라 확충”이다. <참여하는...>, <찾아가는...>, <함께하는 문화복지...>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신정부의 문화 관련 구상이 “품격있는 문화”이다. 상업주의 오락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품격있는 문화가 소비되려면 소비 주체를 먼저 키워야 한다. 댄스뮤직을 듣고 자란 신세대 청소년층에게 품격있는 음악을 들려줘야 소용이 없으며, 결국 새로운 “문화세대”를 육성해야 한다. 문화를 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문예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과제를, 단위 학교현장을 찾다니며 좋은 작품과 높은 수준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보여주고 만드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p>	<p>문승헌</p>
<p>현장평가위원으로서 본인이 보고 느낀 중요점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p> <p>우선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이 보다 공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공연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겠다.</p> <p>작곡을 전공하는 단체들은 새로운 양식을 수용하거나 창조한다는 차원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하며, 자신들의 음악적 지향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p> <p>찾아가는 예술분야와 참여하는 예술분야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문제가 되곤 했다.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한다는 취지가 섰으면 그들을 위해 어떤 음악을 어떠한 방식으로 들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아울러 이 두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청중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 단체에게만 지원금을 줘야한다는 가설도 세워 볼 수 있다.</p> <p>예술보존 조사연구 분야는 행사의 기본 틀이 지켜져야 한다. 객관적 자료와 문헌 등이 제공되고 장소의 편리성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해외교류 지원분야의 경우에는 우리 예술계에 도움이 되는 테마를 명시하고 그 수행 방식을 보다 열린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p> <p>이런 문제점들은 지원자가 지원서에 취지와 의도를 기술하는 방식부터 변해야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행사의 취지와 운영방식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 등을 지원서에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해야되는 것이다.</p> <p>아울러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의 행사 홍보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은 만큼 공연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어야 하는데, 어떤 단체들은 행사 홍보에 너무도 소극적이어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p> <p>이상으로 볼 때 보다 객관화되고 체계적인 지원서류의 기술 방식 및 그에 따르는 행사 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음악인들에게도 보다 공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지원금을 통한 행사들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p>	<p>이석렬</p>
<p>무용 분야 총평</p>	
<p>종합평가는 그 동안 평가방식을 되돌아 보게 된다.</p> <p>문예진흥원 기금을 각 단체 및 각 개인들이 고르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p> <p>다소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공연도 있지만 그 반면에 지원사업의 혜택 속에 새롭고 독창성이 뛰어난 공연도 많은 한해라고 생각이 든다.</p> <p>동시다발적인 공연지원보다는 지원단체를 축소하여 지원금 상승과 함께 형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된다면 극장 대관의 어려움도 다소 해소 될 것이다.</p>	<p>평가위원</p> <p>손관중</p>
<p>문에 진흥기금 사업은 무용 분야의 공연 활성화에 위한 중요한 재원이며 양분의 수단이 되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있어 명쾌한 기준의 설정과 계속되는 보완은 중요한 사항이 아닐수 없다.</p> <p>현재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에서 재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면 다음과 같다.</p> <p>첫째, 계량적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현장 예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가치성을 서면만으로 심사하고 있는 기존의 선정 방식은 가장먼저 재 고려되어져야 되는 문제이다.</p> <p>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참신하고 독특한 기획으로 선정 받은 작품이 공연내용에 있어서는 작품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성격까지 미흡하게 들어나며 애초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p> <p>따라서 현재 사후 평가의 개념과 별개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근접도 및 완성도를 재 심사하여 모든 작품에 부분적 사후 지원을 개발함으로써 신청자의 책임성을 부가시킬 필요가 있다.</p> <p>둘째, 창의적 예술지원과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이 그 예이다. 신청서의 작성 내용에 대한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기준안을 작성하고 신청자의 주제의식 고취를 결과 물에 까지 명료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다.</p>	<p>안병주</p>

<p>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성과가 주춤했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었다.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계획과 실제 시행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당초 지원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가 지원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 규모를 줄인 경우도 있지만 주춤했던 사업 시행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아 생긴 사례도 적지 않게 목격됐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p> <p>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속 사업의 경우 지원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에 의거해 일반적으로 지원을 끊을 경우에 생기는 영향이 신규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는 무엇보다 지원 심의 시 현장 평가 결과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p> <p>찾아가는 예술 지원의 경우 시행 단체에게 일반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방문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적절한 단체로 공연 팀을 만들어 연속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개별 단체에 맡길 경우 소속 단체와 가까운 지역에만 치중하게 되고 공연 작품의 다양성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공연 작품 선정에서도 참가 지역 관객들의 수준이나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었다. 연합 팀을 구성해 몇 개 지역을 연속으로 순회하는 공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p> <p>지원 심의과정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 정확한 판단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평가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신진 예술가 부문 심의에서부터 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모두 심의해야 하는 현행 지원심의 제도 운영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p>	장광렬
--	------------

연극 분야 총평	평가위원
<p>현장평가의 몫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 이유는 사업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인 지원금을 가지고 정직하게, 원래 제안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유효한가를 보다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p> <p>예술 사업을 평가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지나친 감독은 오히려 예술가들의 창작자유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술가들의 양심과 지원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창작의 자유를 걱정하기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오히려 공연하는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일은 염치없는 일이다. 이것은 지원금을 신청한 작가들의 어리석음에 속한다. 그런 일들이 많다. 다시금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지원금의 몫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p> <p>현재 평가사업의 결과는 대부분 수치에 의존하고 있다. 평가사업을 수치보다는 평가자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담긴 서면평가를 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처럼 다음 해 사업의 지원평가의 척도로 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p>	안치운
<p>창의적 예술지원의 경우, 많은 단체에서 꼼꼼한 기획에 앞서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자, 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보았다. 때로는 신청을 해 놓고 다른 공연에 힘쓰다가, 지원금을 쓰기 위해 기한에 맞추느라 부랴부랴 공연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상반기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지원서의 양식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실제로 공연이 올려졌을 때 어떤 공연이 올라갈 것인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 사후 지원의 경우, 전작과 같은 배우들이 올라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지원도 지원서에 미리 기입한 극장이나 기간, 배우, 스태프들이 얼마나 본 공연에서 적용되었는지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긴 안목으로, 극단들의 기획이 보다 세밀하고 장기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유도해 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왕에 지원 신청을 6개월에서 1년 전에 하는 만큼, 극단들도 기획 자체를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지원사업이 공연예술의 양적인 증가만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인데, 질적인 수준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p> <p>그 외의 지원사업들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시간내 공연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열 개 공연보다는 전략적인 기획, 홍보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대중들에게 연극이라는 매체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한 개 공연을 올리는 팀을 골라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양적인 증가는 저절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참여하는 예술지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리라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한 연극제의 경우, 어느 팀이 연극을 더 잘했나 보다는 얼마나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 졌나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 연극제가 과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로써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p> <p>문예진흥원에서 진흥기금을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 기금으로 각 연극 단체, 나아가서 대중들에게 외면 받는 무대 예술의 활성화를 이끌어 주는 역할도 해줬으면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p>	우현주
<p>서울을 벗어나 남양주에 극단 사무실과 연습실을 마련하고 지역문화를 가꾸려는 (한 극단의) 모습은 서울 한복판에서 이전투구하는 여타의 단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장르로 치면 대중성과 거리가 먼 마임 공연도, 이른바 주류 장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겠다. 아쉬운 점은, 이미 연륜이 꽤 된 중견 단체들의 부진이다. 거품 같은 명성에 안주해 어설픈 기획으로 돈이나 타겠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p>	정재월

<p>연극분야 총 현장평가 건수 26 건 중 10 건(창의적 예술지원 3, 창작공연 활성화지원 1, 신진예술가 지원 1, 찾아가는 예술지원 1, 참여하는 예술지원 3,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1)을 참관하고 평가한 입장에서 이 분야의 종합평가는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최종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던 소수의 사업이외에 대체로 기대했던 바 우수한 수준의 결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수의 지원사업들 가운데서 매우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지원의 진정한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꼽기란 유감스럽게도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다수에게 예술 행위를 격려하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러한 현상이 ‘소액다건’의 양상을 띠고 있는 현재의 지원체제, 그래서 열악한 제정의 공연예술단체(또는 개인)들에게는 단 얼마간의 지원이라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관성이 치열한 창조적 행위와 결과를 대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그에 대한 수정 내지 개혁을 생각해야 하리라. 하여튼 사업을 수행한 단체(또는 개인)들은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지향해 온 예술적 방향과 예술적 성취도의 견실함을 반영하듯 의도한 사업의 실천에 있어서 대체로 성실성과 함께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점진적 발전을 보여준 경우들도 있었다. 비록 앞에서 지적한대로 그러한 결과가 우리 연극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기여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말이다. 한편 ‘신진예술가지원’과 ‘찾아가는 예술지원’ 사업의 예들처럼 그러한 과거의 실적이나 행적을 바탕으로 하거나 추척하기가 쉽지 않았던 단체(혹은 개인) 경우 (우연일지도 모르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예들은 그런 사업들의 경우 향후 사업의 궁극적인 질(quality)과 미학적 완성도, 실천력에 대한 예리하고도 엄격한 판별 후 지원을 승인하는 장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예를 들면, 사업의 추진단계별 지원이라던가, 혹은 일부 지원금의 사후지원 방식, 향후 지원에 대한 비평적 참고 등의 지원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임).</p>	허순자
---	------------

전통예술 분야 총평	평가위원
<p>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행사가 전통예술 발표 진흥 보급지원‘유형에 해당하는데, 전통의 진흥기반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발탈과 창극 그리고 재담, 한국고음반 전시 및 학술발표회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명창의 등용문으로 오랜 역사성을 자랑하고 있다. 진정한 축제의 마당으로서의 소리관이란 청중과 소리꾼의 교감 속에서 짜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방송국의 포맷에 맞게 기획하고 연출했을 때 그러한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발탈 공연의 경우, 평소 감상하기 힘든 발탈 연회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으나, 기능보유자인 박해일 용이 노환으로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다. 한국고음반 전시 및 학술발표회는 유성기 음반의 가치를 재확인해 주고 ‘음반학’의 정립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된다.</p> <p>몇몇 평가대상사업들은 일정한 예술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 관객의 참여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온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전통예술의 경우, 종목의 가치와 관객의 호응도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객 없는 전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전통이니까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안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p> <p>전통의 진흥, 보존, 확산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안이한 기획이나 부실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종목에 대한 지원은 재고해야 한다. 가령 어떤 대회의 경우, 취지는 좋았으나 공연장소, 시기, 행사진행방식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p> <p>전통의 재창조와 관련된 분야를 발굴,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p>	김기형

<p>2002년 신진예술가 지원을 받은 사업은 모두 30대중반의 실력 있는 연주인들이 이었다. 먼저 선정 자체로 볼때도 상당히 성공적인 출발이었다.</p> <p>한 나라의 전통예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젊은 예술가를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젊은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연주의 기회를 주며 이들을 부각시키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다.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때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은 젊은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젊은 예술인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p> <p>2002년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2건의 사업은 모두 지난 연말 평론가들이 선정한 2002년 국악 공연부분에서 좋은 음악회로 꼽히는 쾌거를 이루었다.</p> <p>좀 더 많은 신진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필요성을 생각했다. 기성 연주자들은 굳이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음악회나 행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미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아직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p> <p>문예진흥기금은 보존가치가 있으나 자생 능력이 없는 전통 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록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없어서, 관객 동원면에서 미비 했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문예진흥 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사후 평가의 기준을 좀더 세분화 시키고 다양하게 하여 이러한 취지를 잘 수용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p>	현경채
--	------------

<p>전통분야의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수행된 편이었다. 이러한 지원에 의해 전통예술 전승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소외 지역에 우리의 전통예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여러 전통예술단체들이 이 지원사업을 힘입어 자신들의 예술을 제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지원사업의 의의는 크게 인정된다.</p> <p>그러나 일부 단체는 불성실하게 공연을 준비한 점도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현장평가를 강화하여 우수단체를 선별하는 작업이 계속된다면, 이 지원사업이 더욱 올바른 궤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p>	<p>전경욱</p>
<p>한해동안 평가위원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연장을 찾아다녔다. 그동안 평론가라는 직업으로 공연장을 찾았을 때와는 좀 다른 입장이었다. 전에는 공연 그 자체의 완성도에 비중을 두었지만, 올 한해는 기획에서 연출, 청중들의 참여 및 관객과의 교감 등에게까지 두루 볼 수 있었다고나 할까? 오히려 문예진흥원 현장 평가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도 소득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문예진흥원 측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다. 아울러서 애쓰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인다.</p> <p>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진예술가 지원’이 가장 성공한 분야였다고 생각됐다. 나 자신이 평가에 관계된 공연과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연도 두루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문예진흥기금이 바로 쓰인다는 생각을 했다. 짧은 공연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연이고, 또한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다는 자부심과 부담(?) 때문인지 대체로 공연들이 다 성공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기존의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다.</p> <p>대부분 전통예술발표 보급지원사업에 신청해 기금을 받은 몇몇 공연들은 예년과 비슷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아쉬웠다. 오히려 이 부분의 지원을 줄이고 신진예술가나 해외교류사업, 또는 공연과 관련된 자료 들 (서적, 음반 등)을 제작하는 쪽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지금은 너무 많은 공연에 ‘다건 소액’의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단체의 경우는 때론 지원을 당연히 여기고, 또한 적은 금액을 타하면서, 알차고 수준높은 공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 및 실천이 약한 측면이 많다.</p> <p>아울러서 지금처럼 해외(일본 또는 중국)에서 전통음악인을 초청해 온다 또는 왔다는 사실 하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교류지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초청되는 연주가의 자국(自國)에서의 평가나 역량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교류도 지금처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인접국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많은 지역에서 좋은 예술인들이 초청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p> <p>아울러 지금까지 평가방식도 문예진흥원측과 여러 관련자들이 숙고해서 만든 것이겠지만, 관객 등이 많이오고 적게 오는 것만으로 공연의 성패가 좌우되는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다. 오히려 다른 분야를 포함해서 공연장에 관객이 많았을 경우, ‘동원된’ 청중일 경우도 있었다. 이제 지나치게 대중성에 영합한 공연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이 외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진지한 무대를 보여주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공연 청중의 수효로 공연의 성패 등을 가르는 계량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동안 평가를 마치겠다.</p>	<p>윤중강</p>

<p>문화일반 분야 총평</p>	<p>평가위원</p>
<p>문화 일반분야 사업계획은 대체로 완성도 높게 계획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의 수행정도도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를 토대로 하여 문화의 제반 분야에 적절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p>	<p>유영대</p>
<p>전반적으로 올해 평가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심의회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다원적...>이나 <해외교류...>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단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이름만 거창하였을 뿐 빈 껍데기 행사나 자기과시적 전시행사로 치른 단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사의 기획이나 프로그램 등은 일견 그럴싸 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에 못 미쳤다.</p> <p>문화일반이라는 지원부문의 특성 때문인지 행사 주최자 외에 전문가들의 참여도나 예술적 완성도 등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곤 지원신청 단체들이 서면으로 제시한 사업내용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돋보였고 관객들의 참여도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주최측의 열의도 돋보였다.</p> <p><참여하는...>의 경우 불특정 다중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참여도도 높고 따라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문화강좌의 경우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것들이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그같은 강좌의 경우 수강료가 비싼 느낌이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강좌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p> <p><참여하는...>의 일부 행사의 경우 지원신청 단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행사 일정이나 장소가 행사 진행 며칠 전에야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또 행사의 준비는 잘 됐는데 관객들의 호응도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이와 반대로 준비는 미흡했는데도 호응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애초 기획한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p> <p><참여하는...>과 <찾아가는...>은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다중에 대한 문화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다.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사업영역을 더 확대하고 지원도 더 늘리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 <p>어느 정도 자립도가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을 삭감하거나 일시 중단하여 보다 새로운 창의력을 갖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평가자료가 차기연도 지원심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p>	<p>박찬</p>

<p>기획이 아무리 좋아도 주최측의 준비가 소홀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문화일반 사업>이다. 그 동안 문예진흥원에 제출한 지원신청서 검토→사업 직접 확인→현장에서 가져온 공연 팸플렛과 대조→평가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원신청서와 공연 현장이 차이가 나는 것이 많았다. 또 팸플렛을 잘 만들었지만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곳, 팸플렛은 없거나 엉성했지만 성의 있게 진행이 된 곳 등 외양과 내실이 많이 달랐다. 실무자가 지원신청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문예진흥기금을 받아냈다고 한들 세밀한 현장 답사와 엄정한 평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난 몇 달이었다.</p> <p>문화일반은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복돋아주는 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문화기획인학과 2002'에 참가하여 문화의 서울 집중이 심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및 '보급'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면 국민들에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존재 의의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p> <p>문화일반 분야의 9개 사업을 둘러본 결과, 앞으로의 개선점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최측의 준비 소홀 2) 참가한 관객의 호응도 낮음 3) 문화의 순수한 보급보다는 상업적인 데로 경사 4) 대부분 공연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음 5) 홍보 부족의 극복 : 인터넷 활용 <p>타이틀이 거창하거나 사회의 유명인사를 앞세운 문화일반 지원사업이 뜻밖에 실속이 없었다. 外華內貧이거나 針小棒大가 된 사업은 심사평가위원이 메스를 과감히 들이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로 인해 문화가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 우리 시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이다.</p>	<p>이승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평가(총 1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천된 문화일반분야의 4가지 유형의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점도 많았지만, 몇 가지 원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아, 향후 시정·보완되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문예진흥원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장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대상이 된 위의 문화(예술)일반분야 행사들은, 각자 나름의 주제와 특성을 강조적으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유지했다. 2. 각 행사가 나름의 문화가치를 창조하는데 필요하다는 설득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이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1-2.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으로, 행사 주제의 문화이론적(文化理論的) 확신이 부족하여, 일부 행사는 실천과정보다 선행해 있어야 할 취지와 초목표에 대한 인식이 막연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2. 각 행사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와 세부 실천방법론들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실망 또는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3. 일부행사는 이미 기성화 된 주제와 틀을 갖고 있거나, 경제논리가 우세하여, 관객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고취하는 참신한 문화적 접촉계가 되기에 역부족인 것도 있었다. 2. 평가자 요망사항 <p>21세기 <지구촌 지역문화>(Glocal culture)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한민족(韓民族)만의 토착적 문화이론(土着的 文化理論)의 부재를 시급히 차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평가와 재창조를 가능하게 할, <문화이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히 문예진흥원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행사주최자의 이론적 지식과 실제에 대한 전략적 지식의 부족을 메우는, 또는 균형 잡는 방법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전통예술 및 현대예술 전반분야에 대한 이론서의 개발과 출판, 보급 쪽의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사료됨.</p> <p>즉 부실한 행사라도 대략이라도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1단계로 행사주최자가 왜 그러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그 행사가 창조한 문화적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 효과와 숙제가 무엇인지를 책자형식으로 발간하게 하여, 그것에 대한 발간지원을 1차로 한 다음, 그 다음 해에 실제행사에 대한 2차지원을 하는 형식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문화이론 부재와 실천의 불연속성을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고, 나아가, 적어도 지원을 획득한 후에, 그 취지와 목표를 막연하게 의식하거나 전혀 무시하는 행사로 변환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사실 이것은 모든 지원 분야에도 도입할 만한 분야이다.</p> <p>다른 단체와 차별화 노력도 없이 유사한 종류의 행사안건으로 다수의 지원기관들로부터 이중삼중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이름만 다르고 실제내용은 언제나 똑같은 행사들을 만들어 지원을 받는 경우, 행사를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한 준 영리사업으로 간주하여 지나친 입장료를 받는 행사인 경우 등, 결과적으로는 거의 매년 최대의 지원금으로 내용은 같은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보다 전략적 능력을 가진 새로운 단체의 지원혜택 기회를 박탈하는 형국이 되어, 지원의 효율성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개성과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어 경계를 요한다고 사료됨.</p> <p>진정한 한국문화의 선구자로서 기능을 우선하되, 이미 자립도가 인정된 행사는 지원금을 축소·중단하여, 보다 새로운 창의력과 실천연구를 하는 단체에게로 돌려져야 한다고 사료됨.</p> 	<p>정순모</p>

Ⅲ. 경영개선 평가

Ⅲ. 경영개선 평가

1. 업무개선(중점추진) 과제 평가

가. 원내 자체평가 방법

1) 평가방법

가) 경영개선평가

(1) 경영혁신과제 추진 실적 평가

- 과제 주관 팀(경영기획팀)의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체 평가
- 이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평가위원회의에서 최종 평가

(2) 업무개선(중점)과제 추진 실적 평가

- 각 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원내 부장단의 자체 평가
 - 26개 과제 각각에 대한 부장의 개별 평가 및 사무총장 확인
 - 각 팀 과제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표 작성시 담당 부장은 제외
-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평가위원회의에서 최종 평가

2) 성과평가 측정등급

평가기준		측정등급					비고
평가방법	만점	A	B	C	D	E	
부장단평가	100	100점 ~ 84점이상	84점미만 ~68점이상	68점미만 ~52점이상	52점미만 ~36점이상	36점미만	최하점20(100점기준)

※ 각 등급간 점수는 최고점(100점)과 최하점(기본점)(20점)을 5단계화하여 책정함.

나. 2002년도 과제별 원내 평가 종합

과제명	원내평가등급 (A~E)	비고 * 관련페이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목표관리제 추진)	B	→ 114
○의식문화개혁(예술행정서비스현장 제정 시행)	B	→ 114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평가 제도 정착	B	→ 115
○지원심의의 객관성·공정성 지속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B	→ 115
○문예진흥기금 운용수익 제고	B	→ 116
○문예진흥기금 모금업무 개선	B	→ 116
○성과상여금제도 정착	B	→ 117
○인사제도 개선	C	→ 117
○계약업무 개선	B	→ 118
○회계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활용	B	→ 118
○관객개발지원 사랑티켓	B	→ 119
○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강화	C	→ 120
○통일문화전집발간을 통한 남북문화교류 기반 조성	B	→ 121
○기획전시 및 미술행사 지원성과 제고방안 마련	B	→ 121
○미술관의 사회교육기능 강화 및 예술접촉 기회 확대	B	→ 122
○소장작품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미술문화 접촉 기회 확대	B	→ 122
○서울공연예술제 지원업무 개선	B	→ 123
○공연예술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강구	C	→ 123

○공연장 관객 서비스 향상	B	→ 124
○공연장 이미지 개선 사업	B	→ 124
○문화예술종합정보사이트 ArtsOnLine 구축 운영	B	→ 125
○지원신청업무의 전산화	B	→ 125
○예술자료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B	→ 125
○예술자료관 이용자 서비스 개선	B	→ 125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선)	B	→ 126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다각화	B	→ 126
종합 평균 점	B	

다. 2002년도 과제별 원내 추진실적 종합

□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목표관리제 추진)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및 관련 예산집행현황(2002.12.12 현재)	사업 수행 상 문제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기금사업 성과 극대화 및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 중심 목표관리제 정착 운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팀장 목표관리(MBO)계획서 제출 -목표관리계획서 원내 조정회의후 최종 확정 -목표관리계획서에 의거, 연말 추진실적 및 성과를 기술한 목표평가서 제출 -평가결과의 성과상여금, 인사평정 산정 기준 활용 -다면평가(직원평가 단50%,임원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팀장 목표관리 계획서 종합('02.7월) ○목표관리계획서에 의거, 연말 추진실적('02.1월-11월까지) 및 성과를 기술한 목표평가서 제출 ('02.12월) ○평가결과의 성과상여금, 인사평정 산정 기준 활용 및 다면평가 실시 ('0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도 부팀장 목표관리계획서 종합 : '02.7월 ○2002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부팀별 제출 요청 : '02.8월 ○2002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 '02.8월 ○2002년도 중장기발전계획 목표평가서 작성 평가 추진 : '02.11월 ○2002년도 중장기발전계획 목표평가서 수합 제출 및 성과상여금 제도 시행 계획 및 인사제도 운영개선계획과 연계 추진 : '0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평정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종합적인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인사담당부서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후 '03년도부터 시행 예정임.

□ 의식문화개혁(예술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시행)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및 관련 예산집행현황(2002.12.12 현재)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공공부문 문화예술지원 선도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도,대고객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으로 행정서비스의 기준,절차,방법,시정,보상조치 등의 구체적 공표 -구성 : 전문(前文),예술행정서비스이행표준,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국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 국민협조요청사항 -시행방법:고객헌장내용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제도를 2002년도경영혁신과제로 선정 및 부서 통보 (2월) ○예술행정서비스헌장 초안마련(3월) ○동계획 부서 의견수렴(3월) ○동제도 도입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3월) ○동제도 기본계획 부서 통보(4월) ○예술행정서비스헌장 시행 및 인터넷 공시 (5월) ○동제도 운영 및 관리 (6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중 동제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터넷 공시 완료 : '02.2월~6월 ○동제도 운영 및 관리 : '02.7월~12월 (연중 지속)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평가 제도 정착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상 문제점
3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질적 수준과 기금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지향적 성과관리 체계에 부합하도록 과학적·체계적인 심사평가제도 운영을 정착화 함.	○ 상반기 분야별/종합 심사평가 보고서 제작, 배포(8월) ○ 하반기 현장/서면 심사평가 추진 독려(8월-11월) ○ 하반기 국민모니터링 심사평가 추진 독려(8월-10월) ○ 2002년도 국민모니터링 평가요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2002년도 연간 현장/서면/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종 정리 및 분석 (11월-12월) ○ 2002년 심사평가 결과의 2003년도 지원심의시 반영준비 및 반영 (12월)	○ 상반기 24명 분야별 심사평가 추진 및 12명 종합평가위원 심사평가, 팀별 업무개선(중점) 평가과제 심사평가 추진 완료 ○ 상반기 종합심사평가보고서 제작 완료 및 배포 ○ 하반기 현장평가 일정조정, 평가추진 진행 및 독려 : 12월2일 기준 202건 평가 완료 (총 지원대상 건수의 19%, 현장평가 가능대상 건수의 26% 달성) ○ 하반기 서면평가 추진, 진행 독려 : 12월2일 기준 573건 평가 완료 ○ 하반기 국민모니터링(자유모니터링 포함) 현장평가 조정 및 진행, 독려 : 10월31일 기준 150건, 자유모니터링 113건 평가 완료 ○ 2002년도 국민모니터링 평가요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11월13일-23일, 2003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 2002년도 연간현장/서면/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종 정리 및 분석 - 총 평가완료건수 619건 ○ 2002년 심사평가 결과의 2003년도 지원심의시 반영 - 2002년 총 평가단체 565개 단체 중 2003년 지원 신청한 378개 단체의 723건의 사업에 대하여 “신청자(단체)의 사업 추진능력” 항목에 평가 결과를 적용 - 심사평가등급(A/B/C/D/E)을 “사업 추진능력” 등급(A/B/C/D/E)에 동일 등급으로 반영, 체계화함. * 2003년도 지원대상사업 결정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지원심의의 객관성·공정성 지속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상 문제점
4	○ 지원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지속 강화하여 지원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03 지원신청안내서 등 제작 배포 : 9월 하순 ○ 03 지원신청 공고 : 9월 하순 ○ 03 지원신청안내 설명회 개최 : 10월 초순 ○ 03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심의 준비 : 10.1~10.31 접수, 11월심의 준비 ○ 03 심의위원회 구성 : 11월 하순 ○ 03 지원심의 진행 : 12월 ○ 03 지원심의결과 발표 : 12월 31일 (또는 03.1월초)	○ 03 지원신청안내서 등 제작 배포 - 안내책자 4,500부, 안내포스터 1,000부, 안내문 3,000부, 신청서식 1,000부 * 신청서식 일부 변경(신청서식 첫면에 신청자(단체)와 신청사업 개요를 기재토록 하여 심의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 03 지원신청 공고 - 9.25-26, 조선·중앙·동아 등 17개지 ○ 03 지원신청안내 설명회 개최 - 10.07-08(2회) (* 전년도는 1회) - 200명 참석 ○ 03 지원신청서 접수 - 10.1~10.31 (* 마감 직전 2일간 전담 접수창구 개설 운영) - 총 2,838건 접수 - 지원심의 준비 (11월) ○ 03 심의위원회 구성 - 기금심의위원(8명, 각 분야별 대표) : 장관 승인 - 8개 분야별 심의위원 총 84명 위촉 ○ 03 지원심의 진행 - 1차심(기금1차) : 12.05, 우리원 회의실 - 2차심(분야별1차) : 12.10-13, 유네스코문화원(경기도 이전) - 3차심(분야별2차) : 12.20-24(예정) - 4차심(기금2차) : 12.30(예정) ○ 03 심의결과 발표 - 12월 31일(또는 03.1월초) (예정)	

※ 비교(기타사항)

◦ 개별 신청사업의 평균평점 계산 및 지원우선순위 책정 시 심의위원 전원의 평균점에서 ±30%를 넘는 위원의 평점을 제외한 후 재산출·책정함으로써, 독창성과 다양성이 생명인 문화예술사업의 특성이 최대한 고려된 방식으로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임.

◦ 2002 심의의 경우 분리되었던 지원심의서(지원신청서 요약 및 종합표)와 심의평가표(채점표)를 2003 심의에서는 일원화함으로써, 회의 자료를 간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임.

□ 문예진흥기금 운용수익 제고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5	○ 문예진흥기금 운용수익제고	○ 기금운용 목표 - 이자수입 : 271억원 - 목표수익률 : 6.6% ○ 수익률제고를 위한 투자상품 다변화 ○ 개선제도에 의한 변화된 운용환경 부응 지속화 ○ 위험관리 체계 지속 유지	○ 이자수입 : 264억 7천5백만원 ※ 2002. 11월말 현재(97.41%) ○ 수익률 : 6.59% ※ 적립금조성액 : 4,224억원 ○ 위험도를 제거한 투자상품개발 - 투자풀추가참여 : 200억원 - 부동산신탁 : 91억원 - 채권형 수익증권 : 58억원 ○ 기금운용지침에 의거한 자산 배분 지속 추진 - 1금융권 : 2금융권 = 5.5 : 4.5 ○ 기금운용자문회의의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투자자산 안정성 극대화 : 인덱스펀드 처리방안 등 주요현안 자문 ○ 한국펀드평가 기금운용평가 계약 (2003년분) - 매월 1회 투자자산에 대한 운용평가를 통해 투자상품 점검 강화 ○ 투자풀운용회사인 삼성증권 신탁부에 의뢰, VAR(투자자산리스크) 도입 자문완료	○ 저금리시장 지속에 따른 기금운용 위축 우려 ○ 연기금투자풀의 참여에 따른 기금 운용정책의 가변성이 불가피함

□ 문예진흥기금 모금업무 개선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6	○ 문예진흥기금 모금	○ '02년 모금목표액 : 320억원 ○ 미납자 법적조치 등 미납금회수 노력 지속추진 ○ 모금폐지에 따른 대체재원확보 및 조성목표액 상향 조정	○ 모금실적 : 445억 6천만원 (139.25%) - 복합관이용객 증가 및 미납사례 방지를 통한 모금수입제고 ○ 법적조치 실적 : 29건 - 형사고소 : 21건(234,610천원) - 민사절차 : 8건(강제집행 3건, 지급명령 5건, 269,678천원) ※ 법적조치 회수 실적 : 16건, 221,060천원) ○ 하반기 미납사례방지 및 모금실태 파악 출장 실적 - 기간 : 02. 7.8-7.13 - 미납액 회수액 : 89,242천원 ○ 자동차극장 운영실태 파악 출장 - 기간 : 02. 11. 4 - 11. 20 - 전국 주요 소재지 일원 ○ 공연장운영자 면담을 통한 미납액 조기회수 추진 - 성남극장(안준영) 등 수시 면담 및 독려 추진 ○ 기금조성목표액 상향조정 보고 (2002. 10, 대문화관광부) - 2010년까지 조성목표액 1조 5천억원 - 문화관광부 “순수문화예술진흥계획” 발표에 우리원의 조성 목표액 및 조성기간 수용발표(2002. 11)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경정수입금 배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국회 및 관련단체 협의 지속 추진 - 동 사업 수입금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배분참여 관계법률 상정(2002. 11 헌경대의원 발의에 따라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 - 동법안 통과 시 연간 400억원 이상의 신규재원 확보 	

※ 비교(기타사항)

○ 2004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른 신규재원 확보 및 문화예술 수요증대 및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성목표액 상향조정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를 지속한 결과 하반기에 조성목표액 상향조정 및 대체재원(경륜·경정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상여금제도 정착

순 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도 도입한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로 정착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개선 ○ 평가 완료 및 성과 상여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투명성 제고 : 다면평가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장 : 동료(부장단)와 하급자(팀장단) 평가 추가 · 팀장 : 동료(팀장단)평가 추가 · 직원평가단 확대 등으로 임직원 45명 평가 참여 - 평가의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의 후하거나 박한 배점성향 상쇄(원점수 대신, 순위에 따른 비율로 대체) · 피평가자 규모에 따른 불이익 보완(차상급자의 점수가 직상급자보다 높을 시 차이를 계산하여 추가점수 적용) - 평가추진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평가 전산프로그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면평가단의 동시 평가 가능 · 평가 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 2002년 12월 중 평가완료 예정 	

□ 인사제도 개선(직원평정제도 개선)

순 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인사시스템 개선과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 2002년도는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직원평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함. ○ 향후 인사관리 제반사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평정제도 개선 계획안 수립 ○ 직원 및 노조 의견 수렴 ○ 직원평정제도 확정 및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평정제도 개선계획안 수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원 발전방향에 대한 직원의 참여 및 기여도 평가에 주안을 둠(중장기 발전계획, 목표관리제, 심사평가 개선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평가자료에 근거한 평가 도입(개인별 근무실적과 부서별 성과평가 병행) - 평가의 신뢰성 제고(상급자, 동료,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 성과평가와 보수체계 연계(직원평정 중 근무실적 평가를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 ○ 직원평정제도 개선계획안 각 부서 통보 및 직원설명회 개최 ○ 노사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인사제도의 개선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3년부터 시행키로 결정 ※ 근무평정제도 중 근무실적평정부분은 2002년도 성과상여금제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그 결과를 보완하여 2003년도부터 실시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부터 실시키로 함에 따라 목표관리제 도입 등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일정 상의 차질 초래 ○ 부, 팀장 목표관리계획서 평가가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시행 초기의 문제점 보완 필요 ○ 목표별 비중의 설정 등 제도의 개선 필요

□ 계약업무 개선

번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문제
9	계약업무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	사업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합리적인 입찰방식 도입	사업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총 15건 입찰 실시)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병행 입찰(디자인 용역, 컴퓨터 활용 기술개발용역 등의 경우) - 우선협상방법 입찰(입찰참가자 중에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순서를 정하여 협상 실시 후 우리원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 체결) - 조달청 대행 입찰(대규모 사업의 경우) - 제한경쟁입찰 (부실업체참가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 - 최저가 입찰(구매, 제조 등) - 복수예비가격 입찰(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도 입찰방식 적용	수의계약 대상 중 공사 5천만원 이상, 기타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방식 적용(극장 구조안전진단 용역 등 2건 실시)	
		규격화된 공산품은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최저가 구매 및 구매용 기업카드 활용 구매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한 최저가 구매로 예산을 절감하고, 법인기업카드를 활용한 구매로 법인세를 절감함(11건실시)	
		계약상대자가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렴계약제' 실시	청렴계약제 실시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상호신뢰감 구축 및 건전 계약 풍토 조성 - 30건 실시) - 홈페이지 '입찰 및 수의계약 공고'란에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하여 상설 안내 - 입찰 및 수의계약 전에 우리원과 업체간 상호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교환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	
	입찰 및 수의계약 공고시 인터넷 적극 활용	우리원 홈페이지에 '입찰 및 수의계약 공고' 배너 독립적으로 설치	'입찰 및 수의계약 공고' 배너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우리원 계약에 관심있는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함(1건)	
		우리원 계약 공고 내용을 입찰정보사 홈페이지에 자동 연계 공고	모든 입찰 및 수의계약공고 사항을 '입찰정보사' 및 '21라인 입찰정보사' 홈페이지에 무료로 자동 연계 공고하도록 조치하여 신문광고 이상의 효과를 획득하고, 많은 업체의 관심을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계약을 실시함(30건연계공고)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공사 2천만원, 기타 1천만원)에 대해서도 인터넷 공고 실시	수의계약은 공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적극적으로 공고를 실시하여 많은 업체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수의계약 총 23건 공고)	
	규제사항완화 및 고객편의 도모	입찰 참가 서류 간소화	입찰참가 서류 중 필수 구비 서류 외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함(입찰15건 실시) - 사용인감계를 별도 제출하던 것을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 -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던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최소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업체에게 참가 기회를 확대함 (입찰 15건 실시)	
대금 지급 기일 내 신속 처리		검수 완료 후 14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무방하나, 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 대금을 지급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함 (712건 지급)		

□ 회계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활용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추진실적	사업수행 상 문제점
10	퇴직금 및 임금 인상 산출 프로그램 개발, 활용	퇴직금 및 임금 인상 산출 프로그램 개발, 활용	회계관재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예술정보화팀의 협조로 퇴직금 및 임금 인상 산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 편성 및 인력 관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함에 따라 업무 능력을 제고함	
	부가가치세 신고프로그램 개발, 활용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그램개발, 활용	회계관재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예술정보화팀의 협조로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유용하게 활용함에 따라 업무 능력을 제고함	

□ 관객개발지원 사랑티켓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11	○사랑티켓을 통한 관객의 예술접촉 기회 확대	○서울지역 사랑티켓 추진	○서울지역 사랑티켓 지원 - 관객 200,000명 사랑티켓 지원	
		○ 지역사랑티켓추진	○지역사랑티켓 지원 - 부산,울산,대전,충북,경남, 전북 등 6개처 총 1.4억원 ※ 매칭펀드 시스템에 의해 지역확보예산의 2배를 우리 원이 지원 ○거창국제연극제 사랑티켓 사업 추진 - 지원액 : 23,000,000원 ※ 지역 단일행사의 경우 매칭 펀드율을 조정, 지원(1:1) ※ 우리원과 거창군이 각각 23,000,000원씩 지원 ○전국연극제,무용제 사랑티켓 지원 - 전국연극제(30,000,000원) - 전국무용제(21,000,000원)	○지역 사랑티켓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됨.
		○ 관객개발사업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 2003년도 사랑티켓 사업 예산 증액(32억원/02년 대비 10억 증) - 서울사랑티켓 : 15억원('02) --> 20억원 - 지역사랑티켓 : 5.5억('02) --> 10억 원 연도별 예산 추이 ·2000년 : 9.5억 원 ·2001년 : 12억 원 ·2002년 : 22억 원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사랑티켓 인터 넷 판매를 통한 관객의 편의성 도모	○사랑티켓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랑티켓 홈페이지 오픈을 통한 사랑티켓 인터넷 판매 개시 (www.artsbank.or.kr) - 일자 : 7.30(화) - 그동안 현장판매만 해오던 사랑티켓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 개시 - 사랑티켓 참가작품 공연정보 제공, 관객평 올리기 등 운영중 -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수 : 5,300명(12월 현재)	
			○사랑티켓 인터넷 공연 예매 추진 ※ 2003년도 사랑티켓 전작품 공연 예매제 실시에 앞서 문예진흥원 예 술극장, 학전 블루 공연에 한해 공연예매 시범실시 - 대상 : 광혜유감,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등 6개 작품	
○사랑티켓 사업 관리의 효율성 도모	○사랑티켓 온.오프 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랑티켓 전체 통합 db관 리가 가능하도록 함 - 개발기간 : 2002.11-2002.12		
	○사랑티켓 통합 이미지(CI)개발	○사랑티켓 통합이미지(CI) 개발 - 사랑티켓 사업의 이미지 개선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랑티켓 통합이미지 개발 - 개발기간 : 2002.11-2002.12		
	○사랑티켓 평가계획 수립	○ 사랑티켓 평가사업 연구용역 추진 - 사랑티켓 사업의 그동안의성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객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외부 연구단체에 관객개발사업연구 용역 의뢰,추진중 - 대상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연구기간 : 2002.12~ 2003.3 (4개월) ※ 2002년 감사원 감사시 사업 평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 긴급하게 사업 에 반영,추진 (2004년 예산작업 개시전 종료 예정)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사랑티켓 문화 사랑 회원확충 을 통한 문예 진흥기금 확충 에 기여	○회원 확충	○ 회원수 : 9만 6천명(12월 현재) ※ 국민카드사와의 계약에 의거 회원 카드사용액의 0.2%를 국민카드사 가 우리원에 기부 하기로 되어있음. ※ 기부금 사용 내용 - 0.1% : 문예진흥기금 적립 - 0.1% : 회원 서비스 확대 비용 (마케팅 비용) ※ 회원수를 10만으로 가정할 경우 2억 원을 기부 받아 1억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 가능. (2003년 2월 예정)	

※ 비고(기타사항)

○ 2003년도 사랑티켓 인터넷 홈페이지 공연예매 확대 예정

- 내용

-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사랑티켓 참가작품에 대해 공연예약을 실시
(5,000원 할인 혜택)
- 대학로까지 나와서 사랑티켓을 직접 수령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공연장으로 가서
관객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기대효과

- 공연 예매의 편리성 증대로 사랑티켓 이용 관객의 만족도 제고
- 사랑티켓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로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 증가
--> 문예진흥기금 확충에 크게 기여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원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됨

-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 미가입 직원들의 적극적인 회원 가입 및 카드 사용
활성화 기대 (주카드로 사용)
- 사랑티켓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약 및 관람,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 등

□ 해외문화기관과의 교류 강화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상 문제점
12	○해외문화기관과의 교류 강 화	○연변문련, 카자흐스탄 국립고려 극장과의 교류 ○우즈베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 과의 교류	1. 『연변문련』, 『카자흐스탄고려극장』 관계자 방한 ○기간 : 10.21-28 ○방문인사 : 연변 2 / 카자흐 1명 ○방문내용: 문화의날 행사참석, 우리원 시설견학 및 주요문화예술기관 방문, 공연관람 등 2. 『연변문련』, 『카자흐스탄고려극장』 방문 ○기간 - 연변문련 : 2002. 9. 1 - 5 - 고려극장 : 2002. 9. 13 - 20 ○방문인사 - 연변문련 : 김정옥 원장 등 2인 - 고려극장 : 이용진 공연예술팀장 ○방문내용 - 연변문련 :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연 변 관계자 면담 - 고려극장 : 국립고려극장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고려극장 관계자 면담 3.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 사물놀이 악기 지원 ○지원목적 :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예술 교육 및 실습 ○지원내역 : 사물놀이 4세트, 의상	

□ 통일문학전집발간을 통한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학전집 발간 추진 - 수록작품 수습 - 수록대상작가 작품 선정, - 수록원고 집필 - CD-ROM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제작 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발간계획 수립 : 2002.7.23 - 수록작가 : 1,035명 (남한 776명, 북한 259명) - 수록편수 : 5,576편 (남한 4,523편, 북한 1,053편) ○ 제작업체 선정 : 2002.8.5 - 업체명 : 아이티레디(주) - 계약금액 : 148,500,000원 ○ 남한작가 게재동의서 미확보 작가 저작 동의 추진 - 게재동의 미확보 작가 (상반기 기준) : 46명 - 11.30 현재 : 13명 추가 확보 (거소 불명작가 33명) - 미확보 작가 조치계획 수립 : 2002.11월(미확보시 작품게재 제외) ○ 남한작품 게재 출판동의 추진 - 출판동의를 위한 보안인증프로그램 추가 설치 : 2002.11월 - 출판동의 확보 ○ 북한작품 저작권 동의 추진 - 북한측과 협의 추진 : 2002.10월 - 12월(북한측 공동 제작 방안 협의) - 저작권 소유 업체 업무협의 추진(대훈서적, 장지민) ○ 예산집행현황 : 130,793,5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작품 수록 저작권 문제 조치

□ 기획전시 및 미술행사 지원성과 제고방안 마련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전시 : 사업 목표 및 규모에 비해 효과성이 미흡, 심의기준 등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미술행사 : 사업 추진주체가 지정된 사업임을 고려 성과관리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활용 ○ 사업운영전반에 대한 사업추진주체의 자체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기획전시 지원 성과관리 세부 평가지표 설정(2002.5) ○ 세부평가지표 평가 활용 - 대상사업 : 창의적 예술지원 미술분야 사업 - 평가활용 : 39건(현장평가 13건) 중 서면평가 22건(현장평가 10건) 추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 개선 방안 접수(2002.8.13) - 대상 : 한국미술협회 - 대상사업 : 대한민국미술대전 - 개선내용 : 심사방식 개선 - 후속조치 : 2003년초 운영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 예정 (사무국과 협의 완료) 	

□ 미술관의 사회교육기능 강화 및 예술접촉 기획 확대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2002.11.30)	사업수행상 문제점																								
15	<p>○어린이미술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 운영방법 : 우리 원과 프로그램 개발자(민간) 공동 운영(계약기간 1년) * 수익금 배분 : 각 50% - 교육대상 : 5세(유치원) 부터 13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250명 내외 - 교육장소 : 마로니에 미술관 3층(작업실 3개) - 수강료 : 130,000원 (재료비 포함) - 수강목표 인원 : 250명 - 교육시간 : 1일 4회 (11:00/14:00/16:00/18:00)</p> <p>○상설미술강좌 - 프로그램명 : ‘화요일의 미술이야기’ - 기간 : 2002.4월 ~ 12월 (9개월) - 회수 : 주 1회 (연간 40회 이내) - 장소 : 마로니에미술관 3층 상설강좌실 - 시간 : 매주 화요일 14:00 ~ 16:00(2시간) - 수강료 : 월 20,000원 - 최대 수강인원 : 50명</p>	<p>○어린이미술교육프로그램 - 7월-12월 :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p> <p>○상설미술강좌 - 7월-12월 :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 지속 운영 (총 21회) - 강좌시간 변경 조치 (2002.10월 이후) · 당초 : 14:00-16:00 · 변경 : 19:00-20:00</p>	<p>○어린이미술교육프로그램 - 7월-11월 운영실적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 <th>수강생수</th> <th>총수입</th> <th>순수익금</th> </tr> </thead> <tbody> <tr> <td>7</td> <td>197</td> <td>23,013</td> <td>5,879</td> </tr> <tr> <td>8</td> <td>209</td> <td>24,301</td> <td>5,937</td> </tr> <tr> <td>9</td> <td>212</td> <td>24,664</td> <td>7,069</td> </tr> <tr> <td>10</td> <td>212</td> <td>24,852</td> <td>6,210</td> </tr> <tr> <td>11</td> <td>206</td> <td>23,747</td> <td>5,605</td> </tr> </tbody> </table> <p>- 예산집행실적(7월-11월) : 59,173,825원</p> <p>○상설미술강좌 - 2기,3기 운영실적 수강생수 : 48명 수강료수입 : 3,574천원 - 예산집행실적 : 10,200,000원</p> <p>* 강좌평가제 시행 · 시행시기 : 2002.10월부터 · 시행방법 : 매강좌별 수강생 대상 설문평가 · 활용 : 강좌진,프로그램 구성시 반영 및 서비스 개선 등</p>	월	수강생수	총수입	순수익금	7	197	23,013	5,879	8	209	24,301	5,937	9	212	24,664	7,069	10	212	24,852	6,210	11	206	23,747	5,605	
월	수강생수	총수입	순수익금																									
7	197	23,013	5,879																									
8	209	24,301	5,937																									
9	212	24,664	7,069																									
10	212	24,852	6,210																									
11	206	23,747	5,605																									

※ 비교(기타사항)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운영

- 월평균 회원수 200명 이상을 지속 유지하여 공공 전시공간으로의 사회적 기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미술관 운영의 수익성 및 재정자립도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02. 11월 현재 사업운영에 따른 연간 지출액은 100,524,489원인 반면 수입액은 193,687,650원 으로 수익성 사업으로의 가능성을 보였음.

○ ‘화요일의 미술이야기’ 운영

- 2002.11월 현재 연간 총 34회의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평균회원수가 50명으로 일반인 대상 미술 강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음.

□ 소장작품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미술문화 접촉기회 확대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2002.11.30)	사업수행상 문제점
16	<p>○소장작품 지역순회전 개최 - 대상처 : 전국 35개 지역 문예회관 중 전시 희망처 - 전시추진 방법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 - 전시작품 :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품중 선정</p>	<p>○소장작품 지역순회전 개최 - 평택시 문화예술회관(경기) : 2002.7.15-7.31 - 의정부 예술의전당(경기) : 2002.8.3-8.25 - 동해시 문화예술회관(강원) : 2002.8.28-9.14 - 구미시 문화예술회관(경남) : 2002.10.11-20</p> <p>○수장고 시설 개보수 공사 - 근거 : 미술6204-(2002.8.5) ‘2000 문화관광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 소요예산 : 170,000,000원</p>	<p>○소장작품 지역순회전 개최 - 추진실적 : 좌동 - 관람인원 : 연인원 31,000명 - 대상작품 : 역대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66점)</p> <p>○수장고 시설 개보수 공사 - 수장고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 - 공사내용 · 수장고 내부벽면 특수 자재 시공 및 향온습도 장치 설치 · 회화 랙 설치 등 작품 수장 기능 강화 등 - 공사기간 : 2002.11월-12월</p>	

※ 비교(기타사항)

○ ‘소장작품 지역 순회전’ 운영(신규사업)

- 역대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 작품 66점을 대상으로 8개 지역 문예회관 전시장을 활용한 순회전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미술 향수기회 확대하고 지역간 미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아울러 소장작품의 활용도를 높여 미술관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였음.

○ ‘수장고 시설 개보수’ 공사(신규사업)

- 공공 미술관으로써 소장작품의 수장능력 제고를 위해 연도 중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수장고 시설의 전면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음.

- 동 공사는 과거 미술관 운영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간 적정 장소 확보 및 예산 반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미술관 소장작품의 규모와 향후 소장작품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수장고 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리노베이션과 함께 수장능력 제고를 위한 항온항습장치 설치 등을 추진키로하고 관련 예산은 2002년도 미술관 관련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재편성하여 추진하였음.

□ 서울공연예술제 지원업무 개선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17	○서울공연예술제를 국제적인 공연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 운영방식 등의 개선	○ 서울공연예술제 운영규정 개정 ○ 2003년도 집행위원회 구성 ○ 예술총감독제도 운영	○ 서울공연예술제 운영규정 개정 - 집행위원은 원장이 선임 - 예술총감독제 도입 - 임원 연임 가능 항목 신설 ○ 2003 집행위원회 구성 - 집행위원장 : 장민호 - 부위원장 : 김혜식 - 위원 : 김윤철, 박일규, 양선희, 이종훈, 하상길 - 당연직위원 : 무용협회이사장, 연극협회이사장, 문화부 예술국장, 서울시 문화관광국장,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 예술총감독 선임 : 김우옥	

□ 공연예술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18	○효율적이고 새로운 지원방식 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 공연예술분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자문 ○ 각종 사례 연구	○자문회의 개최 - 기간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공연예술분야 지원심의회의회시 - 대상 : 공연예술분야 지원심의회위원 - 내용 : 효율적이고 새로운 공연예술분야 지원방식 개발 ○ 각종 사례 연구 - 국내외 지원제도 사례 연구	

□ 공연장 관객 서비스 향상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19	○ 공연장 관객 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진행과 관객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할 하우스매니저 채용 ○ 관객리포터등 공연장 실소비자 의견을 통한 예술극장의 관객 서비스 경쟁력 확보 ○ 편안한 관람 분위기 조성 ○ 예술극장 이용 관객 만족도 및 극장 인지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 매니저 채용 공고 : 2002. 11.21 ○ 하우스 매니저 채용 : 2002. 12. 9 ○ 관련예산집행 없음 ○ 관객리포터 : 15명 ○ 관객리포터 온라인 게시판 신설 운영 ○ 공연관람 및 극장운영 관련 제출 리포트 : 9 명 30건 리포트 제출 ○ 관객리포터 활용에 따른 극장 운영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극장 음향상태 개선 요구에 따른 극장음향 환경 진단 추진 * 2002. 12월 중 추진 예정 - 화장실 한줄서기 표지문 설치 등 - 여자 화장실내 물품 보관 선반 설치 ○ 관객리포터 간담회 개최 : 1 회 ○ 비예산 사업 ○ 관객입장전 청결상태 재점검 ○ 입석표 발권 폐지 ○ 관객안내원 적소적량 활용 ○ 안내원 업무숙지 및 친절 교육 매일 실시 ○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의 차별적인 이미지 구축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 결과를 Feedback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예술극장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 대상표본 : 예술극장 또는 타 공연장을 이용하였거나 향후 공연을 관람할 의향이 있는 성인 남녀로서 2002.11. 15 - 12. 31 사이에 예술극장을 방문한 관람객 1,500 -2,000 명 ○ 조사 기간 : 2002. 11. 15 - 12. 31 (45일간) ○ 소요 경비 : 1,366,500원 	○ 특별한 문제점 없음

□ 공연장 이미지 개선 사업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및 관련 예산집행현황(2002.12.10 현재)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0	○ 공연장 이미지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공연 안내지를 제작하여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 및 주요예매처 등에 배포하여 대관단체 및 관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예술극장 이미지 제고 ○ 극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극장 무대 상부 그리드 공사 - 예술극장 건축물 내·외부 구조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안내지 제작 및 활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회수 : 격월간 1회(10월) * 공사 휴관으로 발행 횟수줄음 - 제작부수 : 회당 8,000부 - 제작비 : 2,090,000원 - 배포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연장 :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호암아트홀,문화일보홀, 금호아트홀,경동극장, LG아트센터,한전아츠폴센터 . 주요예매처 : 교보문고, 영풍문고,대한음악사, 동화서적,한국관광공사, 진솔문고,을지서적,서울문고,시내 주요 관광안내센터 . 기자 및 평론가 : 개별발송 - 배포관련 경비 : 240,000 원 ○ 대극장 무대 상부 그리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2. 7. 29 - 10. 20 (84일간) - 공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바랜 하중증가 부담 해결/ 무대 선진화를 위한 자동화 운영 시스템 구축 - 관련경비 : 941,586,292원 ○ 예술극장 건축물 내·외부 구조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2. 12월 중 예정 - 구조진단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구조 및 시설) 상태/노후화 및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존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결과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전관리 계획수립시 반영 	○ 특별한 문제점 없음

□ 문화예술종합정보사이트 ArtsOnLine 구축 운영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1	○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문화예술콘텐츠성격의 정보들을 분리, 별도의 문화예술종합정보사이트(www.ArtsOneLine.or.kr)로 독립 운영	○ 기존 홈페이지의 기관홈페이지와 문화예술정보사이트 분리 완료	○10월 : 홈페이지 분리작업 착수 ○10월 21일 : 각 홈페이지별 통합 검색 프로그램 수정 완료 ○11월 말 : 홈페이지 분리작업 완료 및 서비스 개시 - 기관홈페이지 : www.kcaf.or.kr - 문화예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www.artsonline.or.kr ○소요예산 : 11,000,000원	

□ 지원신청업무의 전산화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2	○ 원내행정전산화(통합정보시스템)의 지원시스템 중 지원신청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인터넷으로 접수처리	○ 통합정보시스템의 인터넷지원 개발 소프트웨어인 웹어플리케이션서버(EAServer)를 이용한 지원시스템 인터넷 지원용 프로그램 개발	○ 지원시스템 인터넷 지원용 프로그램 개발 : - 개발완료내역 : 단체검색, 신규단체 등록, 단체정보 수정, 지원신청 내용 등록. - 2003년 지원신청 수시 접수(2003. 5월이후)부터 사용예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원신청을 원하는 단체(개인)가 직접 지원신청과 관련된 일정부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함.(테스트 기간 : 2003.1.-4)	

□ 예술자료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3	○예술자료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을 통한 예술자료관 운영의 효율화 및 과학화	○해외사례연구 ○예술자료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완료	○예술자료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완료 - 자료, 시설,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운영평가 완료 - 해외 사례 연구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 36개 중장기 추진과제 (장기과제 8개) 도출 및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의 지연 ○중장기발전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인식의 전환 필요

□ 예술자료관 이용자 서비스 개선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추진계획	하반기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4	○예술자료관 회원 및 이용자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예술자료관 이용활성화	○회원제도 개선 및 관외대출제 시행	○예술자료관 회원제도 변경 및 서비스 개선 - 평생회원제도 도입 (년 회원제 --> 평생회원제) - 회원가입비 조정 (년회비 20,000원 --> 회원가입비 30,000원) - 자료 대출 및 반납처 확대 * 대학로 본원을 이용한 회원의 자료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 ○영상음악자료 관외대출을 위한 준비작업 - 대출용 자료 구입 및 제작 - 대출 자료 비치 방안 등 수립	

□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5	문화예술연수원으로의 개편을 계기로 1987년 이래 추진해온 연수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전문 연수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가 양 ○ 무대예술 전문연수 (장기과정) 실시 - 무대미술아카데미 (무대미술최고전문성과정) - 공연예술아카데미 (연기자 현장 창조 과정) ○ 문화예술 단기 연수 추진 - 8개 프로그램 17개 과정 중 7개 프로그램 10개 과정	○ 무대예술 전문 연수 (장기과정) 수강생 모집 및 실시 - 무대미술아카데미 (1년 과정) . 분야별 수강생 : 4개 분야, 49명 * 무대디자인(23명), 무대의상(5명), 무대조명(14명), 무대음향(7명) - 공연예술워크숍 (3개월 과정) . 2차 교육 실시중 (10월-12월) . 수강생 : 7명 * 예산집행액 : 220,934,840원(74.43%) ○ 문화예술단기연수 실시 (7개 프로그램, 10개 과정) - 문화행정연수 : 문화회관건립담당공무원연수(16명)/북한문화예술의이해(15명) /고위정책과정(20명) - 공연기획연수 : 2차(13명) - 문화교육프로그램 기획연수 : 2차 (18명) - 무대예술전문인 연수 : 기본과정(18명), 전문과정(33명) - 무대예술전문연수우수자 해외연수(12명) - 동인지문학관운영자 연수 (40명) - 지역축제 및 지역활성화전략 국제 워크숍 : 108명 * 예산집행액 : 111,309,584원(78.38%)	

□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다각화

순번	업무개선 과제개요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 수행 상 문제점
26	시설대관 및 교육시설로만 기능했던 연수원을 학습공간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운영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교육시설의 활용 극대화 ○ 지역과 연계된 문화사업 추진	○ 문화예술 전문 연수 추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기능 재편 및 활용극대화 - 창조관 (연수동) : 문화예술 단기 연수 추진 * 보유시설 : 구내식당, 사무실, 세미나실, 강의실, 컴퓨터실, 자료실, 음향 녹음실, 숙소 등 - 실험무대 (교육공연장) 및 무대미술스튜디오 (제작작화동) : 무대예술 전문 연수 (장기) 추진 * 보유시설 : 연습실, 공연장, 조명 및 음향 조정실, 장치제작실, 작화실, 소품제작실, 디자인실, 의상제작실, 염색실 등 ○ 교육공연장인 실험무대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 문화향수 증대 - 제 2차 공연예술워크숍 수료 작품 발표회 (12.18)에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문화향수 기회 부여 예정	

2. 경영혁신 과제 추진 실적 평가

코드	과제 및 추진실적	추진시 한	자체평가
1.	기계획된 경영혁신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뉴서울골프장 매각 ○ 뉴서울골프장 매각 정상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매각 및 해외 자본 유치 등 매각 지속 추진 - '02.1월 ~ 12월 대명레저산업등 13개처와 매각 상담 - 2002. 8 적정매각가 산정 컨설팅 용역 의뢰 : 현 적정 매각가 수준 약 2,460억원 향후 5년후 매각가 약 3,200억원(추정) - 2002.10 컨설팅 용역 결과 이사회 보고 : 골프장 매각 처리시 이사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 제시 	'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서울골프장 매각 정상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매각 상담 지속 진행, 적정 매각가 컨설팅 용역 추진 및 이사회 보고 등 매각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경영혁신 노력을 경주하였음
2.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조직 재설계 ○ 조직 재설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제163회 이사회 심의·의결 : '02.1.24 - 주무부처(문화관광부)승인완료 : '02.1.31 - 조직개편 완료 : '02.2.1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개편을 통해 조직을 핵심 역량 부서 중심으로 재설계 완료 ·기능별 재편 : 기존 4부 2관 → 6부 (기획조정부, 경영지원부, 지원1부, 지원2부, 지원3부, 지원4부) 	'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재설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핵심 역량 부서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 및 기능별 재편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3.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경상비 절감 ○ 경상비 절감 정상 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도 경상비 예산 증가율을 당초 정부 지침증가율(3%) 보다 낮은 증가율(2%)로 절감 편성 완료 - 경상비 절감 연중 지속 추진 및 불요불급한 지출억제를 통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예산대비 5.9% 절감 집행) 	'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비 절감 정상 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비 예산 증가율 절감 편성 및 예산 절감 집행 등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음
4.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전자입찰, 구매활성화 ○ 전자입찰, 구매 정상 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대행 입찰 및 인터넷 공고·구매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대행입찰 : 3건, 1,373,000천원 ·인터넷공고·구매 : 53건, 1,785,911천원 - 조달청 대행 및 전자입찰 구매 활성화 연중 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적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우리원 홈페이지 '입찰·수의 계약 공고' 배너 광고란 별도 마련 완료 : '02.5 · 청렴계약제 시행 	'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입찰, 구매 정상 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대행 입찰 및 인터넷 공고·구매 활성화 연중 추진, 우리원 홈페이지 '입찰' 배너 별도 마련 및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운영시스템 혁신을 완료하였음

코드	과제 및 추진실적	추진 시한	자체평가
4.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지식경영체제 구축 ○ 지식경영체제 구축 정상 추진 완료 -1/4분기:전자결재시스템 본격시행, 전임직원의 전자결재 활용 정착,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활성화 -2/4분기:전자결재시스템 상시시행, 통합정보시스템(예산,회계,지원,극장대관,연수관리,국민모니터링프로그램) 수정 개발 구축 및 추진 -3/4분기:전자결재시스템운영 정착 및 상시시행,통합정보시스템(예산,회계,지원,극장대관,연수관리,국민모니터링프로그램)구축 및추진 -4/4분기:문화예술정보·예술지원 종합사이트 구축 완료 (www.artsonline.or.kr) 	'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영체제 구축 정상 추진 완료 -전자결재시스템 정착,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문화예술정보·예술지원 종합사이트 구축 완료 (www.artsonline.or.kr) 등을 통하여 지식경영체제 구축 및 운영시스템 혁신을 완료하였음
5.	경영의 효율성 제고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연봉제 도입 ○ 연봉제 도입 완료 - 연봉제를 포함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이사회의 의결 : '02.1.24 - 주무부처(문화관광부) 승인완료 : '02.1.31 - 임원급 연봉제 도입시행 : '02.2.1 - 임원급 연봉제 시행 : '02.2~12 	'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제 도입 완료 - 연초 임원급 연봉제를 도입 시행하여, 경영의 혁신 및 효율성을 제고함
6.	대고객 서비스의 질 및 경영 투명성 제고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고객서비스현장제도 실시 ○ 고객서비스현장제도 실시 완료 - 예술행정서비스현장 제정 완료 : '02.3.30 - 예술행정서비스현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前文) ·예술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국민의 참여 및 의견 제시 ·국민 협조 요청사항 - 고객서비스현장, 우리원 홈페이지 공시 완료 : '02.5 	'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서비스현장제도 실시 완료 - 예술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홈페이지 공시를 통하여 대(對)고객 서비스 질(質)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함.
6.	대고객 서비스의 질 및 경영 투명성 제고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국민모니터링제도운영 ○ 국민모니터링제도 운영 정상 추진 완료 -2001년도 국민 모니터링제도 결과 평가 완료 : '02.3.8 -2002년도 국민모니터링 제도 운영 계획 수립 : '02.4.26 -2002년도 국민모니터링 요원 일반 공개 모집 완료 : '02.4.29~5.3 -국민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구성(전국 약 100여명) 및 상반기 모니터링 추진 : '02.5~6 -국민모니터링 요원 평가관련 전문 사이트 개설 (www.infra.kcaf.or.kr/kcaf): 2002.6.1 -상반기 국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 '02.7~9 -국민모니터링요원대상 설문조사실시 :02.11.13~11.23 -국민모니터링요원 간담회 실시:2002.11.23 -국민모니터링 종합 결과보고 : 2002.12.5 	'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모니터링제도 운영 정상 추진 완료 -국민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통하여 모니터링요원 선발 및 연간 국민 모니터링 실시를 통하여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를 수용 반영, 대(對)고객 서비스 질(質)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함

코드	과제 및 추진실적	추진 시한	자체평가
7.	책임경영체제 강화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이사회 역할 제고 및 활성화 ○ 이사회 역할 제고 및 활성화 정상추진 완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임 이사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임 사외 이사 비율 82%, 문화예술계 인사 비율을 73% 비중 구성,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반영 운영 -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항 비상임이사 의견 제시 토의 · 향후 기금조성액 상향조성 필요성 의견 제시 및 뉴서울골프장 매각추진에 따른 향후 매각 결정시 이사회 승인 필요 절차 확인 등 2. 이사회 보고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및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3회 이사회('02.1.24), 제164회 이사회('02.2.28), 제165회 이사회('02.5.15), 제166회 이사회('02.8.28), 제167회 이사회('02.10.24), 제168회 이사회('02.12.17) 	'0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역할 제고 및 활성화 정상추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항의 이사회 보고의 정례화(분기별 1회 이상) 및 비상임 이사 역할 강화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였음
8.	고객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유사·하위 행정규제 규정 정비 ○ 유사·하위 행정규제 규정 정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관련 행정규제인 『모금관리규정』 규정 조항 정비를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방안 준비 : '02.1~4 - 규정심의회회의 의결 : '02.5.13 - 규정개정 이사회 의결 : '02.5.15 - 주무부처(문화관광부) 승인완료 : '02.5.24 - 개정내용 : 하위·유사행정규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제8조 모금대행의무 위반) 삭제 	'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하위 행정규제 규정 정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유사행정규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사항과 중복되는 대민규제 규정(제8조 모금대행의무 위반)을 삭제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함.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대민관련 행정양식 인터넷 제공 ○ 대민관련 행정양식 인터넷제공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신청 양식 등 대민 관련 행정양식 77종 인터넷 서비스 제공 완료 : '02.1~4 - 과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던 각종 행정서식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 최대한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행정양식 추가 보완 및 인터넷 제공 지속 추진 : '02.5~12 	'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관련 행정양식 인터넷제공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던 각종 행정서식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최대한 도모함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국민 편의를 위한 문화사랑카드 발급- '사랑티켓 문화사랑카드' 발행 완료 : '02.3.6 - 공연예술 종합관람할인권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문화사랑카드 발행 : '02.3 - 문화사랑카드 출시 기념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3. 6(수), 12:00 ~ 19:00 ·장소 : 문예회관, 마로니에공원 등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준비 : '02.1~4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완료 : '02.5~7 -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 : '02.7.30 (화) - 서비스 지속 추진 : '02.7~12 	'0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 문화사랑카드' 발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종합관람할인권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문화사랑카드 발행을 통하여 국민 편의 제고함.

3. 종합심사평가위원 경영개선부문 평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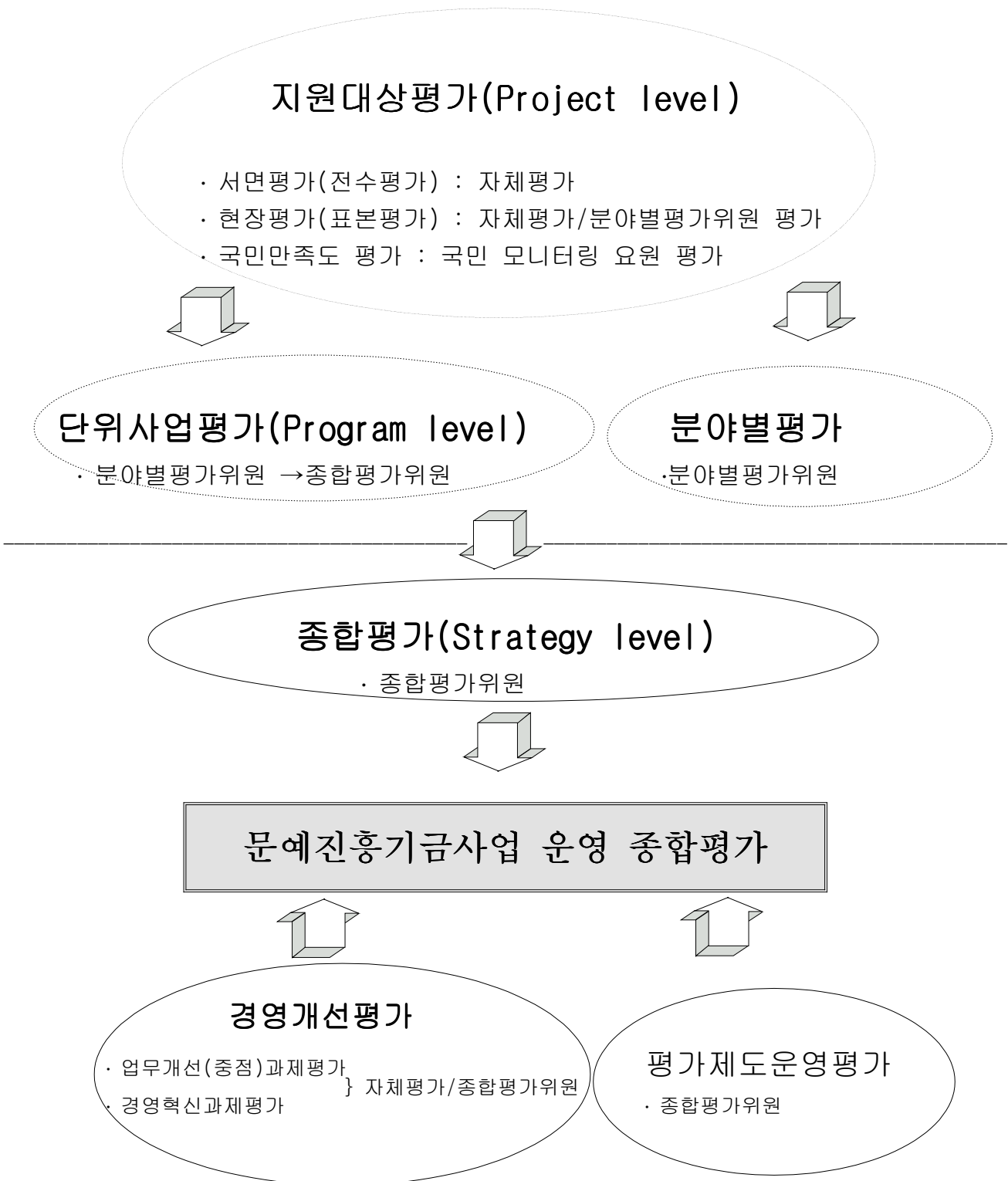
아래의 글은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의 팀별 개선과제와 경영혁신과제의 실적과 내부 평가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묶어 본 것이다.

‘내부 및 자체 평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통해 나름으로 성공적인 경영 합리화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강웅식)’ ‘외부 평가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부의 경영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고, 부담스러운 항목이다. 내부인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한 현재의 경영개선평가 외에 보다 획기적인 혁신을 위해서 전문컨설팅단체(예를 들면 매킨지 등의)의 과학적이고도 ‘전문적’ 경영개선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허순자)’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 사업선정과 지원금 배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객관성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현행 종합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영역이 신인에서부터 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폭이 넓다. 해당 부문 예술계의 현장 흐름을 파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가 없다. 또한 평론가보다 실제로 창작 작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다수 참여하다 보니 개관적인 선별이 이루어지기가 그 만큼 힘들다. 예술가들의 경우 평론가들보다는 인맥이나 학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장르의 현장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평론가 등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점수제 하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원 여부 발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년도에는 발표토록 해 사업 시행 단체로 하여금 준비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현행 4단계 평가 과정도 실제적으로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계에서의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예진흥원 자체 기획 공연 사업의 차별성을 높여야 한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이나 미술회관 등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행하는 기획 사업의 경우 일반 단체들의 공연이나 전시회와 차별화 시키거나 민간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부문 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장광열)’ ‘2002년 두어차례 문화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 때 본인의 의견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문예진흥원이 이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며 앞서가고 있음을 얘기했다. 나 또한 문예진흥원이 전범(前範)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전범(典範)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윤중강)’ ‘사업 보고서에 보이는 지속적인 체계화와 수치화 등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본인은 경영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이석렬)’ ‘원내 모든 구성원들의 경영 개선 노력이 돋보인다. 지금까지의 접촉경험이나 사업보고서에 비추어 보면 극히 전문적인 지식에 바탕을 둔 경영이었다고 확신하지만, 경영전문가가 아닌 이상 단호한 평가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박이문)’ ‘성과주의 예산, 다면 평가, 실적주의와 연봉제 등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하여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 시행이 자칫 실속없이 직원들의 근무의욕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제도도 좋지만,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자율성과 함께 창의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대회)’ ‘진흥원이 제시한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참조하면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혁신완료, 경영투명성 제고, 책임경영체제강화, 편의 도모 등 일견 모든 추진과제에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체평가란 거의가 자의적 판단에 따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매 년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에 한번씩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경영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박찬)’

이상의 경영개선평가의견을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전국 48개의 기금에 대한 평가에서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은 최 상위평가를 받았다(부록참조). 하지만 향후, 경영평가에 관한 한 외부의 전문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IV. 평가제도 운영평가

1.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추진 체계



2.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추진 방안

가. 중점 목표

- 목표 지향적 성과관리 체제에 적합한 심사평가제도의 본격 구축
-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실질적 운영
- 기금사업운영 및 기관경영 개선을 위한 실효성의 대폭 제고

나. 주요 추진 방침

- 본격적인 심사평가 2년차를 맞아 동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킴.
- 분야별평가위원회는 유관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구성하고 개별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평가를 중심으로 단위사업평가와 분야별 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하며 국민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국민 만족도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현장성 높은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그 활용도를 높임.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국민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지원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함.
- 개별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 결과의 종합시 지원사업성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서면평가’와 실사에 의한 ‘현장평가’의 비율은 40:60으로 함.
- 지원심의 등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 및 기관경영에 심사평가 결과가 최대한 실질적으로 피드백(feed-back)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함.

3. 추진 개요

가. 문예진흥기금사업 분야별 평가

1) 단위사업(Program level)평가 및 분야별 종합평가

가) 평가내용

- 계획 수립 단계 : 14개 핵심역량사업의 목표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 추진 단계 : 추진(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 종결 단계 : 목표의 달성도와 효과성

나) 평가(주관)자 : 분야별평가위원회 및 종합평가위원회

2) 지원대상(Project level) 평가

【 개별 지원대상 평가 】 : 현장 및 서면 평가

가) 평가내용

-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계획 대비 실적 등)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수월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달성도

나) 평가(주관)자 : 분야별평가위원 및 평가담당직원

다) 평가시기 : 연중 평가

【 국민 만족도 평가 】 : 국민모니터링 평가

- 가) 평가내용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수월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달성도
- 나) 평가자 : 국민 모니터링 요원
- 다) 평가시기 : 연중 평가

나. 심사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분야별 평가위원회 : 24명

장 르		위 원 명 단		
		성명	성별	현 직
문학 미술	평 론	강웅식	남	○고려대학교수
	평 론	김현도	남	○미술평론가
	양 화 조 각	전승보	남	○세종대겸임교수
연극	평 론	유현미	여	○작가
		허순자	여	○연극평론가
		안치운	남	○연극평론가
음악	평 론	정재활	남	○LG아트센터 운영국장
		우현주	여	○연극배우
		김용운	남	○조선일보 음악담당 기자
무용	평 론	이석렬	남	○음악평론가
		김은양	여	○음악평론가
		문승현	남	○경희대학교수
전통	국 악	장광열	남	○무용평론가
		성기숙	남	○무용평론가
		안병주	남	○경희대부교수
문화일반	민 속	손관중	남	○한양대학교수
		윤중강	남	○국악평론가
		현경채	여	○작곡가
문화일반	민 속	김기형	남	○덕성여대학교수
		전경옥	남	○고려대학교수
		정순모	남	○전 교사협회 회장
		박 찬	남	○전 대한매일 논설위원
문화일반	민 속	유영대	남	○고려대학교수
		이승하	남	○중앙대학교수

2) 종합평가위원회 : 12명

장 르		위 원 명 단		
		성명	성별	현 직
문학	평 론	강웅식	남	○고려대학교수
미술	평 론	김현도	남	○미술평론가
음악	평 론	이석렬	남	○음악평론가
무용	평 론	장광열	남	○무용평론가
연극	평 론	허순자	여	○청운대 교수
전통	국 악	윤중강	남	○국악평론가
문화일반		박 찬	남	○전 대한매일 논설위원
유 관 분 야	연구· 학계	박성희	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홍익	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대희	남	○광운대 교수
		이흥재	남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계				12명

3) 역 할

가) 분야별평가위원(회)

-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중 단위사업평가 및 분야별 평가
- 각 위원별로 분담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현장평가)

나) 종합평가위원(회)

-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중 종합평가 및 단위사업평가
- 경영개선평가
 - 업무개선(중점)과제 평가
 - 경영혁신과제 평가
- 평가제도운영평가

4. 평가 현황 분석

가. 평가방법(현장/서면평가)별 실적

1) 평가 대상사업 선정

- 현장평가 : 표본 추출(sampling)한 지원대상사업 272건
- 서면평가 : 전 평가가능 대상사업 1,039건

2) 2002년도 평가 실적 (2002.12.30 기준)

가)분야별 기준

- 현장평가

(단위:건)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16	13	36	28	50	26	33	28	45	35	43	33	9	6	35	28	5	5	272	202

○서면평가

(단위:건)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159	82	125	70	133	101	100	57	128	85	174	98	48	17	168	76	4	2	1,039	588

○참고: 국민모니터링평가

구 분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국민모니터링평가	1	35	34	21	40	13	3	2	1	150
평가가능대상	50	99	119	85	104	140	26	140	4	767
실적(%)	0	14.0	13.8	7.1	11.4	2.7	3.7	0.6	10.0	6.9

나)단위사업(지원유형)별 기준

○ 현장평가

(단위:건)

창의적 예술 지원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 지원		참여하는 예술 지원		예술자 정보보급지원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통일민족 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계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53	45	32	7	9	6	11	7	26	20	51	46	3	0	8	6	39	29	16	13	4	4	20	19	272	202

○ 서면평가

(단위:건)

창의적 예술 지원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 지원		참여하는 예술 지원		예술자 정보보급지원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통일민족 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계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간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건수
226	129	4	0	48	17	32	14	73	46	216	130	17	3	87	40	150	79	46	33	37	23	103	74	1,039	588

○ 참고 : 국민모니터링평가

(단위:건)

창의적 예술 지원		창작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찾아가는 예술 지원		참여하는 예술 지원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계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연평대	평가대상 평가건수
153	61	20	3	26	3	22	5	73	16	201	22	42	2	135	12	40	7	42	19	767	150		

* 국민모니터링평가 총 횟수는 527회로서 150건 각각에 대하여 평균 3.5명이 수행

5. 평가결과 반영 실적

가. 심사평가 결과 반영 대상

1) 평가반영대상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단체(개인) 중 2002년 12월 2일까지 현장평가/서면평가의 등록이 끝난 단체(개인)

2) 2002년 평가현황(2002.12.02 기준)

○ 총 평가반영 건수 619건

- 서면평가만 이루어진 건 수 : 417건

- 현장평가만 이루어진 건 수 : 86건

- 현장평가와 서면평가 모두 이루어진 건수 116건

○ 국민모니터링 현장평가

- 총 평가 527회 중 150건

나. 심사평가 결과 및 반영

1) 평가등급 책정 기본 원칙

- 먼저 현장평가(60점)와 서면평가(40점) 중 어느 하나만 행해진 사업은 각각의 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하고, 현장/서면평가가 모두 행해진 사업은 두 점수를 그대로 더함.
- 이 점수들을 토대로 <표1>과 같은 일관된 등급책정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함.

<표1>

등급 책정 기준					비 고
A	B	C	D	E	
88.0점이상	88.0점미만 ~ 75.0점이상	75.0점미만 ~ 63.0점이상	63.0점미만 ~ 50.0점이상	50.0점미만	만점 100.0점 ~ 최하점 35.0점

※ 백점으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를 절삭(버림) 처리함.

2) 2002년 문예진흥기금사업 단체별 평가 결과

등급	A	B	C	D	E	계
해당 단체(개)	49	364	141	11	0	565개 단체
분포도(%)	8.67	64.42	24.95	1.94	0	100.00%

3) 2002년 평가결과에 대한 2003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반영 결과

○ 2002년도 상반기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결과를 2003년도 지원심의 시, <2002년도 심사평가 결과반영 방안 “공통사항”>으로 하여 반영하고 성과목표별, 단위사업(지원유형)별 평가결과를 참고토록 함.

○ 2002년 총 평가단체 565개 단체 중 2003년 지원 신청한 378개 단체의 723건의 사업에 대하여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의 4개 공통심의기준 중 하나인 “신청자(단체)의 사업 추진능력” 항목에 평가 결과를 적용

※ 단,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31일 이전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심의 시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항목에 한 하여 최상위 등급(A)을 주지 아니함.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반영 현황

등급	A	B	C	D	E	계
2002평가 단체(개)	49	364	141	11	0	565개 단체
2003심의반영단체(개)	43	234	96	5	0	378개 단체
반영도(%)	87.8	64.3	68.1	45.5	0	66.9%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반영 결과

등급	A	B	C	D	E	계
해당 단체(개)	43	234	96	5	0	378개 단체
1건 이상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단체(개)	39	202	43	1	0	285개 단체
선정비율(%)	90.7%	86.3%	44.8%	20%	0%	75.4%

4) 2002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는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원 및 평가정책방향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자유모니터링 평가결과는 해당 팀의 협조를 얻어 해당 시, 도 문화예술(관광)과에 결과 통보, 사업수행 시 반영토록 하였다.

6. 종합심사평가위원 평가제도평가 종합

아래의 글은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의 평가제도에 운영과 그 실적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묶어 본 것이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 매우 체계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항상 실질적인 운용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장평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더욱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성’은 계량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평가의 평가항목은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강웅식).’ ‘그때그때 나타나는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보다 하루빨리 비교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축적해나갈 수 있는 평가제도의 틀을 구축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시행착오의 기간을 가급적 단축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장르의 변별성을 고려한 평가제도의 형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김현도).’ ‘현 평가제도가 지금 이 단계에 다다르기까지는 그간 실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예술을 평가, 판단하는데 구체적이지요, 논리적이지요, 분석적인 서술보다 계량적 수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약점도 있으며, 그밖에 몇 가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 당분간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현재의 평가제도의 미덕을 좀 더 확대시키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허순자)’ ‘현장 평가 제도의 시행은 늦은 감이 있으나 효율성이 높다고 본다. 현장 평가 위원 선정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선임이 필수적이며, 가급적이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평가의 결과가 지원 심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평가위원 들께 평가 전에 해당 사업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장광열)’ ‘앞으로 회의 등에서 좋은 의견을 내어 수정되거나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서, 여러 해 동안의 수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자주 평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윤중강)’ ‘전문적 분야에서의 개별적 평가는 별도로 하고 종합 평가(개별적 평가의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명과 해명의 과정을 일단 거친 다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평가대상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박이문).’ ‘평가 위원들이 사심이 없고, 평가 기록들이 착실히 쌓여간다면 언제부턴가 그런 기록들이 연중단체의 공신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악 부문 올해의 현장평가들은 이런 차원에 기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장 평가는 필요하다. 평가 위원들의 공정성, 보다 구체적인 지원신청서 작성, 착실한 데이터 관리 등

이 함께 가길 기대한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미래와의 관계에서 조명될 것이지만, 양악 부문 올해의 현장 평가들은 객관적 평가 근거 만들기에 일조 했다고 본다(이석렬) ‘현장평가제도가 도입된 첫해부터 2년 동안 현장평가를 실시해 본 당사자로서 현장평가제도는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진흥원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해왔겠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관련분야에 나름대로 식견을 가진 외부인사의 현장평가 참여는 의의 있는 일로 생각된다. 한편 예산상의 문제이겠지만 현장 평가위원들의 사례비나 출장비 지급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평가위원들도 자신들의 생업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장평가를 나갈지 의구심이 든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일 이다.(박찬) ‘현재의 평가 제도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평가 위원들의 선발, 관리가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담출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이대회)’

이상의 외부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심사평가제도는 차근차근 그 신뢰를 얻어 가고 있다고 본다. 과거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계량적, 비 계량적인 방법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평가를 통하여 문제 제기된 부문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뚜렷한 문예진흥기금의 사업목적에 토대로 평가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지원심의과정과 일관된 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기존의 애써 마련된 평가제도의 틀은 유지해 나가면서, 평가제도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인 문예진흥기금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붙임1)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 최종 결과

[기획예산처 / 기금운용평가단 주관]

- 교육·문화·외교 관련 기금분야 평균평점 순위 : 9개 기금 중 1위
- 경영개선·사업운영·자산운용 등 3개 분야 종합 평균평점 순위 : 전체 실사 대상 28개 기금 중 1위
- 분야별 점수 평가

- 경영개선

평가 항목	개선노력	경영혁신	의사결정	점수
문예진흥기금	B	B-	B	88.5

- 사업운영

평가 항목	집행실적	사업선정	사업성과	자원배분	점수
문예진흥기금	B	C	C ⁻	C ⁻	78.5

- 자산운용

평가 항목	개선노력	경영혁신	의사결정	점수
문예진흥기금	A ⁻	C	C	84.5

- 실사 기금 평균평점 종합 순위표 : 뒷장에 계속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종합 (실사기금)

(단위:점)

(* 각 분야별 100점 만점)

순위	기금명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	평균
1	문예진흥기금	88.5	78.5	84.5	83.8
2	○○○○○○○ 기금	86.5	83.5	80.0	83.3
3	○○○○○○○○○ 기금	85.5	77.5	84.3	82.4
4	○○○○○○○○○○○ 기금	82.5	81.5	83.0	82.3
5	○○○○○○○○○○○○○○○ 기금	82.5	81.0	81.5	81.7
6	○○○○○○○ 기금	82.0	80.5	81.5	81.3
7	○○○○○○○○○○○○○○○ 기금	81.5	79.0	83.0	81.2
8	○○○○○○○ 기금	77.0	84.5	81.0	80.8
9	○○○○○○○ 기금	78.5	77.5	84.8	80.3
10	○○○○○○○○○○○○○○○ ○○○○○○○ 기금	78.0	79.0	83.5	80.2
11	○○○○○○○○○○○○○○○○○ 기금	82.5	78.0	79.8	80.1
12	○○○○○○○○○○○○○○○○○○○ ○○○ 기금	79.5	78.5	81.5	79.8
13	○○○○○○○○○○○ 기금	80.0	79.5	79.5	79.7
14	○○○ 기금	77.5	78.0	83.0	79.5
15	○○○○○○○○○○○○○○○○○○○ ○○○ 기금	80.0	80.0	76.0	78.7
16	○○○○○○○○○ 기금	78.0	77.5	79.5	78.3
17	○○○○○○○○○○○ 기금	79.0	75.5	78.0	77.5
18	○○○○○○○ 기금	75.0	74.5	83.0	77.5
19	○○○○○○○○○○○○○○○기금	74.5	75.0	82.0	77.2
20	○○○○○○○ 기금	79.0	73.5	78.0	76.8
21	○○○○○○○ 기금	80.0	75.0	75.0	76.7
22	○○○○○○○○○○○ 기금	79.5	73.0	74.5	75.7
23	○○○○○○○ 기금	72.5	75.0	74.5	74.0
24	○○○○○○○○○○○ 기금	72.5	71.0	78.0	73.8
25	○○○○○○○ 기금	71.0	72.5	76.0	73.2
26	○○○○○○○○○○○ 기금	70.5	72.0	74.5	72.3
27	○○○○○○○ 기금	75.0	61.5	79.5	72.0
28	○○○○○○○○○ 기금	62.5	66.5	77.5	68.8

(붙임2)

문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문화예술인 설문조사 결과(요약)

가. 분석자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

나. 분석기간 : 2002.12.19 - 12.28

다. 분석결과요약

라. 조사 및 분석대상

- 조사 대상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자 총 2,200명
- 조사 방법 : 우편 조사
- 분석 대상 : 2,200부 발송 설문 중 회수된 738개 설문지

마. 조사목적 :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진흥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바. 조사문항 : 다음과 같은 6개 영역 26개 질문으로 구성.

① 재원조성, ② 지원체계 개편, ③ 지원행정 절차, ④ 지원신청 시기변경, ⑤ 지원심의 및 사후평가제, ⑥ 지원일반

사. 분석결과 요약

1) 재원조성

- 거의 모든 예술인(95.6%)들은 2004년 이후 모금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술인들은 모금제도 대안으로 수익금조성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문예진흥기금 적립액이 약 1조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적립 목표액 4,500억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2) 지원체계 개편

- 지원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의 88.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개편된 지원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3) 지원행정 절차

- 전반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신청안내 및 접수의 만족도는 80%를 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심의 만족도는 52.2%로 낮은 편이었다.
- 지원신청서 작성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원자들은 안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지원신청 시기변경

- 조사대상자의 69.4%는 '현행처럼 10월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응답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원심의 및 사후평가 제도개선

- 지원심의 및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50.9%)이 가장 많았으며, ‘매년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38.3%로 나타났다.
- 전국적인 규모의 예술단체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73.4%에 달했다.

6) 지원일반

- 최근 5년 간 지원금 수혜비율은 51.9%로 나타났다.
- 문예진흥원의 사업을 ‘재정지원에 한정하기’보다는 ‘다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문예진흥기금수혜가 다른 재원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진흥기금 신청대비 수혜비율 35%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의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행정 업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문예진흥원에서 계속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아. 1999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1) 비교 목적 : 1999년의 설문조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교를 통하여 1999년 이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운영 개선 정도와 동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인식 변화 등의 추이를 확인코자 함.

2) 1999년 설문조사 조사대상

- 조사 대상 : 장르별 전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심의 위원, 예총/민예총 등 단위협회 및 각 시도지회 개인 및 단체 등
- 조사 방법 : 우편 조사
- 분석 대상 : 776부 발송 설문 중 회수된 200개 설문지

3) 1999년과 2000년 설문조사의 비교분석결과 : 1999년 설문조사의 문항 35개와 2002년도 설문조사의 26개 문항 중 인구사회학적 질문을 제외한 15개 문항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이며, 이 문항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임

가) 재원조성

- 양 조사의 경우 모두 2004년 이후에도 계속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95%정도로 압도적이었다.
- 현행 모금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99년 19.9%에서 2002년 37.4%로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 문예진흥기금 적정 적립액에 대하여 현재 적립목표액인 4,500억원에 대하여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99년 8.6%, 2002년 5.8%에 불과하였으며,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9년 59.4%, 2002년 48.8%로 나타나 적립금 총액의 상한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지원행정 절차

- 지원신청 안내의 경우 만족도가 99년 70.2%에서 2002년 82.8%로 증가하였고, 신청서 접수의 만족도는 99년 72%에서 2002년 82%로 증가하였다.
- 99년 37.5%에 불과하였던 지원심의를 대한 만족도가 2002년에는 52.5%로 증가하였다.
- 99년의경우 지원신청서 양식 작성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51.5%이었던데 비하여 2002년의경우 신청서 양식이 어렵다는 견해가 57.5%로 나타났다.

다) 지원심의 및 사후평가 제도 개선

- 지원심의제도에 대해서는 99년 40.5%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나 지원심의제도가 대폭 개선된 이후인 2002년의 조사에서는 59.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 지원심의위원은 ‘일부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99년 56.8%, 2002년 50.9%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99년 28.9%, 2002년 38.3%로 나타났다.

라) 지원일반

- 최근 5년 간 지원기금 수혜비율은 99년 79%, 2002년 51.9%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의 조사와 2002년의 조사대상에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문예진흥기금지원이 사업수행에 끼친 재정적 기여도에 대하여, ‘기여한다’는 의견이 99년 62.1%에서 2002년 84.4%로 증가하였다.
- 문예진흥기금 수혜가 다른 재원의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응답은 99년 45.5%에서 2002년 67.5%로 증가하였다.